

글벗교양 20 성의순 편저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호를 만나다

성의순(成義順) 편저

도서출판 글벗

文解公牛溪成潭先生像



庚寅四月 石川 尹汝璜 敬繪

■ 작가의 말

책을 내면서

혜록 성의순 (우계문화재단 교육 이사)

‘만화 우계 성훈’ 책

우계문화재단은 지행일치, 언행일치를 몸소 실천하신 우계 성훈 선생의 참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2019. 05. 21.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장학사, 초·중고등 78개 학교에 공문과 책을 발송했습니다.

2019. 06. 10.(월) 10:00 파주교육지원청 이형수 교육장, 김찬용 장학사를 방문하여 면담하고 공문과 책 드렸습니다.

여름 방학 전 말북 중에 걸어서 걸어서 명함, 공문 80장, 책 50권 들고 3회에 39개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1. 2019. 07. 09.(화) 09:00~21:00 야당역 8개 학교 방문
2. 2019. 07. 11.(목) 09:00~21:00 운정역 10개교, 금릉역 5개교 방문

3. 2019. 07. 16.(화) 09:00~21:00 금촌역 5개교, 교하지역 5개교, 문산역 6개교를 직접 방문하면서, 인성 교육용 교재로 활용할 것을 건의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습니다.

최봉희 회장님과 성의순 교육 이사의 만남은 행운

2019. 07. 24.(수) 11:00 첫 전화가 왔다.

7월 16일(화) 금촌중학교 방문한 것을 아시고, 최봉희 국어 선생님의 전화가 왔다. 역사적인 날, 하늘이 활짝 열리는 기분 떨 뜻이 기뻐합니다.

지금은 용인에서 교감 준비 교육 중인데, 8월 9일 끝남.

우계 성혼 기념관에서 초등학교 대상 백일장 진행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셨다. 어찌나 반가웠는지 고맙습니다.

2019.08.14(수) 19:00 2번째 통화.

백일장, 독후감, 독서 토론회 계획서 금주 중 주신다고 하셨다.

2019.09.15(일) 10:00~22:00 첫 만남

우계 성혼 선생 재실에서 성호경 이사장님, 성유경 상임이사님, 최봉희 선생님, 서영훈 선생님, 성의순 교육 이사 만나서 백일장, 독서토론, 독후감, 골든벨 행사, 광탄중학교 독서토론 210명, 우계문화재단에서 <만화 우계 성혼> 책 230권 기증, 멘토 토론 진행비 130만 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서출판 글벗, 글벗문학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3회 글벗시화전에 「꽃대추 세알」 시 출판 시화 제작

제4회 글벗시화전에 「모란」 시, 캐리커처 시, 엽서전.

제5회 글벗시화전에 「모란」 시로 모란 등 작품, 족자, 다포, 성의순 작사, 전한준 작곡, 서지연 편곡, 성의순 노래, 글벗사랑 낭송, 글벗 인사 노래.

#글벗 백일장 제7회 글제: 커피 「왈츠와 닥터 만에서 팔순잔치」 로 아차상 수상.

#글벗백일장 제8회 글제 : 「글벗 사랑」 으로 우수상 수상.

4.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책 출판, 이런 것이 다 최봉희 회장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로 부모, 선생님, 배우자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님 최봉희 회장님 만난 것이 행운, 글벗 사랑으로 피어나다. 글벗이 있음을 확인하고, 정성을 들여 그것을 바라봐 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보인다.

그 순간 글벗 사랑이 꽃처럼 피어나고, 글벗 사랑 속으로 풍덩 빠져서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순간,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는 순간, 눈에 들지 않았던 것이 환하게 들어차는 순간이 있다. 만남의 경이로움이다.

2022년 10월에 성의순

■ 축하의 글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는 기쁨

성호경(우계문화재단 이사장)

성의순 선생의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성의순 선생은 우계문화재단의 교육 이사로 활동하면서,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평생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열정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다. 지금까지 1만 시간 이상의 교육자원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 성의순 작가를 존경하고 응원한다.

이번에 출간하는 이 책은 우계 성혼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학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교육자료를 모아서 기록으로 남긴 자료다. 그 인성교육은 물론이고 예절교육, 나눔의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저술하거나 자료를 모은 소중한 책이다. 널리 알려져서 소중하게 쓰이길 소망한다.

우계 성혼(成渾, 1535년 6월 25일 ~ 1598년 6월 6일)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작가이자 시인이다. 아울러 성리학자, 철학자, 정치인으로 그의 명성은 높다. 휴암 백인걸 문하에서 배우다가, 율곡 이이(李珣) 선생을 만나 평생 친구로 지냈다. 여러 번 학행으로 천거되었으나 거듭 사퇴하다가 율

곡 이이의 권고로 출사했고 의정부 좌찬성에 이르렀다. 문묘에 종사된 우리나라 18현 중의 한 분이시다.

선조 때 여러 관직에 제수되고도 나가지 않았으나, 이이의 거듭된 추천으로 출사했지만, 동인들로부터 서인으로 지목되어 공격을 받기도 했다. 서인의 영수 역할을 할 때 동인과 서인의 갈등을 중재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정여립의 난과 기축옥사 당시 최영경, 정개청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역으로 동인들로부터 그가 최영경, 정개청 등을 죽게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다.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세자인 광해군의 부름을 받아 그를 돕고 평양에 올라가 선조를 만났으나, 왜란 초 선조가 피난할 때 행차하는 길목에 살면서도 호종하지 않았다고 음해하여 동인 이홍로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이후 죽은 후에까지 동인들과 남인들의 공격을 받았다.

그의 학문은 이황의 이기이원론과 이이의 ‘이기일원론’의 절충을 취하였다. 학문 연구를 하다 생애 후반에는 관직에 투신하여 찬성(讚成)에 이르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해 세자를 모시었고, 1594년 좌참찬으로 있을 때 영의정 유성룡(柳成龍)과 함께 주화론을 주장한 일이 문제 되어 매국노로 낙인찍혀 정계에서 은퇴하게 된다. 율곡 이이, 송강 정철, 구봉 송익필과 친분이 깊었다. 조현, 김덕령, 정철, 윤항, 황신, 이귀, 김자점 등이 그의 문하생이었다.

끝으로 우계 성혼 선생의 시조 작품을 감상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말 없는 청산이요 태없는 유수로다
값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병 없는 이내 몸도 분별없이 늙으리라.

— 우계 성혼 선생의 시조

■ 축시

초당 한 간 세운 뜻은

시인 성명순

어찌 금준미주였으랴
송강이 성권농을 찾아 재를 넘은 까닭은
오류선생의 갈건녹주를 본받은
박주산채의 부름이었으리라

일찍이 공명부귀에는 뜻이 없어
청산유수와 청풍명월에서
세상의 혼탁함 애써 분별하지 아니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함으로 가르쳤나니

높은 뜻 다시 기려
초당 한 간 세우고 현호로 삼가 몇 자 적으니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가슴에 새긴 글자가 또렷하고 향기롭다

온고지신의 가르침은
강산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배움의 바른길
우계의 가르침 또박또박 받아 읽는 소리
초당 너머 온 들녘에 가득하다

초당 한 간 세운 뜻은

성명순

어찌 금준미주였으랴
송강이 성권농을 찾아 재를 넘은 까닭은
오류선생의 갈건녹주를 본받은
박주산채의 부름이었으리라

일찍이 공명 부귀에는 뜻이 없어
청산유수와 청풍명월에서
세상의 혼탁함 애써 분별하지 아니하고
성인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함으로 가르쳤나니

높은 뜻 다시 기려
초당 한 간 세우고 현호로 삼가 몇 자 적으니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가슴에 새긴 글자가 또렷하고 향기롭다

온고지신의 가르침은
강산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배움의 바른길
우계의 가르침 또박또박 받아 읽는 소리
초당 너머 온 들녘에 가득하다

|| 차례 ||

■ 작가의 말

책을 내면서	3
--------------	---

■ 축하의 글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는 기쁨 / 성호경(우계문화재단 이사장)	6
--	---

■ 축 시

초당 한 간 세운 뜻은 / 시인 성명순	9
-----------------------------	---

제1부 우계 성혼 관련 사진 자료

1. 우계 성혼 영정	17
2. 우계학보 창간호	18
3. 우계 선생 사당과 묘역	19
4. 우계 사당 상량문	20
5. 우계 성혼 시조	21
6. 영조대왕 치제문	22
7. 우계문화재단 설립 경위	23
8. 우계 선생 묘역 경기도 지방문화재 지정	25
9. 성금 기탁자 명단	26
10. 우계 선생 외국 서적 소개 자료	27
11. 우계 성혼 평전	32

12. 우계 성혼 묘소와 우계 기념관	33
13. 파산서원과 사당	34
14. 우계 서실 유허비와 우계집	35
15. 우계 성혼 시조 작품 - 석장군	36
16. 우계 성혼 선생 시 평설	37
17. 자연 경물을 읊은 시	38
18. 도학의 소회를 읊은 시	39
19. 계상춘일(溪上春日) 영역시	40
20. 술회(述懷)한 시	41
21. 소파우제(梳罷偶題) 읊은 시	42
22. 우계학보 제2호	43
23. 우계학보 제3호	44
24. 청렴교육자료	45
25. 청렴한 큰 선비	51
26. 성혼선생 가계도	52

제2부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

1. 우계 성혼 만화책이 나오다	55
2. 우계 성혼 독서토론 한마당(광탄중)	58
3. 우계 성혼의 삶과 철학 인문학 아카데미	64
4. 우계 성혼을 말하다	65
5. 우계 성혼과 파산서원	67
6. 우계 기념관	68
7. 우계 서실 유허비	70
8. 우계 성혼의 파산서원 문화유산 답사	73
9. 우계 학과를 이루다	74
10. 말 없는 청산이오	75

11. 계상춘일	76
12. 월야독음	77
13. 소파우제	78
14. 석장군	79
15. 우계 시조 작품이 지닌 구조와 그 아름다움	80
16. 우계 성혼을 아시나요	82
17. 우계 성혼 독서토론 퀴즈문제 해설	88
18. 우계 성혼 관직 제수 현황	92
19. 벼슬과 부귀를 멀리한 참 선비	98
20. 성의순 가계도	100
21. 성의순 약력	102
22. 문간공이란	103
23. 제7회 우계 성혼 춘향제 봉행	104
24. 2020 파주 인물 축제 프로그램 신청서	116
25. 제1회 우계문화제 사업 계획서	117
26. 독서토론편도 양성과정 안내	122

제3부 놀아도 성균관에서 놀아라

1. 표창장- 성균관 관장 표창	124
2. 공부자탄강일 헌작례 대성위사준 망기	124
3. 교육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성의순	126
4. 2021 파주 교육 자원 봉사 활동 계획서	130
5. 십이지의 노래	139
6. 단동십훈	147
7.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다	148
8. 한국전통문화연구가 성의순	153
9. 창작 오페라 ‘선비’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	176
10. 제3대 사람책독서토론편도	178

11. 청송당 터	184
12. 우계문화 창간호	186
13. 교육공로상에 성의순 이사 수상	187
14. 교육감사패 수상	188
15. 성의순 우계문화재단교육이사 인터뷰	189
16. 국무총리 표창 수상	195
17. 시민수집가 이야기	198
18. 성의순 선생 성균관 부관장 임명	200
19. 성의순 어록	209
20. 백학동학규	236
21. 제20회 대한민국서당문화한마당 강경대회	237
22. 기금증서	238
23. 전래경기 민요 노랫가락	239
24. 2018 서울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선정	247
25. 성균관 문묘해설사 자격증서	249
26. 성균관 문묘해설사 자원봉사 시간 부여	251
27. 공로상 공적서 - 2022 여성유도회	255
28. 성균관 문묘 유네스토 세계문화유산 등재요망	257
29. 교육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성의순	267
30. 2021년 교육자원봉사 활용학교 수요조사	269
31. 성균관 진사 임명을 받다	271
32.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받다	275

■ 서평

열정과 헌신이 낳은 뜨거운 우계 사랑 / 최봉희 · 277

제1부

우계 성혼 관련

사진 자료



牛溪學報

창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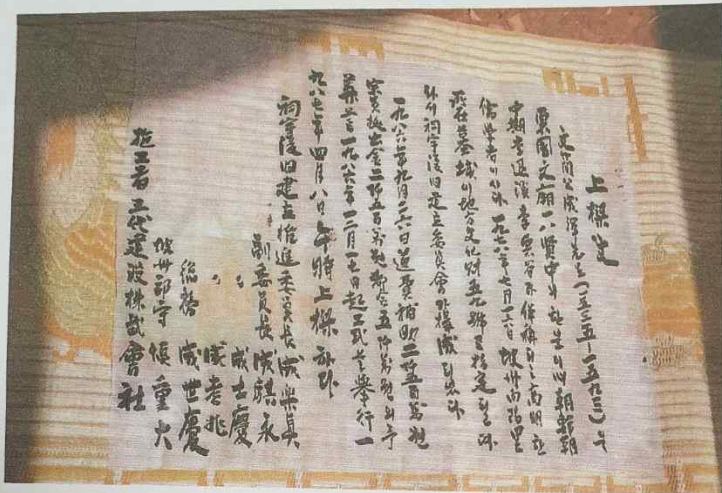
財團 牛溪文化財團發行
法人



우계선생의 사당과 묘역. 이 묘역은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 59호로 지정 되었다.



우계선생의 절사 (음.3월3일). 매년 3월에 거행되는 절사에는 많은 후손들이 참여한다.



우계사당 건립때 상량문. (1967년 4월 8일)



20_ 고결한 선비 우계 성훈을 만나다

말없는 청산이요 태없는 유수로다
값없는 청풍이요 인자없는 명월이라
이중에 병없는 이 몸이 분별없이 늙으리라.

牛溪 成潭선생(1535-1598)의 자는 浩原, 호는 牛溪 또는 黠庵이다. 열일곱살 때 初試에 들었으나 병으로 벼슬을 포기하고 李栗谷과 성리학을 토론했으며 學行으로 현감, 주부 등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뒤에 左參贊을 역임하고 文廟에 配享된 우리나라 끝지의 성리학자이다.

우계 학보 창간호 19쪽

19

英祖大王的 致祭文

영조44년(1767년) 5월10일, 文簡公 成渾선생의 사당을 서울 壯洞의 옛택으로 다시 모실 때 祭文을 내린 「御製 20句」로 이 글은 승지 成天柱, 金龜柱, 姜必履 등이 건의하여 임금이 직접 지었다. 이러한 禮遇는 극히 드문 일로 成門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원명은 文簡公祠宇還奉 壯洞舊宅 上致祭文(英祖御製 20句)

아! 훌륭한 鄉은	嗚呼惟鄉	더더욱 기이한 것은	其尤異者
昌寧의 巨族이었네,	昌寧盛族	두 분의 祠宇가 咫尺사이라오.	同來咫尺
國初(朝鮮初期)로부터	粵自國初	옛날의 두 분 同志가	昔年同志
世德이 이미 드러났네.	已著世德	지금에 우연히 서로 합하였네.	儼然今合
聽松先生의 아드님으로	聽松之子	내 비록 成心이 不足하나	予雖誠淺
그 學問을 傳受하였고	淵源其學	尊慕하는 마음 獨값았네.	尊慕其一
早年에 聖學에 뜻을 두어	早年立志	文成公의 「聖學輯要」 特題하여	特題輯要
科擧에 오름을 원하지 않았네.	不肯科中	栗谷의 가르침 拜誦하였는데,	拜誦栗谷
聖祖(先王)의 禮遇가	聖朝禮遇	이제 이 소식 들으니,	今聞此報
文成公(栗谷)과 똑같았네.	文成同列	아! 속히 모셔오기 바라네,	呼嗟望入
마음은 오직 公平하였고	一心公平	幽明이 어찌 다르겠는가	幽明豈遠
操行은 크게 薦賞하였네.	操履敦確	德儀를 보는데 하네.	德儀若觀
聖賢의 가르침을 欽誦하여	欽誦聖教	내 어찌 날짜를 넘기겠는가.	其何踰日
平素에 늘 歎服하였네.	尋常歎服	祭文을 즉시 絜되었네	其文即絜
내 마음 이와 같으나	予心若此	有司가 祭錢을 陳設하여	有司設錢
地下에 계신 鄉을 만날 길 없네.	九原難作	命을 받고 대신 술잔을 올리네	承宣替酌
文成公의 祠宇는	文成祠宇	百年이 지난 지금	百年之下
이미 서울에 모셔졌는데,	先入京洛	鄉을 그리워함 더욱 간절하네	思鄉柔切
그후 5년만에	豈意五年	曠世에 感懷가 인령이니	曠世興感
鄉의 祠宇도 서울에 모셔질줄이야.	聞鄉又入	英靈은 降臨하사 恊享하소서	庶幾故格

우리재단은 설립되지 얼마 안되었으나 지금까지 목적사업을 위해서 크게 활약하였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文簡公 牛溪先生 顯彰事業

1984년12월9일 思齋公派 宗회에서 우계 선조 현장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한 후 1985년12월20일 사숙공과 종회사무소를 서울특별시 화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1986년1월4일 사숙공과 종회에서 成樂眞 成麒永 成世慶 成士慶 成善兆등, 5명이 발기하여 위원회를 재편성하고 회칙을 개정하여 사회각계 명망인사 21명과 成氏門中 人士 50명을 고문으로 하는 140명을 위원으로 추대하였으며 임원으로 회장 成樂眞 부회장 成麒永의 13명을 설의위원으로 成致慶 외4명을, 감사로 成大茲 成俊慶을, 총무로 成世慶을 위촉하고 稱字建立 題旨文 우계 선조의 생애개요문 사업계획내용 및 기초설계도와 영조대왕 어제 치제문 등을 합편하여 건립추진계획서를 작성 배부하여 성금을 모금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1986년9월25일 京畿道에 총공사비 5천만 원을 책정받았으나 宗員 부담금 2천5백만원을 과주군청에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昌寧成氏大宗中에서 1천만원을 위시하여 각계 종원들께서 성금을 내주어서 1986년10월17일에 과주군청에 납부하였고 1차공사는 공개입찰한 결과 三代建設(株)에서 수주 받아 공사에 착공하여 1987년6월1일 낙성식을 성대하게 거행하였고 1987년3월 2차 공사로 담장·3분홍살문 및 사당의 단청을 완공하였음, 1989년4월29일 사당에 위패를 봉안하였으며 3차공사로 비각건립과 조정공사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중임.

제실및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思齋公, 勉松公, 牛溪公齋室
 대지 100평, 건평 24평(韓式기와집), 총공사비 1,590만원
 준공일 1986년2월17일

재단법인 牛溪文化財團 설립 경위

재단법인 우계문화재단의 설립은 1986년 1월 28일 成樂眞 成麒永 成世慶 成善兆등 4명이 牛溪文化財團 설립을 발의하고 文簡公派 宗會를 소집하여 의결함.
 동년 2월16일 宗회에서 昌寧 成氏 文簡公派 宗中, 창녕성씨 思齋公派 宗중 재산을 통합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발기인으로 成樂眞 成麒永 成世慶 成士慶 成樂慶 成善兆 成善興 7명을 선임하여 동년 5월24일 재단 설립 예산안을 통과하고 8월 14일 昌寧 成氏門中에서 成尙永 成宗鏞 成鎰旭 成百鎔 成樂承 成炳文 文簡公派 宗中에서 成樂正 成敏慶 成豪慶을 발기인으로 증인 선임하여 10월 5일에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통과시키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였다.
 理事(4년 임기) 成樂眞 成麒永 成世慶 成士慶 成善兆 6명
 理事(2년 임기) 成泰永 成致慶 成秀慶 成豪慶 成興慶 5명
 監事 成善興 成大茲
 理事長 成樂眞
 副理事長 成麒永 成善兆
 常任理事 成世慶

재단의 활동상황

- 1986.10.22 재단구성에 관한 권한일체를 이사장에게 위임
- 11. 1.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문화공보부에 제출 하였으나 사업내용의 미비로 반려.
- 12.29. 정관 및 사업계획 등을 보완하여 제제출
- 1987. 3. 4. 종회사무소를 과주군 문산읍 향암리로 이전
- 6.11. 文簡公 牛溪 成氏선생 사당 준공식 거행

재단소식

- 7.11. 문화공보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음(제566호)
- 8.14. 파주등기소에 재단법인 牛溪文化財團등기를 마침(제15622-0000294호)고문으로 成樂浩 成樂昌 成尙永 成鎔旭 成樂承 등 5명을 추대
- 10.29. 종중명의를 전담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재단으로 소유권이전 불가토고를 받음
- 10.30.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코자 成泰瓖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함
1988. 2.24.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2.26. 파주등기소에 판결소송 결정문에 의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3. 1. 종중위도를 법정판결에 의해 牛溪文化財團에 귀속되었으므로 주무관서에 통보함
5. 7. 成牛溪思想研究論叢을 발간하고 제1회 牛溪學術大會를 개최(타워호텔)
- 5.23. 종외 연락사무소를 부천시 중구 원종동에 설치함
1969. 4.25. 파주세무서에 공익법인 牛溪文化財團 설립을 신고
5. 2. 事業者登錄證(128-82-02414호)받음
- 9.14.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문화35106-3708)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받음
1989. 6.24.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을 처분하여 서울 시내에 4.5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의
1989. 7.11. 감사 상호경, 성식경 유임 성수경, 성찬경, 성기덕 이사에 취임
- 10.14. 기본 재산처분허가를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신청
- 11.27. 파주 향양리 산 6-1번지 임야 1부를 매도하기로 계약
- 12.26. 동번지 분할 신청
1990. 1.20. 이사회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115-17번지 대지 127.6평을 평당 3백 40만원에 매수키로 결의
- 1.25. 상기 대지를 3천3백8십만원에 계약 체결함.
3. 8. 지하1층 지상4층을 신축키로 양천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
3. 21. 향양리 산 6-1 임야 국지분 이전 등기 신청
- 3.29. 양천 구청장으로 부터 건축허가 취득함
4. 3.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기본 재산처분 허가를 취득함(생문 35101-3550)
- 4.15.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298평(평당 9십5만원)을 2억8천3백1십만원에 김경중씨와 계약 체결함(지하8평 8층 공사비 8백3십6만원 추가됨)
4. 4. 향양리 산 6-1 임야 5,330평은 국가저분 등기 및 공유지분 해제등기 완료
- 내역 (1) 향양리 산 6-1 임야 31,890평중 국방부에서 4,419평을 징발하여 사용하였으나 측량결과 점유면적 5,330평이였음, 동부대 내부는 측량이 불가함으로 911평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하고 분할등기하여 공유지분 해제 하였음.
- (2) 6-3번지 임야 17,534평은 부경중 묘소 서편 성백적 부친 묘소를 경계하여 분할 재단소유로함
- (3) 6-1에서 4, 5, 6, 7, 8, 9로 9,028평을 분할하여 그중 성민영씨에게 400평, 성인경씨에게 100평을 기증하고, 8,528평을 평당 2천5천원씩 매도 처분하였으나 1천1백95만원 미수중임.
1990. 4.20. 구입 대지 잔금 전액 지불함.
- 4.24. 신축 건물 기공식 거행
- 5.11. 이사회에서 5층으로 1층 더 증축하여 재단 사무실과 회의실 및 관리인 주택으로 사용하기로 결의
- 5.23. 기본재산(토지)매수인 일부변경허가(생문35105-5855)문화부장관
- 6.23. 증축허가를 양천구청장에게 신청
- 6.27. 신축건물 상량식 거행
- 7.10. 증축허가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취득
- 7.15. 57평(평당 120만원 총액 6천8백4십만원에)증축키로 하고 합성공사 김경중씨와 계약 체결함. 연면적 364.8평 공사비 3억5천9백8십6만원중, 지불액 2억4천만원 미불액 1억1천9백8십6만원임.
- 7.26. 기본재산 전환허가(생문35106-8869)문화부장관
- 7.30. 신축 및 증축허가를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취득
8. 6. 신월동 대지 취득등기 완료
- 8.20. 준공
- 9.22. 준공식 거행

재단소식

지 번	지 목	지 적	평 단가	가계약 금액	가계약자 성 명	현관리자 성 명
과주읍 향양리 산 8-8	임 야	416m ² (126평)	15,000	1,890,000	한 성 기	한 성 기
계		187,742m ² 중발 198m ² 계 187,544m ² 56,792평 중발 60평 56,732평				
	계			504,550,000		

우계선생 묘역 경기도 지방문화재 지정

경기도 과주군 주내면 향양리에 있는 우계 성훈 선생의 묘역이 1981년 7월 16일 경기도 지방 문화재 제 59호로 지정되었다.

이는 문화재 보호법 제54조 제2항 및 경기도 지방문화재 보호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지방 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된 것으로 동법 제11조 및 동시행령 규칙 제8조에 의하여 봉토하단에서 15미터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묘소 입구에 다음과 같은 안내판을 세운다.

안내판 문안

성훈 선생묘(成潭先生墓)

지방 기념물 제59호

성훈(1535-1598) 선생은 조선왕조 선조때의 학자로서 자는 호원(浩源), 호는 우계(牛溪) 또는 묵암(默庵),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파평(坡平) 우계(牛溪) 옆에 살았으므로 학자들이 우계 선생이라 불렀는데 일찌기 휴암(休庵) 백인길(白仁傑) 문하에서 수학하고 17세때 감시(監試) 초시에 합격하였으나 신병으로 복시를 못치르자 과거를 단념하였다. 젊어서 이미 덕망과 학문이 뛰어났고 율곡 이이(栗谷 李珥)와 교분이 두터웠으나 학설을 반박하여 율학계에 큰 파도가 되었다. 그 때문에 율곡의 문인인 조현, 한교, 황신, 이귀, 정업 등이 성훈의 문인이 되었다.

한 때 이조참의를 거쳐 이조참판이 되었고 임진왜란 때에는 우참찬(右參贊)을 거쳐 좌참찬에 이르렀다.

후에 좌의정(左議政)에 추증되었다.

우계문화재단 법인 설립

우계문화재단이 1987년 7월 11일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허가조건은 설립허가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게 되어 있으며 정관의 준수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문화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준수토록 되어있으므로 牛溪선생의 道學思想과 업적을 기리고 그 전파사업에 더욱 힘써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개 별	성 명	납 부 액	비 고
정혜공	창현	40,000	의정부
정혜공	기철	25,000	의정부
정혜공	기석	10,000	의정부
정혜공	기석	25,000	부 천
정혜공	낙진	25,000	미아리
정혜공	석경	40,000	연화동
정혜공	훈경	40,000	신월동
정혜공	기찬	10,000	신경동
정혜공	순결	20,000	동대문구 휘경동
정혜공	노영	45,000	서대문구 북가좌동
정혜공	홍영	35,000	서대문구 북가좌동
정혜공	태영	30,000	서대문구 북가좌동
정혜공	낙훈	25,000	서대문구 북가좌동
정혜공	낙동	15,000	서대문구 북가좌동
정혜공	낙준	15,000	서대문구 북가좌동
정혜공	한	100,000	서대문구 북가좌동
정혜공	기택	40,000	예산군 예산읍
정혜공	윤경	20,000	생문동
정혜공	각경	45,000	종로
정혜공	훈경	35,000	신월동
정혜공	기선	30,000	아산 온양
정혜공	기훈	20,000	수유리
정혜공	성기문	65,000	피주군파리
정혜공	기홍	20,000	북가좌동
합봉공	상태영	100,000	충남 서산 안면읍
의암공	낙관	10,000	
의암공	낙산	15,000	
의암공	낙천	15,000	
의암공	낙권	10,000	
의암공	낙훈	10,000	
의암공	민경	10,000	
의암공	민영	30,000	
의암공	간영	25,000	영등포 도림
의암공	의영	40,000	영등포 도림
의암공	낙련	10,000	피주
의암공	낙천	40,000	피주 두포
의암공	창경	10,000	피주 두포
의암공	희영	10,000	피주 두포
의암공	성준경	45,000	문산 국민은행

개 별	성 명	납 부 액	비 고
부정공	명단무	200,000	
	성희경	15,000	예산(정혜공)
	기준	65,000	예산(정혜공)
	태경	45,000	군산(진부공)
	일경	10,000	군산(진부공)
	여경	10,000	군산(진부공)
	호경	35,000	신창(진부공)
	낙한	15,000	서울(진부공)
	낙중	5,000	서울(진부공)
	총 계	4,445,000	

성금내신분

성태경	김 해	50,000
성기덕	월계동	50,000
성인환	춘천시	10,000
성기상	미아동	15,000
창녕성씨용담중증		20,000
곽시용	피주향양리	20,000
양기덕	공주이천면	30,000
상군관		60,000
노강 서원		130,000
창강 서원		100,000
파산 서원		20,000
부어 향교		30,000
공주 향교		20,000
피주 향교		10,000
강성 향교		10,000
적성 향교		10,000
보성 향교		10,000
피주 읍장		10,000
광산김씨파 윤공파 중증		400,000
해주오씨 추탄공파 중증		100,000
청송심씨 대종회		30,000
문산종합 고등학교		10,000
법원 국민학교		10,000
삼대전설 주식회사		250,000
향양리 교회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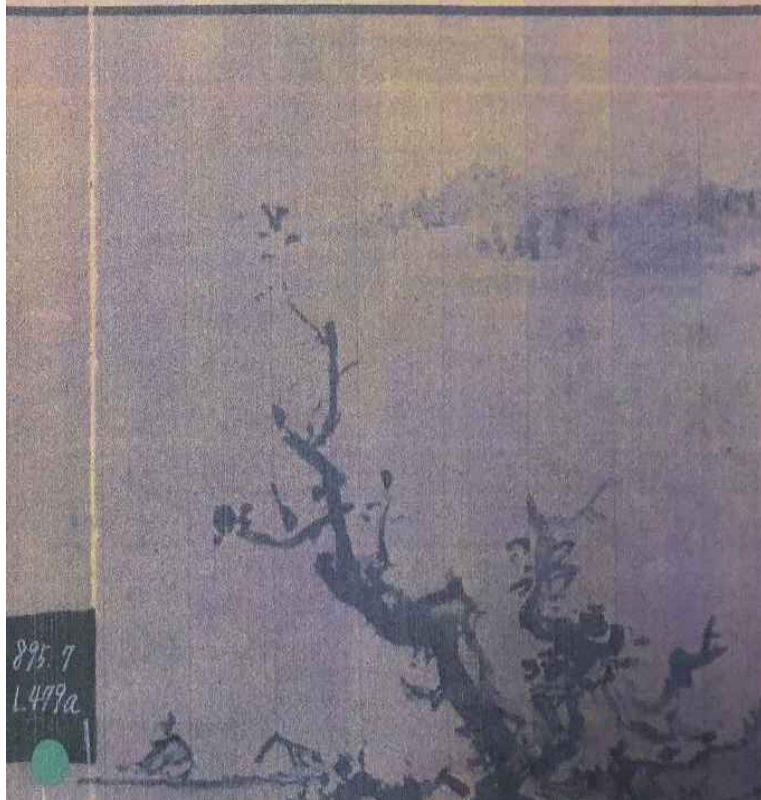
우계학보 창간호42쪽 성금 내신 분 중 성기상 미아동 15,000 은 우계문화재단
성익순 교육이사 백부님이시고, 성기덕 월계동 50,000 은 숙부님 이세요.

LEE /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E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E

*From Early Times to
the Nineteenth Century*

COMPILED AND EDITED BY **PETER H. LEE**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e
From Early Times to the Nineteenth Century
COMPILED AND EDITED BY PETER H. LEE

This first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e offers a comprehensive sampling of the major genres of poetry and prose written from about A.D. 600 to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reader will find in it a dazzling array of myths and legends, essays and biographies, love poems and Zen poems, satirical tales and tales of wonder, stories of adventure and of heroism, as well as quieter works treating the farmer's works and days and the pleasures and sorrows of the simple life. Here students of Asian literature will encounter echoes and reminiscences of the classical literature of China, but distinguished throughout by a liveliness and pungency of expression that seem characteristically Korean.

PETER H. LEE, professor of Korean and comparative literature at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i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the Translation Center and a recent Guggenheim Fellow.

Also edited by Peter H. Lee—

The Silence of Love: Twentieth-Century Korean Poetry
Flowers of Fire: Twentieth-Century Korean Stories

Cover art: "A Fisherman" by Yi Chong (1578-1607), courtesy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SBN 0-8248-0756-1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Honolulu, Hawaii 96822

Kwŏn Ho-mun (1532-1587)

Nature makes clear the windy air,
And bright the round moon.
In the bamboo garden, on the
Pine fence, not a speck of dust.
How fresh and fervent my life
With a long lute and piled scrolls!

Sŏng Hon (1535-1598)

The mountain is silent,
The water without form.
A clear breeze has no price,
The bright moon no lover.
Here, after their fashion,
I will grow old in peace.

Chŏng Ch'öl (1537-1594)

Snow has fallen on the pine-woods,
and every bough has blossomed.
I should like to pluck a branch
and send it to where my lord is.
After he has looked at it,
what matter if the snow-flowers melt?

Great Master Chōngwan (1533–1609)

AT THE MOMENT OF MY DEATH

The three-foot-long sword that can split a feather
I've hidden in the Great Dipper.
In the great void no trace of clouds,
Now you see its sharp point!

Sōng Hon (1535–15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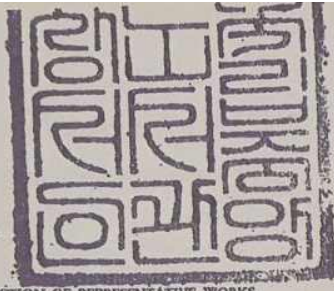
BY CHANCE

Forty years I've lived in the green hills;
Who will pick a fight with me?
I sit alone in a hut with the spring breeze—
How idle laughing flowers and dozing willows!

Yi I (1536–1584)

IN THE MOUNTAIN

Picking herbs I lost the trail,
Autumn leaves bury a thousand peaks.
A monk returns with a bucket of water,
At the grove's end steams the boiling tea.



UNESCO COLLECTION OF REPRESENTATIVE WORKS

In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is book has been accepted in the Translations Collection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Copyright © 1981 by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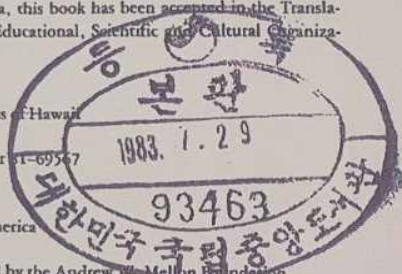
All Rights Reserved

Library of Congress Catalog Card Number 81-69567

ISBN 0-8248-0739-1 (cl.)

ISBN 0-8248-0756-1 (pa.)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ublication of this book has been assisted by the Andrew W. Mellon Foundation.

Prose essays by Yi Kyu-bo and Yi Che-hyön, translated by Uchang Kim, "The Tale of Hong Kil-tong," translated by Marshall R. Pihl, and "The Lay of King Tongmyöng," translated by Richard Rutt, are from *Korea Journal*. Reprinted by permission of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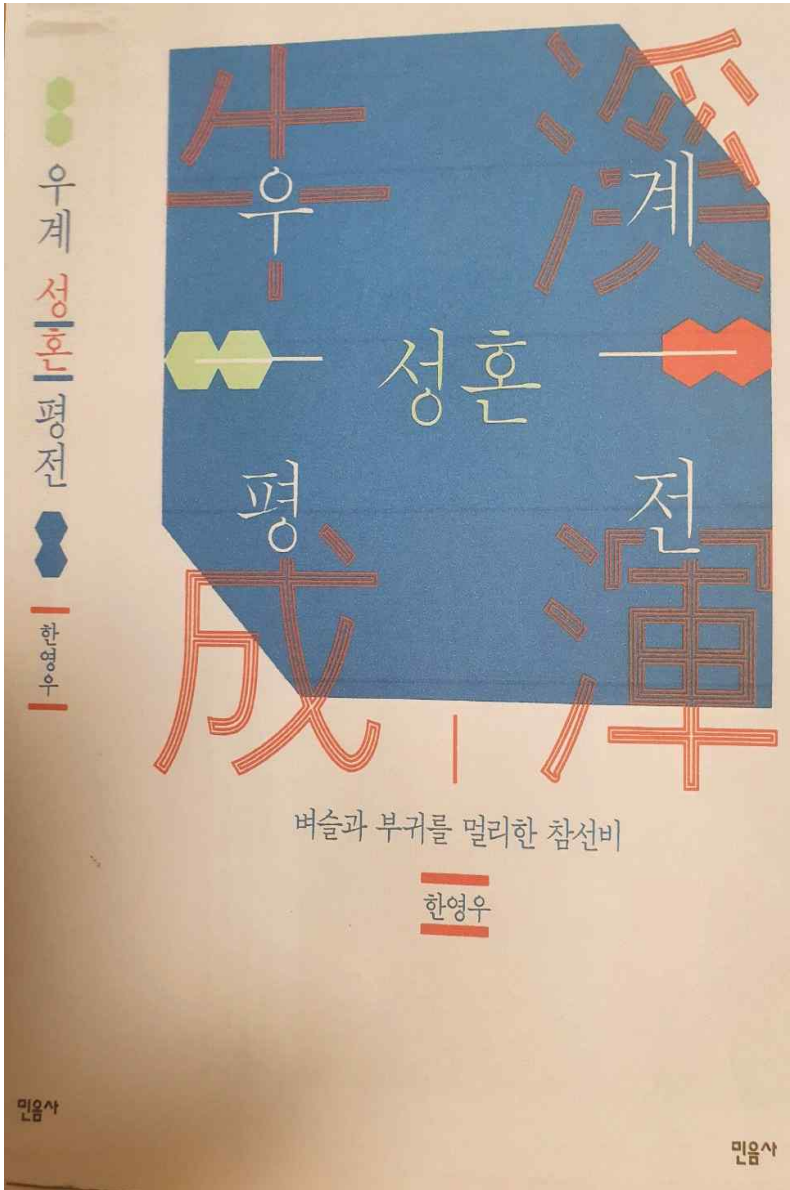
Lives of Eminent Korean Monks: Haedong Kosŭng Chön, translated by Peter H. Lee. Copyright © 1969 by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Excerpts reprinted by permission of Harvard University Press.

Poems from Korea: A Historical Anthology, edited and translated by Peter H. Lee. Copyright © 1964, 1974 by UNESCO. Selections reprinted by permission of George Allen and Unwin,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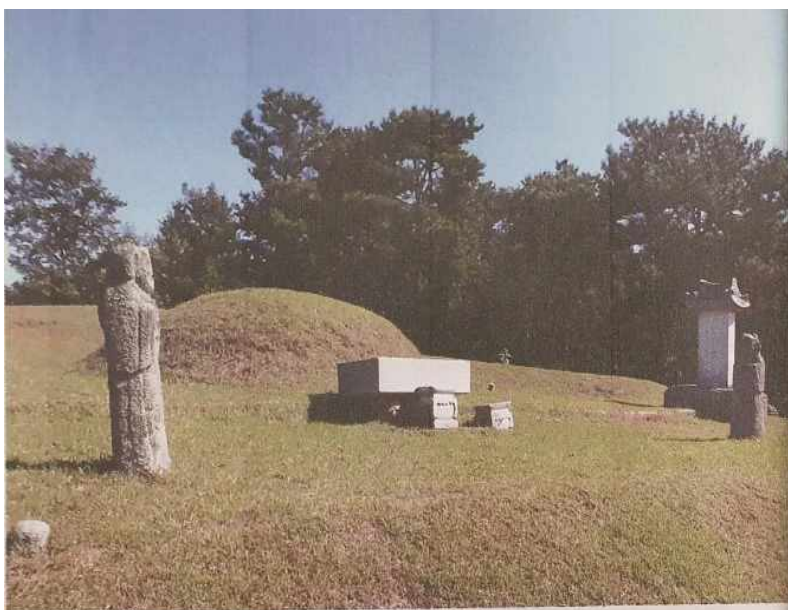
Songs of Flying Dragons: A Critical Reading by Peter H. Lee. Copyright © 1975 by the Harvard-Yenching Institute. Excerpts reprinted by permission of Harvard University Press.

The Bamboo Grove: An Introduction to Sijo by Richard Rutt. Copyright © 1971 by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elections reprinted by permission o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Virtuous Women: Three Classic Korean Novels, translated by Richard Rutt and Kim Chong-un. Copyright © 1974 by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Selections reprinted by permission of the publishers.



32_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성훈 묘소

1598년(선조 31년) 6월 6일, 성훈은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성훈의 장례는 3개월 잠을 치러 8월 19일에 파주 향양리에 있는 아버지 성수침 묘 뒤에 동향으로 안장되었다.



우계기념관

2011년, 파주 향양리에 있는 성훈 묘역에 세워졌다. 현재 성훈 묘역에는 우계기념관 외에 성훈 사당, 성수침의 묘간, 성훈의 묘비, 성훈의 신도비 등이 함께 남아 있다.



파산서원과 사당

1568년(선조 원년) 백인걸과 이어, 그리고 좌주 일대 유생들이 발의하여 파산서원을 건립하고, 성수침의 위패를 모셔 제사를 지냈다. 1628년(인조 6년)에 성혼의 위패를 추가하였고, 1650년(효종 원년)에는 사액서원이 되었다. 현재는 위패를 모신 사묘(祀廟)만 남아 있으며,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111호로 지정되어 있다. 사묘에는 성수침을 주벽(主壁)으로 하고 좌우에 성수중, 백인걸, 성혼을 배향하고 있으며, 매년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낸다.



우계서실 유허비

1570년(선조 3년), 36세 때 성혼은 고향 파주의 본가 동편에 3칸 남짓한 기와집을 세워 우계서실이
라 이름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는 우계서실의 학도들이 지켜야 할 학규인 「서실의(書室儀)」를 만
들었다. 이는 율곡 이이가 세운 은병정사와 그 학규보다 7~8년 앞선 것이다. 현재 파산서원 경내에
옛터가 있다.



『우계집』

『우계집』은 1621년(광해군 13년)에 초간되었으며, 1809년(순조 9년)에 후손 성금주(成君
柱)에 의해 간행되었다. 원집 6권과 속집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詩)·장소(章疏)·간독(簡
牘)·잡지·연보가 수록되어 있다.



비주 용미리에 있는 석장군(石將軍, 일명 쌍미륵)

1903년(선조 21년) 어느 날, 53세의 성혼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있는 석장군을 보고 시를 읊었다.

푸른 절벽이 석장군으로 변하니
 만고의 것 사라지고 너만 홀로 남았구나
 부귀위라 너는 티끌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
 산머리 해 질 녘 한가로운 구름과 짝하고 있구나

蒼崖化出石將軍
 萬古鎖沈獨有君
 却淡無心塵世事
 山頭斜日伴閑雲

牛溪 成渾先生 詩 評說

양 훈 식



4. 자연경물을 읊은 시

〈月夜獨吟〉

滿山松月入窓深	온 산에 가득한 송라(松蘿)의 달 깊이 창문에 들어오니
清夜欣然會此心	시원한 밤 상쾌하여 이 마음 알아주는 듯
更有飛泉鳴遠壑	다시 폭포 소리 먼 골짜기에서 울려오니
杳如風雨在深林	마치 깊은 숲 속에서 비바람 몰아치는 듯하여라

우계 시에 등장하는 시어 '松蘿'는 女蘿덩굴인데 소나무에 기생한다. 여기서 轉하여 '은자가 머무는 산림'을 말할 때 쓴다. 따라서 첫 구에서 은자가 머무는 공간에 환한 달빛이 들어온다는 의미이다. 이에 둘 째 구에서 邵康節의 〈清夜吟〉에서 도를 깨달은 이가 느끼는 청신함을 얻는다. 여기서 달과 자신은 서로를 알아주는 지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내 폭포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웅장하다. 이는 자신의 깨달음에 화답하는 자연의 움직임이 조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학자가 자연 속에서 느끼는 자득의 묘를 은근히 보여준 시다.

〈自京日暮 冒雪還坡山〉

雲暗江天黑	구름이 짙으니 강 하늘 캄캄하고
風多暮雪深	바람이 많으니 저녁 눈이 수북하네
遙知衡宇在	멀리서 헤아리니 오두막집에
歸遲人疎林	돌아가는 길 숲 속에 있으리라

6. 도학자의 소회를 담은 시

〈溪上春日〉

五十年來臥碧山	오십 년 동안 푸른 산 아래 누웠는데
是非何事到人間	어인 일로 시비가 인간에 이르는가
小堂無限春風地	작은 집에 봄바람 무한히 불어오니
花笑柳眠閑又閑	꽃은 피고 버들은 조는 듯 한가롭고 또 한가롭네

위 시는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E』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는 한시와 시조가 수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전하는 성혼의 시조와 한시는 그 전체의 편수가 많지 않은데도 각각 1수씩 실려 있는 것이다.

"The mountain is silent, The water without form,
A clear breeze has no price, The bright moon no lover,
Here, after their fashion, I will grow old in peace(Sijo,
I p.156)"

위 英譯 시조는

"말 업슨 靑山이요, 懸 업슨 流水 | 로다,
갑 업슨 淸風이요, 님 업슨 明月이라.
이 中에 病 업슨 이 몸이 分別 업시 늙으리라." (『花源樂譜』)

로 해석된다.

"BY CHANCE -

Forty years I' ve lived in the green hills;

Who will pick a fight with me?

I sit alone in a hut with the spring breeze-

How idle laughing flowers and dozing willows!"

(Lee Peter H,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E*,
University of Hawaii, 1982, p.156)

이 영역시는 『우계집』에 〈溪上春日〉이라는 제목으로 전한다. 그 내용은 "오십 년 동안 푸른 산 아래 누웠는데 / 어인 일로 시비가 인간에 이르는가 / 작은 집에 봄바람 무한히 불어오니 / 꽃은 피고 버들은 조는 듯 한가롭고 또 한가롭네(五十年來臥碧山 是非何事到人間 小堂無限春風地 花笑柳眠閑又閑)"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원시와 영역본은 '五十年'이 'Forty years'라고 되어 있어 英譯하는 과정에서 이본을 따랐거나 誤譯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은 성혼의 문학적 성과가 文選을 선별하는 이의 주관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도 가치 있는 작품임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偶吟〉

百病書生守一鄉	병 많은 서생이 한 시골을 지키고 있으니
愧無才學獻吾王	임금께 바칠 만한 재주와 학식 없어 부끄럽네
三徵未逢君臣契	세 번 불러도 군신의 사귄 이루지 못하니
空有葵心戀太陽	부질없이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그리워한다오

병 많은 서생은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 그런데 임금께 바칠만한

身世未應同宋玉 이내 신세 송옥과 같지 않으니
如何慘慄感人心 어이하여 이 쓸쓸한 마음 남들을 감동시킬까

위 시는 가을에 우연히 읊은 것이다. 시간적으로는 밤길을 걸으며 낙엽을 밟으니 지난날의 일들이 생각난다. 전구의 宋玉(B.C. 290~B.C. 222)은 전국시대 楚人이며 屈原의 제자이다. 그는 굴원이 忠諫하다가 추방당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九辯」을 지어 그의 뜻을 밝혔다. 또한 「招魂」등의 楚辭를 지었다. 성혼은 자신의 신세가 굴원을 위해 자신의 뜻을 밝힌 송옥만도 못하다고 자조적인 탄식을 하였다. 끝 구절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방법을 찾는데서 알 수 있다. 벗이 곤란을 겪고 있지만 구원해주지 못한 심사를 낙엽을 통해 흥을 일으켜 감회에 젖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단순히 가을날 저녁에 우연히 읊은 시가 아니다. 작자는 고독한 자신의 마음과 하소연하고 싶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송옥에 비유한 시다.

〈述懷〉

鹽蔬爲飯紙爲衣	거친 쌀로 밥을 짓고 종이로 옷을 지어
白首山中世應微	백수로 산중에 사니 세상 생각 적어지네
賴有窓前書一架	다행히 창문 앞 서가에 책이 가득하니
古人心事願無違	옛사람의 심사와 다르지 않기를 바라노라

기구에서는 청빈한 삶속에서 隱居之樂하는 군자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성혼은 평소 종이옷을 만들어 추위를 막곤 하였다. 이

는 실제 성혼의 실상이다. 승구는 나이가 들어 외물에 관심이 적어지는 나이를 '白首'라 하였다. 보통 지천명이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일에 대한 염려가 사라진다. 세상 생각은 바깥세상의 정치소식을 일컫는다. 그런데 이런 만족을 독서가로서의 삶이 대체한다는 것이다. "지금 한 즐거움은 독서만한 것이 없다.(至樂莫如讀書)"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서가에 가득한 책을 보며 흠족해 한다는 말이다. 군자는 청빈한 삶에 독서인으로서의 삶이 충만해야 진정한 안빈낙도와 은거지락을 누린다. 그래서 고인의 심사와 다르지 않기를 바라며 배움이 넉넉해질 때까지 마음속 義를 모은다. 이 시는 세상외물에 관심 갖지 않고 독서인의 삶 속에서 지락을 누리는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정하는 '定靜'의 풍격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梳籠偶題〉

行年四十九	나이가 어언 마흔아홉이 되니
白髮滿頭生	흰 머리털 온 머리에 생기누나
猶喜吾能老	오히려 잘 늙어감이 기쁘지만
還慙學未成	학문이 이루어지지 못함 부끄러워라
靑山入四座	푸른 산빛은 사방 자리에 들어오고
綠水繞前楹	푸른 물은 앞 기둥을 돌고 흘러가네
聊可安閑地	에오라지 편안하고 한가로운 곳에서
優游養性靈	넉넉히 놀며 성품과 마음 수양하리라

계미년(1583)은 성혼이 49세인 해다. 성혼은 그 나이에 머리를 빋고 우연히 시를 썼다. 수련에서 '행년사십구'는 遯伯玉 고사에서

牛溪學報

제 2 호

財團 牛溪文化財團發行
法人

牛溪學報

제 3 호

財團 牛溪文化財團 發行
法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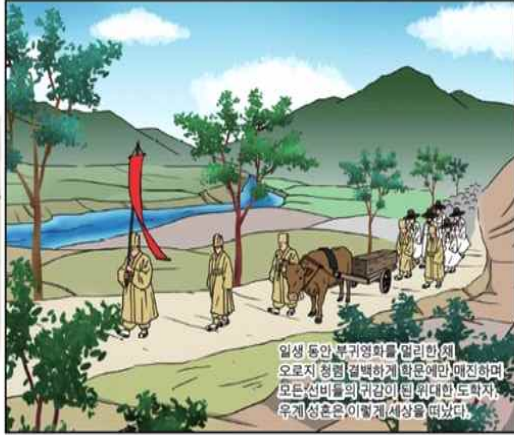
청렴교육자료 - 청렴한 큰 선비 우계 성혼





출처: 만화 우계 성훈





일생 동안 부귀영화를 열리면서
오로지 형편 결백하게 학문에만 매진하며
모든 선비들의 귀감이 된 선대만도학자
우계 성혼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다 봤구나.....

그래도 우계서실
하나만은 남아
천만다행인가...

우계, 사실에 속로 안아 미리 자신의 묘지문을 쓴다.



다른 말은 일체 쓰지 말고,
'참님성훈묘'라고만 써서
자손들이 내가 묻혀 있다는 것만
알게 하면 된다.

관과 상여를 쓰지 말고
최소한으로 간단하게 하라.

삼배옷을 입히고 종이뭉치로 덮하여
소담구치에 넣고
고향에 돌아가 장례하여
나의 뜻을 어기지 말라.

장유재란이 일어났던 1597년(선조 30년)



정월, 파주에는 엄청난 바람이 불었다.



우계의 묘지에 불이 붙어
우계의 바람을 타고 순창에 변희
중이 된 속살까지 모두 태워 버렸다.



집안의 파바로
내면으런
소중민 사체들이
다들 버려버렸다.



우계 성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우계 성혼 선생님은
청렴한 삶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우계문화재단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명한 큰선비

혜록 성의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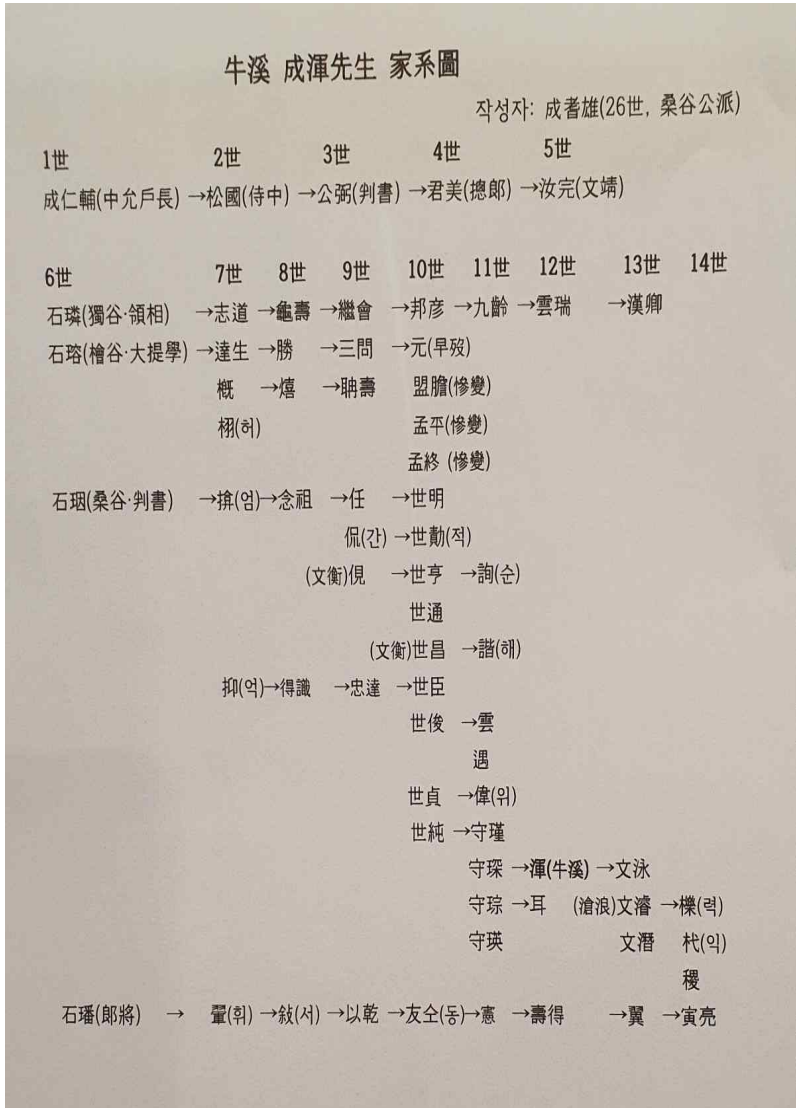
우계 성훈은 평생
병마와 싸우고 종이로
옷을 지어 입으면서도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았다.

왕에겐 직언을 마다하지
않은 참 선비였다.

우계 성훈은 평생 벼슬을
멀리한 지식인이었다.

그는 수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조선 시대의 큰 선비다

성혼 선생님 가계도



제2부

고결한 선비 후계

성훈

‘우계 성혼’ 만화책이 나오다

- 김용헌 기자 mail yongheon716@hanmail.net

한국 정신 문화의 체계를 세운 우계 성혼(1535~1598) 선생의 이야기가 만화라는 형식으로 처음 출판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우계 성혼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족, 친구, 학문, 후학 양성, 친구와 만남, 선비 이야기, 사상, 임진왜란, 제자 등을 다뤘다.

성혼의 삶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는 유명 인물과 유학을 만나게 된다. 이기일월론과 이기이월론, 인의예지, 사단과 칠정, 도심과 인심을 배우게 된다.

우계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는 평생 벼슬을 탐하지 않았다. 선조가 주요 관직을 수없이 하사했으나 거의 조정애 나아가지 않았다. 조정에서 벼슬을 한 기간을 모두 합해도 채 1년이 못 된다. 그러면서도 평생 후학 양성에 힘쓰며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면서 수시로 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학문적으로는 율곡과 반대편에 섰으나 서로 존중하며 깊은 우정의 관계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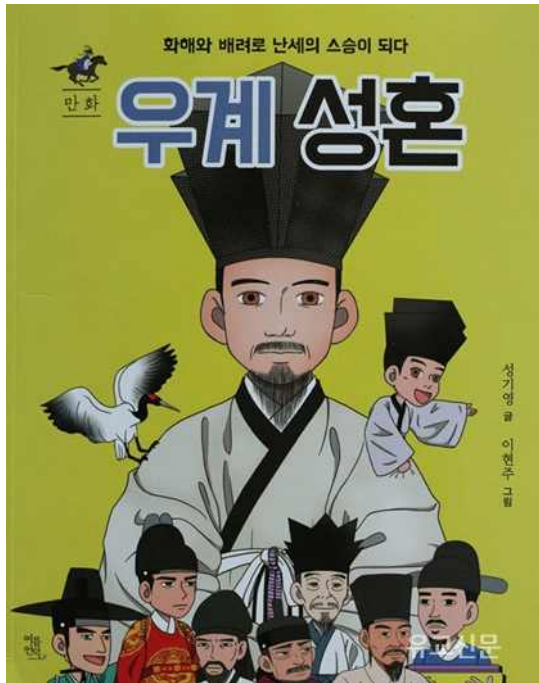
여진족 니탕개가 침범했을 때 병조판서에 오른 율곡은 상황이 다급해서 임금의 허락 없이 당장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이에 동인은 율곡이 임금을 무시했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아 위기에 빠진다. 이에 우계는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상황에 부득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용감한 신하를 탄압해서

는 안 된다며 상소를 올려 율곡을 구한다.

가볍지 않은 역사와 사상 이야기를 재미있고 유쾌한 만화로 꾸며, 성혼의 삶과 학문은 물론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게 된다.

그 이야기 속에는 오늘날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야기에 담고 있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은 아국 18현의 한 분인 우계 성혼 선생의 삶과 의미를 우리의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풀어냈다. 우계문화재단 성호경 이사장이 기획해 작가 성기영이 시나리오를 쓰고 이현주 만화가가 그려 2년의 노력 끝에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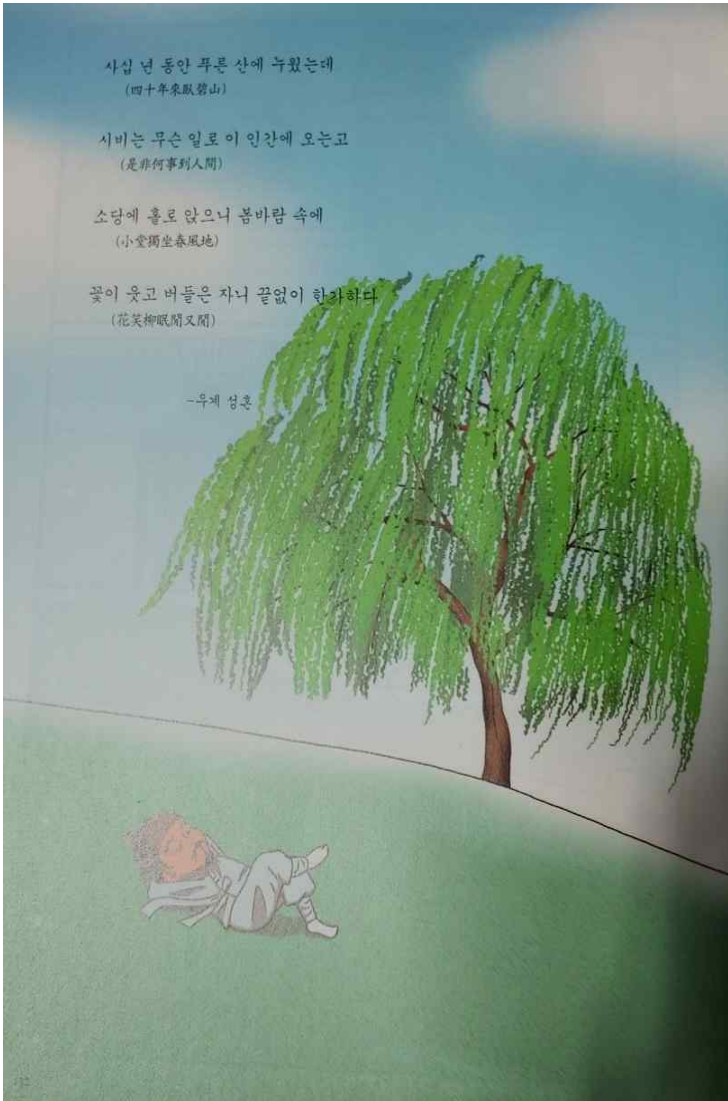
사십 년 동안 푸른 산에 누웠는데
(四十年来臥碧山)

시비는 무슨 일로 이 인간에 오는지
(是非何事到人間)

소담에 홀로 앉으니 봄바람 속에
(小堂獨坐春風地)

꽃이 웃고 버들은 지니 끝없이 한라하다
(花笑柳眠閒又閒)

-우계 성훈



사람책협동조합, 광탄중학교에서

“독서 토론 한마당 우계 성혼” 개최

2019-12-18 오후 10:30:22 김용현 기자

사람책협동조합(이사장 이육남)과 광탄중학교(교장 김순철)가 주최하고 우계문화재단(이사장 성호경)과 파주연천축협장학재단(이사장 이철호)이 후원하는 "제3회 독서토론 한마당"이 12월18일 오전 9시 광탄중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우계 성혼』 책자를 대상 도서로 광탄중학교 전교생 220명, 우계문화재단 5명, 사람책협동조합 20명이 참석했으며, 광탄중학교 15개 교실과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람책협동조합 회원 중에서 멘토로 황규출 시인 등 15명이 참가했고, 우계문화재단에서는 성호경 이사장, 성찬경 상임이사, 성기일 감사, 성유경 이사, 정의순 교육 이사가 참석했다.

행사는 1교시(09:10-30) 『우계 성혼』 책 읽기, 2교시(09:40-10:25) 마음 나누기, 독서 토의 및 토론, 3교시(10:35-11:20) 우계 성혼 독서토론과 발표 자료 작성, 4교시(11:40-12:40) 퀴즈와 15개 반에서 각각 대표가 단상에 나와 토론 결과 발표를 했다.

1교시부터 3교시까지는 15개의 각 반에서 실시했고, 4교시는 전교생이 강당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성호경 우계재단 이사장과 이육남 사람책협동조합 이사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 토론 한마당이 벌어졌다. 2교시와 3교시에는 사전 교육

을 받은 멘토 15명이 토론을 이끌었다.

성호경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계 선생은 과주 출신으로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하면서도 공은 남에게 돌리며 배운 것을 실천하는 훌륭한 대학자이셨다. 우계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육남 이사장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광탄중학교 교장 선생님, 성호경 우계문화재단 이사장님, 이철호 과주연천축협장학재단 이사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4교시 토론은 강당에서 이은희 선생의 사회로 진행됐다. 1조 대표 김민건 학생은 “우계 성혼' 책자를 여러 번 읽으면서 생각했다. 우계 선생을 본받고 싶다. 그러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자.”고 말했다.

제11조 대표 김민건 학생은 마인드맵(생각 그물)을 작성해 이목을 끌었다. 그 맵은 우계 성혼에서 출발해 ①친구 관계, ②공부하는 방법, ③업적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뉘지고 그 아래 여러 갈래로 생각을 표현했다.

제14조 대표 안서영 학생은 “우계는 도의지교로 율곡 이이, 구봉 송익필, 송강 정철과 사귀었다. 우계의 교육은 서실에서 예절, 공동생활 규칙 22가지, 공부지침서, 독서법이 있다”고 했다.

끝으로 전교 학생이 참가하는 O, X 퀴즈를 해서 끝까지 남은 11명의 학생에게 상품권을 수여했다.

4교시 토론 한마당이 끝난 후 학교 식당에서 과주연천축협 장학회가 후원한 돈가스로 점심식사를 했다.

이번 행사에서 우계문화재단은 『만화 우계 성혼』 책자

250권을 기증했고, 파주연천축협장학재단은 1만원 상당 돈가스 250개를 후원했다.

이번 독서토론 한마당 행사 참가자들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게 사회의 경륜이 있는 멘토가 함께 참여하여 토론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꿈, 끼, 행복을 주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번 한마당의 토론 주제가 우계 성훈 선생으로 청소년의 인성의 함양에 기여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광탄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화 『우계 성혼』 독서토론회 성황

- 파주 광탄중학교 220명 참가

자라는 꿈나무들에게 우계 성혼 선생의 정신문화를 알리는 독서토론 한마당이 2019년 12월 18일 파주시 광탄중학교(교장 김순철)에서 개최됐다.

광탄중학교와 사람책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하고 우계문화재단과 연천축협장학재단이 함께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광탄중학교 전교생 220명이 참가하였고, 독서 멘토 15인이 참여했으며 우계문화재단에서 성호경 이사장과 4인의 이사가 참석했다.

우계문화재단에서 제공한 만화 『우계 성혼』을 텍스트로 하여 15개 교실과 강당에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참가학생은 우계 선생의 일생과 도학정신, 율곡, 송강 등과의 우정 등을 높이 평가했다

우계문화재단은 이 행사를 위해 만화책 『우계 성혼』을 250부 기증했다.

- 유교신문에서



- 성호경 우계문화재단 이사장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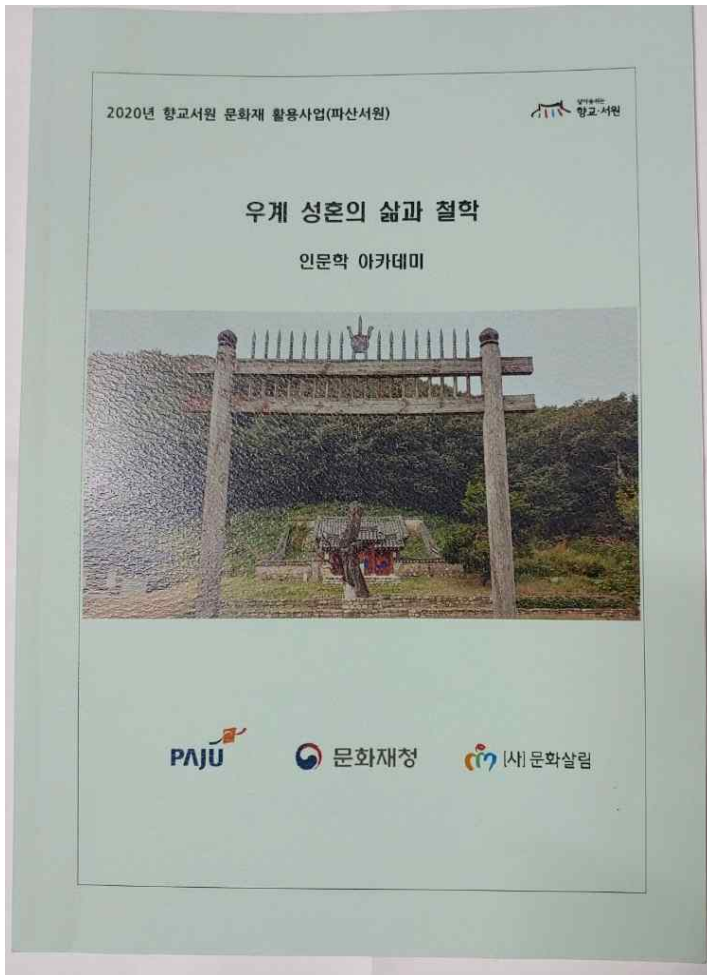
- 이육남 사람책협동조합 이사장 축사



- 성의순 우계문화재단 교육이사와 학생들 토의 내용 발표

■ 교육프로그램

우계 성혼의 삶과 철학 인문학아카데미
-2020.11.10.~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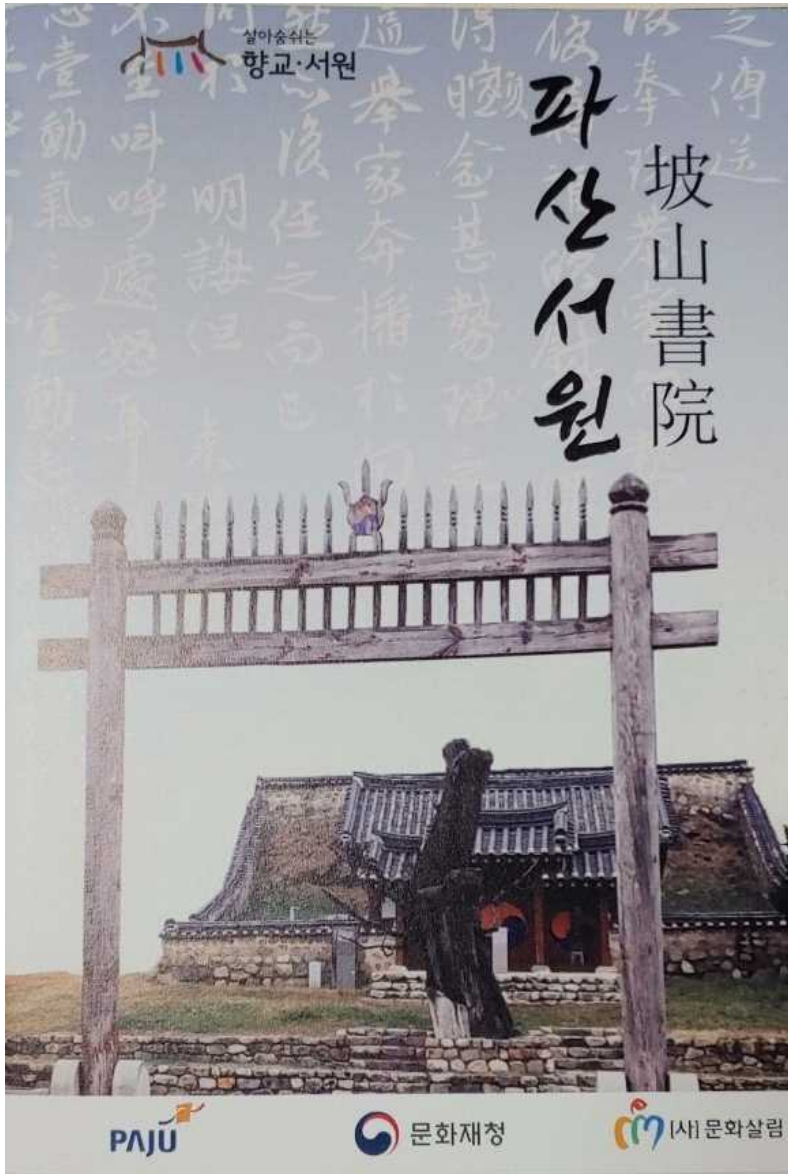
우계 성혼을 말하다

“만약 견해의 경지를 가지고 논한다면 내가 조금 낮다 할 수 있으나, 몸가짐의 독실함에 있어서는 내가 우계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 율곡 이이(栗谷 李珣)

자신이 스승으로 삼는 사람이 이지함, 성혼, 이이 세 사람인데, 그 가운데 이지함과 성혼은 동방의 남자로서 욕심의 함정에서 초탈한 분이라고 추앙하였다. - 중봉 조헌(重峯 趙憲)

“성혼의 재능을 천하를 능히 경륜할 만하다고 평가한다면 지나칠지도 모르나 그 위인이 본디 선을 좋아합니다. 선을 좋아하면 천하도 다스릴 수 있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어찌 쓸 재목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몸에 고질이 있어 필시 헌관(憲官)의 직책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이 사람을 반드시 한가한 자리에 붙인 후에 때때로 경연 자리에 입시하게 하면, 선한 도를 개진하는 데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 『이이가 선조 임금에게 성혼을 추천하는 말
[선조실록] 13년(1580년) 12월 2번째 기사』



66_ 고결한 선비 우계 성훈을 만나다

우계 성혼의 파산 서원

파산 서원 답사

조선 중기 학자인 청송 성수침(1493~1564)과 그의 아들 우계 성혼(1535~1598), 절효공 성수종(1495~1533) 및 휴암 백인걸(1497~1579)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서원이다.

조선 선조 1년(1568)에 율곡 이이 등 파주 지역 유생들이 세웠고, 효종 1년(1650) 나라에서 현관을 내려 사액서원이 되었다.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후에 복구하였으나 6.25 전쟁으로 다시 불탔고, 1966년 서원의 사당만을 복원하였다.

사당 주위에는 담장이 둘러져 있고, 정면 가운데에 솟을삼문을 두었다. 건물은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인 맞배지붕이다. 이 건물의 주춧돌과 기단석 등은 세울 당시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면은 텃마루로 개방해 놓았다.

흥선 대원군의 서원 철폐에도 없어지지 않았던 전국 47개의 서원 중 하나이다.

우계기념관(牛溪記念館)

우계 성혼(牛溪 成渾)

성혼(成渾, 1535~1598)은 16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아버지는 성수침(成守琛)이다. 본관은 창녕(昌寧), 호는 우계(牛溪)이다. 그는 문묘(文廟)에 모시어진 우리나라 18명의 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기호학파의 중심인물이다.

성혼은 평생 거의 관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학문과 교육에 힘썼고, 유학의 이론에도 매우 해박했으며 고결한 인품과 수양(修養)으로 동료, 제자들에게서 많은 존경을 받았다.

율곡 이이와도 학문적인 교류가 활발했으며 토론을 통해 이기일발설(二氣一發說)을 정립하였다.

성혼은 재야의 선비로 오랜 기간 살았으나 나라와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았다.

성혼은 성리학을 이론과 지식으로만 보지 않고 내면적인 자기 자신의 수양과 진실한 마음의 확립 등 실천을 중시했다.

성혼은 세상을 떠난 후 파산서원, 비봉서원, 물계서원 등에 모셔졌다.

고결한 인품과 수양의 청렴하고 신중한 성리학자 우계 성
혼(牛溪 成渾)

- 우계 성혼의 파산서원 문화 유산 답사
제4차 2020.11.28.(토) 우계가 걸던 길에서

우계 서실 유희비

우계 서실 유희비 1570년(선조 3년), 36세 때 성혼은 고향 파주의 본가 동편에 3칸 남짓한 기와집을 세워 우계 서실이라 이름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는 우계서실의 학도들이 지켜야 할 학규인 「서실의(書室儀)」를 만들었다. 이는 율곡이이가 세운 은병정사와 그 학규보다 7~8년 앞선 것이다. 우계 서실은 일제시대에 화재로 소실되었고, 현재 파산서원 경내 옛터에 우계 서실 유희비만 남아 있다.

우계 서실에 구름처럼 모여든 제자들

우계 성혼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만 ... 선생님 명성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저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스승님은 초가집에 사시면서 우리 공부방만은 기와집으로 지으셨네. 우계는 학도들이 지켜야 할 공동생활의 22가지 규칙인 ‘서실의(書室儀)’를 만든다.

1. 공부방에 온 사람은 새벽 일찍 일어나고 침구를 정리한다.
2. 각자 비를 들고 공부방을 청소한다.
3. 차례를 지켜 세수하고 의관을 바르게 해야 한다.
4. 제각기 책을 정리하고 바르게 앉아 조용히 글을 읽는다.
5. 잡담해서는 안 되고 마음대로 외출해서도 안 된다.
6. 식당에서는 나이 순서로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한다.
7. 식사 후에는 나이대로 나가 잠시 쉬다가 공부방에서 책

을 보면서 공부를 준비한다. 틈이 나면 글을 정성 들여 쓰고 토론, 논쟁한다. 결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8. 수업 후 독서를 하면서 의심나면 반드시 질문한다.

9. 저녁 식사 후에는 시냇가를 산책하고, 공부방에서 책을 보거나 글을 익힌다.

10. 밤이 깊으면 등잔불을 켜고 책을 읽고 밤이 더 깊으면 잠자리에 든다.

11. 잠자리에서는 손발을 가지런히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

12. 일상은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

13. 말은 바르고 적절하게 해야 한다. 회롱하거나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요란스러워서는 안 된다.

14. 자리에 앉을 때는 기대지 않는다. 앉거나 일어설 때는 정숙하고 단정하고 장중해야 한다.

15. 출입할 때는 안정되고 정중하게 한다. 뛰거나 경솔해서는 안 된다.

16. 출입할 때는 선배가 앞선다.

17. 온순하고 겸손한 자세로 상대를 공경하는 태도를 갖는다.

18. 계획 없이 외출해서는 안 된다.

19. 모든 일은 겸손하게 하고 남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20. 아침저녁으로 학업을 점검하고, 마음과 행실을 다시 점검한다.

21. 항상 부지런함과 삼가함을 생각한다.

22. 어른이 공부방에 들어오면 어린 사람은 모두 일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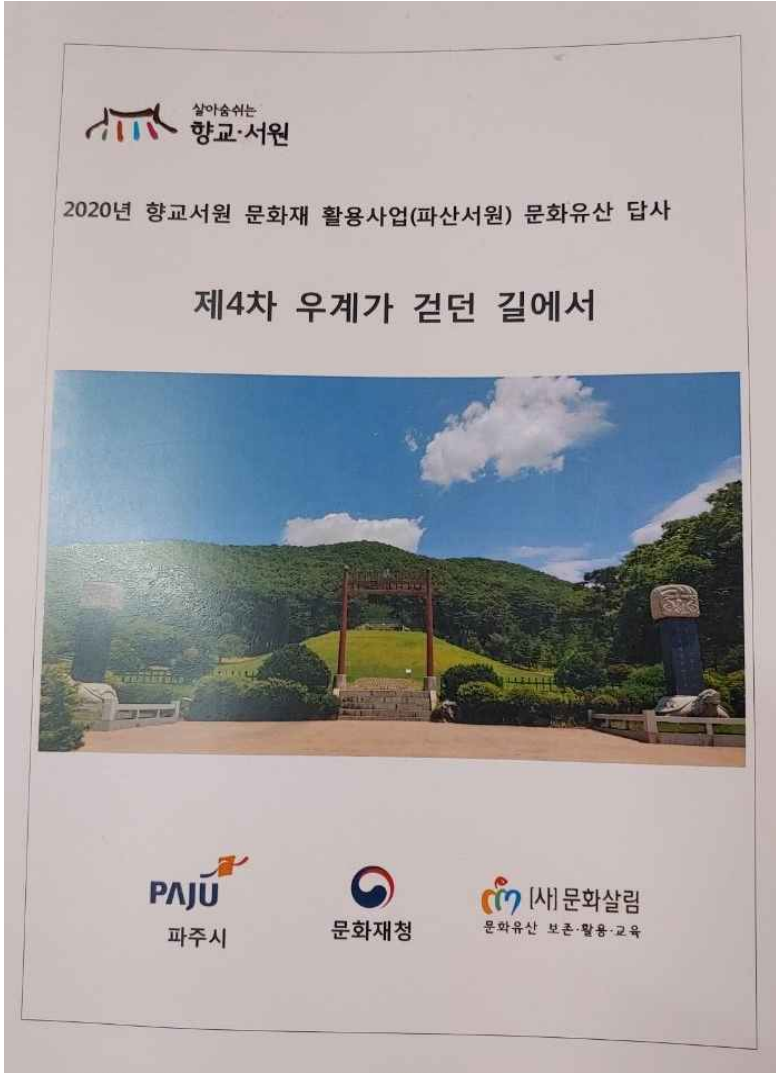
모든 일을 나이순으로 한다는 것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되
신분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계는 평생, 이 우계서실에서 수많은 후학을 양성한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200명에 달했다.

참고 : 우계 성혼 평전 한영우, 16~17쪽, 만화 우계 성혼
성기영 104~114쪽, 다음 인터넷.

우계 성혼의 파산서원 문화 유산 답사

- 제4차 2020.11.28.(토) 우계가 걷던 길에서



우계 학파를 이루다

우계의 위상과 우계 학파

조선 유학은 고려 말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의 학맥을 계승하여 15~16세기에는 김종직, 김굉필, 조광조의 도학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기호학파와 영남학파로 나뉘었다. 그리고 기호학파는 다시 율곡학파와 우계 학파로 나뉘었다.

우계 성혼은 조광조의 문인인 부친 성수침으로부터 조광조의 도학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퇴계, 율곡과 더불어 16세기 조선 성리학을 대표하는 유학자가 되어 친구와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아들 성문준, 사위 윤희, 조현, 이정구, 김집, 안방준, 김덕령, 이귀, 이시백, 강항, 황신, 최기남, 이항복, 권극중, 오윤겸, 변이중 등이 우계의 문인들이다. 특히 사위인 윤희를 통해 우계의 학문이 파평 윤씨의 가학으로 계승되어 윤희의 아들 윤선거와 윤선거의 아들 윤증에 의해 소론이 되어 노론의 율곡학파와 마주 서게 되었다.

우계는 율곡과의 성리 논변을 통해 ‘이기일발설(理氣一發說)’을 주장하였고 대체로 퇴계의 설에 기여하였으며 한국 양명학의 뿌리가 되었다. 우계의 학문과 덕행은 문묘에 종사되는 영광을 가져와 마침내 ‘아국 18현’으로 추앙되었다.

- 교육 프로그램 : 우계 성혼의 삶과 철학(2020.11.10.~12.1)

우계 성혼 선생의 시조

- 자료제공 成義順 蒲公

1844. 말 없는 청산이요

1844-2019 02 02

作詞: 우계 성혼 牛溪 成渾
作曲: 전한준 靑草 全漢俊

말 없는 靑山이요 태 없는 流水로다
값 없는 靑風이요 입자 없는 明月이랴
이 중에 병 없는 몸이 分別 없이 늙으리라

[경기도의 미래, 길을 묻다] 우계 성혼

뉴스 기획 경계뉴스 -
[경기도의 미래, 길을 묻다] 우계 성혼
관공제 제 1차 시조 경선 5차의 2차에 1등으로 선정
발행처: 7130-0100@hanmail.net | 5월호(2017.05) 47쪽 48쪽 | 발행일: 2017.05.18 48쪽 49쪽

지식과 행동,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함을 이르는 지행일치(知行一致)와 언행일치(言行一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마음가짐이다.

우계재단 2018. 08. 08 - 2 - www.우계재단.org



2017. 계상춘일(溪上春日)

2017-2019 03 09

牛溪 成渾先生 詩評說 42p

작사: 우계 성혼(牛溪 成渾)

작곡: 전한준 靑草 全漢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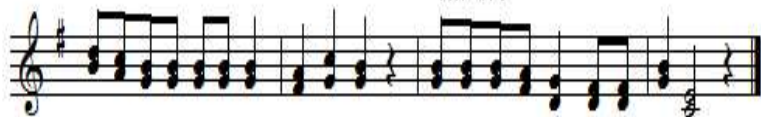
사십년 동안 푸른 산아래 누웠는 데
四十年 山



어인 일 - 로 시 - 비 - 가 인간에 이르렀는 가
是 非 人間



작은 집에 봄 바람 무한이 불어오 니
無限



꽃은 피고 버들은 조는 듯 한가롭고 또 한가롭다
閑暇 閑暇

- 자료제공 成義順 蒲獫

2032. 월야독음(月夜獨吟)

2032-2019 03 15

牛溪成渾先生詩評說 31p

작사: 우계 성혼(牛溪成渾)

작곡: 전한준 靑草全漢俊



온 산에 가득한 달 깊이 창문에 들어 오니



시원한 밤 상쾌하여 이마를 알아주는 듯



다시 폭포 소리 먼골짜기에서 울려 오니



마치 깊은 숲 속에서 비바람 몰아치는 듯 하여라

- 자료제공 成義順 蒲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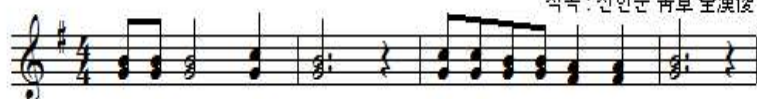
2033. 소파우제(梳髻偶題)

牛溪成渾先生詩評說 49p

2033-2019 03 15

작사: 우계 성혼(牛溪成渾)

작곡: 전한준 靑草 全漢俊



나이가 어 언 마흔아홉이 되 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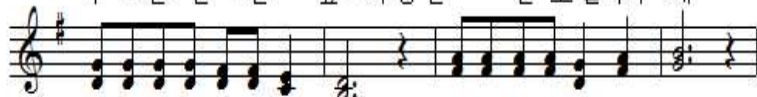
흰머리 카 락 온 머리에 생기 네



오히려 잘 늙어 감이 기쁘고 기쁘지 만
푸른山 빛은 - 사방 자리에 들어오 고



학문이 이루어 지지못함은 부끄 러 워 라
푸 - 른 물 - 은 앞-기둥을 돌고 흘러가 네



애오라지편안하 고 한가로운곳 에 서



넉넉히 놀 며 성품과 마음 수양하리라

- 자료제공 成義順 蒲獫

2410. 석장군(石將軍=쌍미륵)

자료 제공 成義順蒲公
2410-2020 04 24

작사: 성훈선생
작곡: 전한준 靑草 全漢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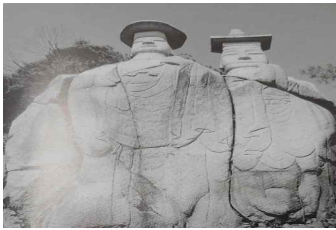


푸른 절벽이 석장군으로 변하니
石將軍

만고의 것 사라지고 너만 홀로 남았구나
萬古

mf 부러워라 너는 티끌 세상일에 관심이 없어
mp *f*

mf 산머리 해질녘 한가로운 구름과 짝을 하고 있구나
mp *mf*



蒼崖化出石將軍 蒼崖化출석장군
萬古銷沈獨有軍 萬古소침독유군
却羨無心塵世事 각선무심진세사
出頭科日伴閑雲 출두과일반한운

* 파주 용미리에 있는 석장군(石將軍)
一名 쌍미륵이라고도 한다.

* 1588년(선조21년) 어느 날 53세의 성
훈(成渾)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있
는 石將軍을 보고 詩를 읊었다.

우계 시조 작품이 지닌 구조와 그 아름다움

말없는 청산이요 태없는 유수로다
값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없이 늙으리라.

이 작품은 소재의 차원에서 보면, 송 대의 대 시인 소동파(蘇東坡)의 적벽부(赤壁賦)를 활용하고 있다. 즉 적벽부의 다음과 같은 표현을 중장의 소재 원으로 끌어와서 시적인 분위기를 높이며, 바탕 소재인 적벽부가 지녔던 주제적 의미를 보조 관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을 비롯한 우주 만물에 대한 철학적 본질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계가 동양의 고전적 시부인 적벽부의 이 대목에서 중장의 대표적 시어나 시의 정신을 가져온 것은 그만한 작가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우계는 시조라는 짧은 시 형식 속에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시적 의미를, 동양의 대표 고전 시부가 제시하는 수준 높은 의미를 통해 철저히 심화시키는 독특한 기법을 활용하는 참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계가 보여준 독창적 소재 차용, 구체적으로는 당시대로는 세계문학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중국 문학의 적극적이며 교묘한 소재 차용의 기법은 우리 시조 문학사에서 그의 시조가 차

지하는 위상을 가장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나는 이런 높은 도(道)의 길, '진리의 길'에 따라 참다운 성리학자로서의 고매한 인격을 유지하면서 진실한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부끄럼 없는 현재의 삶과 희망찬 미래에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계학보 제3호 11~13쪽 참고>

우계 성혼을 아시나요?

- 우계 성혼 관련 문답 풀이

문제1. 우계 성혼의 부친은 정암 조광조의 수제자로 글과 서에 능하여 장래가 촉망된 분이었으나, 기묘사화로 스승인 조광조 선생이 사약을 받고 세상을 뜨자 세상일에 흥미를 잃고 자기 수양에 힘쓰기 위해 독서실을 지었다. 이 독서실의 이름은 무엇인가?

청송당 / 화석정 / 반구정 / 경현단 (답 : 청송당)

문제2. 우계 성혼선생 평생을 과거에서 학문과 제자 양성을 하시었다. 우계선생이 사시던 곳은? (답: 놀로리 파산서원)

놀로리 파산서원 / 금천역 부근 / 광탄면 / 운정 지구

문제3. 우계선생은 벼슬길 보다는 「수신제가」에 힘쓰기로 하고 공부에 전념하기로 한다. 이때 우계선생에게 학문을 가르쳐주신 분은 누구인가?

백인걸 / 상진 / 조광조 / 박순 (답: 백인걸)

문제4. 우계 성혼과 도의지교를 맺어 평생을 변치 않는 우정으로 함께 학문을 한 대학자이자 개혁가인 분은?

정철 / 이이 / 백인걸 / 김집 (답 : 이이)

문제5. 삼현수간은 조선 중기 성리학의 대가인 세 분 사이에 오고 간 편지를 모아 후대에 제작한 책이다. 이 세분 현자

의 이름으로 맞는 것은?

성훈-이이-송익필 / 성훈-이황-기대승 / 이이-조식-서경덕 / 이이-조식-이황 (답: 성훈-이이-송익필)

문제6. 우계 성훈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제향을 올리는 서원은?

파산서원 / 용주서원 / 우저서원 / 자운서원 (답: 파산서원)

문제7. 우계 선생이 율곡과의 수 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며 인간의 본성이 ‘이’인가 ‘기’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한다. 이 논쟁을 무엇이라 하나?

우율 논쟁 / 퇴고 논쟁 (답 : 우.율 논쟁)

문제8. 우계는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시묘살이를 하였다. 우계가 시묘살이를 한 기간은?

3일 / 3개월 / 3년 / 30년 (답 : 3년)

문제9. 인간의 네 가지 착한 본성 중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은 다음 중 무엇인가?

측은지심 / 수오지심 / 사양지심 / 시비지심(답 : 수오지심)

문제10.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유학의 한 분야를 무엇이라 하나 ?

성리학 / 훈고학 / 양명학 / 실학 (답 : 성리학)

문제11. 우계 선생은 벼슬을 멀리하고 거의 일생을 이곳 파

주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살았다. 우계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곳으로 옳은 것은?

우계서실 / 한림원 / 집현전 / 경현단 (답 : 우계서실)

문제12.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지침서로 우계선생이 지은 책의 이름은?

위학지방 / 격몽요결 / 우계집 / 율곡전서 (답 : 위학지방)

문제13. 우계 선생은 학생들이 공부할 때 지켜야 할 22조의 규범을 만들어 교육하였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나?

우계서실의 / 은병정사학규 / 백록동 학규(답 : 우계서실의)

문제14. 우계는 당대의 많은 친구들과 교류하며 학문과 국사를 의논하며 살았다. 다음 중 우계의 친구가 아닌 사람은?

이이 / 정철 / 송익필 / 김성일 (답 : 김성일)

문제15. 송강 정철의 시 중 “재 너머 「성권농」 집의 술 너댓 말 어제 듯고”에서 “권농”이란 조선 시대 농사를 장려하던 직책을 말한다. 여기서 「성권농」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성혼 / 성삼문 / 성현 / 성승 (답 : 성혼)

문제16. 병조판서 율곡이 여진족의 난을 진압하였으나 선조 임금께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고 군사행동을 한 이유로 탄핵의 위기에 처한다. 이때 율곡 이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국가

의 위기를 구한 신하를 절차상의 문제로 탄핵을 한다면 매우 부당하다”며 상소하여 울곡 이이를 구원한 사람은 누구인가?

성혼 / 윤관 / 황희 / 성승 (답 : 성혼)

문제17. 16세기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우려하여 일본에 조선통신사 두 사람을 보내어 일본의 사정을 보고 받았다. 황윤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음험한 인물이니 일본의 침공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김성일은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보잘 것 없는 인물이어서 감히 침공을 못한다고 하였다. 두 사람의 상반된 의견 중 누구의 의견이 옳았는가?

황윤길 / 김성일 (답 : 황윤길)

문제18.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는? 1592년 (임진년)

문제19. 우계 선생은 국가를 개혁하고 국난을 해결할 방책으로 상소를 수시로 올렸다. 다음 중 우계의 상소 내용이 아닌 것은?

나라가 흥하려면 군주는 겸손해야 한다. / 군주는 배움보다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 인재를 등용할 때 진실하며 능력 있는 자를 뽑아야 한다. / 혁폐도감을 설치하여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답 : 2번)

문제20. 우계 선생은 임진왜란 중 서애 류성룡과 함께 일본과의 화의를 주장하였다. 화의 주장 이유로 맞는 것은?

백성과 병사들이 지쳐 다음을 기약할 최소한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 임금과 조정 신하의 안위를 위하여 (답 : 1번)

문제21. 우계 선생은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평생을 청렴. 결백하게 학문을 연마하며 검소하게 살았다. 선생이 세상을 뜨기 전에 미리 자신의 묘 지문을 적는다. 다음 중 우계 선생의 ‘자찬묘지문’이 아닌 것은?

비석에 다른 말을 일체 쓰지 말고 “창녕 성혼묘”라고만 표기하라 / 관과 상여를 쓰지 말라 / 종지로 옴을 하라 / 인력을 동원하여 시신을 옮겨라 (답 : 4번)

문제22. “만약 견해의 우월을 논하자면 내가 약간 나를 것이나 행실이 돈독하고 확고한 것은 내가 따르지 못한다.” 라고 우계 인물평을 하였다. 이 인물평을 한 사람은?

구봉 송익필 / 율곡 이이 / 송강 정철 / 방촌 황희(답 : 2번)

문제23. 우리나라 18현은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고 학자로서 후세에 존경받아 학문적 업적이 후세에 길이 남아야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정승 10명이 대제학 1명에 미치지 못하고 대제학 10명이 문묘에 배향된 현인 1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다. 다음 중 우리나라 18현이 아닌 사람은?

성혼/ 박세채/ 조현/ 윤관 (답 : 윤관)

문제24. “말 없는 청산이요 태없는 유수로다. 값없는 청풍이요 입자 없는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없이

늬으리라” 라는 시조의 저자는 누구인가?

성혼 / 성현 / 정철 / 이이 (답 : 성혼)

문제25. 우계 선생은 평생을 파주에서 지내며 많은 제자를 교육하여 수많은 의병장, 재상, 학자 등 국가의 동량지재를 양성하였다. 다음 중 우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

강항 / 조헌 / 오윤겸 / 송응개 (답 : 송응개)

문제26. 파주읍 향양리 우계 묘소에 가면 우계 성혼의 부친인 청송 성수침 선생의 묘갈명(죽은 분의 업적을 기록한 비문)이 있다. 이 글을 짓고 글씨를 쓴 분은 누구인가?

퇴계 이황 / 고봉 기대승 / 율곡 이이 / 우계 성혼(답 : 1번)

문제27. 우계선생의 제자 중에서 임진왜란의 위기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다 일본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 성리학을 전파한 학자는?

강항 / 안방준 / 조헌 / 변이중 (답 : 강항)

문제28. 우계 성혼 선생은 사후 율곡 선생과 함께 국가의 문묘에 배향된 우리나라 18현의 한 분입니다. 동국 18현을 배향하고 매년 2차례 문묘제례악과 함께 큰 제사가 치러지고 있는 장소는?

성균관 / 태학 / 집현전 / 국자감 (답 : 성균관)

문제29. 임진왜란 당시 선조 임금의 임진 나루터를 건너 의

주로 피난을 간다. 이 임진나루터에 있는 정자의 이름은?
(화석정)

문제30. (넌센스 퀴즈) ‘여름엔 수박 가을엔 감’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랴 하는가? (여수가감)

우계 성혼 독서토론 퀴즈 문제 해설

1. 청송당 : 성수침의 아호 청송에서 따온 ‘청송당’은 ‘솔바람 소리를 듣는 집’이라는 뜻이다.

5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현재, 종로구 청운동의 이집은 남아 있지 않다.

‘청송당’ 글자를 새긴 바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화가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이 그린 ‘청송당’의 모습이다.

겸재는 청송당을 외경의 눈으로 바라보며 화폭에 올렸다.

울창한 솔숲과 절벽을 이룬 바위들이 고즈넉하다.

청송 성수침은 솔바람 소리와 더불어 독서에 열중하였고 이런 학풍이 아들인 우계와 그 둘도 없는 벗인 율곡에게 전해져 우율 학파가 형성된다.

겸재가 그렸던 청송당 자리에는 현재 경기상고가 자리하고

있다. (종로구 청운동 89-3) 경기상고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 뒤쪽 계단 위에 청송당 터임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있다.

2. 놀노리 파산서원 :

우계는 파산서원 앞으로 흐르는 개천의 이름으로 성혼의 호로 사용. 파산서원은 주소는 다음과 같다.

경기 파주시 파평면 파산서원 길 24-40

파산서원은 조선시대 학자 우계 성혼과 그의 아버지 성수침, 삼촌 성수종 및 백인걸의 위패를 봉안하고 후학을 양성하던 곳이다.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

3. 백인걸 :

휴암 백인걸(休菴 白仁傑, 1497~1579)

조선 중기 학자 문신.

우계 부친인 청송 성수침과 함께 정암 조광조 선생에게 수학우계와 율곡의 스승.

4. 이이 :

율곡 이이(栗谷 李珣, 1536~1584)

조선 중기 걸출한 문신 정치가 학자로서 성혼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42쪽 대단한 신동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율곡 형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5. 성혼-이이-송익필

성혼 : 우계 성혼(牛溪 成渾 1535~1598)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뛰어난 학자 교육가로 우계학파의 창시자 문묘에 배향되어 있다.

이이 : 율곡 이이(栗谷 李珣 1536~1584) 조선 중기 걸출한 문신 정치가로서 성혼의 친한 친구였다.

송익필 : 구봉 송익필(龜峯 宋翼弼 1534~1599) 우계, 율곡의 절친 조선 중기 8대 문장가에 들 만큼 뛰어난 시인이었다.

삼현수간(三賢手簡)은 구봉과 우계, 율곡 사이에 오고 간 편지를 후대에 4첩으로 제작한 것이다.

16세기 성리학의 대가들인 세 친구가 서로 안부를 묻거나 성리학을 둘러싸고 토론한 내용을 묶은 이 책은 사상사 학술사적으로도 귀중한 자료이다.

보물 제1415호로 현재 서울 한남동의 리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6. 파산서원 : 213~214쪽= 2번 답 늘로리 파산서원 같다.

7. 우율 논쟁

우율 논쟁은 당대 학계를 뒤흔들며 이후의 조선 논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우율 논쟁 - 대학자의 반열에 오르다.

1572년 하계 성리학 학술대회

1572(선조5)년 성리학사에 길이 남을 뜨거운 논쟁이 바로 우계 성혼과 율곡 이이 사이에 타올랐던 ‘사단칠정 논쟁’이다.

성혼과 이이는 ‘인간 성향의 본질이 이(理)인가 기(氣)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했는데, 이를 ‘우율’ 혹은 ‘율우’논쟁이라 한다.

다들 아시죠. 사단이 무엇인지는? 예! 우계 쌤 파이팅!

수오지심(羞惡之心) :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측은지심(惻隱之心) : 남을 불쌍히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

사양지심(辭讓之心) : 겸손하여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是非之心) : 잘 잘못을 분별하여 가리는 마음.

사단이 바로 본성에서 우러나는, 사람이 타고난 도덕적인 능력이지요.

퇴계 이황 팬클럽은 우계 성혼을 응원합니다.

예기(禮記)에 칠정, 즉 일곱 가지 감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 본성이 사물을 접하면서 표현되는 자연의 감정.

즉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

이것이 칠정!

우계 성혼 선생 관직 제수 현황

번호	년도	제수 관직	수행 여부		비 고
			O	X	
1	1568	참봉		X	선조원년, 34세 2월 전생서 참봉(중9품)
2	1569	참봉		X	선조 2년, 35세 8월 목청전 참봉
3	"	장원		X	선조 2년, 35세 12월 장원 서 장원(정6품)
4	1570	현감	O 한 달		선조 3년, 36세 6월 적성 현감(중6품)
5	1573	좌랑		X	선조 6년, 39세 2월 공조 좌랑(정6품)
6	"	장원		X	선조 6년, 39세 7월 장원서 장원
7	"	지평	O 한 달		선조 6년 39세 12월 사헌 부 지평(정5품)
8	1574	인의		X	선조 7년, 40세 1월 통례원 인의(중6품)
9	"	정랑		X	선조 7년, 40세 공조 정랑 (정5품)
10	"	지평		X	선조 7년, 40세 사헌부지평
11	"	주부		X	선조 7년 40세 2월 전생서 주부(중6품)

12	"	지평		X	선조 7년 40세, 2월 사헌부 지평
13	"	정랑		X	선조 7년 40세 3월 공조
14	1575	지평		X	선조 8년, 41세 6월 사헌부 지평 임금이 의원을 보내 진료 하고 약을 지어 보내다.
15	"	정랑		X	선조 8년 41세 7월 공조 정랑
16	"	지평		X	선조 8년 41세 8월 사헌부 지평
17	"	정랑		X	선조 8년 41세 8월 공조 정랑
18	1576	지평		X	선조 9년, 42세 10월 사헌부 지평
19	"	인의		X	선조 9년, 42세 10월 통례원 인의
20	1578	지평		X	선조11년, 44세 5월 사헌부 지평
21	"	사지		X	선조11년, 44세 5월 조지서 사지(종6품)
22	"	지평		X	선조11년, 44세 8월 사헌부 지평
23	"	사지		X	선조11년, 44세 8월 조지서 사지
24	"	지평		X	선조11년, 44세 11월 사헌부 지평
25	"	판관		X	선조11년, 44세 11월 예빈시 판관(종5품)
26	1579	지평		X	선조12년, 45세 2월 사헌부 지평
27	"	령		X	선조12년, 45세 2월종묘서령(종5품)

우계 성혼 선생 관직제수 현황

번호	년도	제수 관직	수행부		비 고
			O	X	
28	1579	지평		X	선조12년, 45세 3월 사헌부 지평
29	“	주부		X	“ ” 4월 장흥고 주부(종6품)
30	“	령		X	“ ” 5월 종묘서령
31	“	지평		X	“ ” 7월 사헌부 지평
32	“	주부		X	“ ” “ 광흥창 주부(종6품)
33	“	주부		X	“ ” 8월 전생서 주부(종6품)
34	1580	장령		X	선조13년, 46세 8월 사헌부 장령(정4품)
35	"	첨정		X	“ ” “ 장악원첨정(종4품)
36	"	장령	O 한 달		“ ” 12월 사헌부장령 임금이 말이나 가마를 타고 올라오라고 명했다.
37	1581	령		X	선조14년, 47세 종묘서령
38	“	장령		X	“ ” 3월 사헌부 장령
39	“	첨정		X	“ ” “ 내섬시첨정(종4품)

40	“	정랑		X	“ ” 4월 공조 정랑(정5품)
41	“	침정		X	“ ” 5월 내섬 시 침정(종4품)
42	“	수		X	“ ” 6월 풍저 창 수(정4품)
43	“	수		X	“ ” 8월 전설사 수(정4품)
44	“	상호군	O 두달		“ ” 10월 용양위 상호군 (정3품 당하관) 여섯 번이나 거듭 불허하고 겨울철 별감을 지급하다.
45	1582	집의		X	선조 15년, 48세 2월 사헌부 집의(종3품)
46	“	정		X	“ ” 3월 사용원 정 (정3품 당하관)
47	“	정		X	“ ” 5월 사용원 정
48	“	정		X	“ ” 9월 사용원 정
49	“	정		X	“ ” “사재감 정 (정3품 당하관)
50	1583	집의		X	선조 16년, 49세 1월 사헌부 집의
51	“	정		X	“ ” 2월 사섬시 정 (정3품 당하관)
52	“	참지	O 두달		“ ” 3월 통정대부와 병조 참지 (정3품 당상관) 특별히 제수하다. 처음으로 당상관에 오르다.
53	“	호군		X	“ ” 5월 호군 (정4품)
54	“	참의	O 한달		“ ” 이조 참의(정3품 당상관) 은(銀)으로 만든 허리띠를 하사하다.

우계 성혼 선생 관직제수 현황

번호	년도	제수 관직	수행여부		비 고
			O	X	
55	1583	호군		X	선조 16년, 49세 6월 호군에 제수하고 경연관(醞筵掾)을 겸하라고 명하다.
56	“	참의		X	선조 16년, 49세 9월 이조 참의에 두 번째 제수
57	“	참판		X	선조 16년, 49세 11월 특별히 가선대부로 이조 참판(종2품)을 제수하다.
58	1584	동지중추부사		X	선조 17년, 50세 4월 동지중추부사(종2품)
59	“	참판		X	“ ” “ 다시 이조 참판 두 번
60	“	동지중추부사		X	“ ” “ 동지중추부사
61	“	파주군수	O 한 달		“ ” 12월 파주군수에 명하여 문안하고 식량을 지급하라고 이른다.
62	1585	당상		X	선조 18년, 51세 1월 찬집청(撰集廳) 당상
63	"	동지중추부사		X	“ ” 7월 동지중추부사

64	1589	참판		X	선조 22년, 55세 11월 이 조 참판에 세 번
65	"	동지중 추부사		X	" " 12월 동 지중추부사
66	1590	침지중 추부사		X	선조 23년, 56세 11월 침지중추부 사(정3품 당상관)
67	1592	우참찬		X	선조 25년, 58세 10월 자헌대부 의 정부 우참찬(정2품)
68	"	대사헌		X	" " 12월 사헌부 대사헌(종2품)
69	"	우참찬		X	" " " 다시 우 참찬 두 번
70	1593	대사헌		X	선조 26년, 59세 1월 두 번째 대사헌
71	"	우참찬		X	" " " 다시 우참찬 세 번
72	"	대사헌		X	" " 5월 대 사헌 세 번
73	"	지중추 부사		X	" " 5월 다시 지중추부사(정2품)
74	"	상호군		X	" " 10월 상호 군(上護樹)
75	1594	좌참찬		X	선조 27년, 60세 5월 의 정부 좌참찬(정2품)
76	1595	부호군		X	선조 28년, 61세 6월 부호군(종4품)
		계	7 번	6 9 번	

벼슬과 부귀를 멀리한 참 선비

4번 1570년 현감제수 한 달, 선조 3년, 36세 6월 적성 현감(중6품) 6월에 적성 현감 제수, 7월에 임금에게 사은하고 돌아오다.

7번 1573년 지평제수 한 달, 선조 6년, 39세 12월 사헌부 지평(정5품)제수, 1574년1월 통례원 인의(중6품)제수 부임하지 않다.

36번 1580년 장령제수 한 달, 선조 13년, 46세 12월 사헌부 장령 임금이 말이나 가마를 타고 올라오라고 명했다. 1581년 1월 사헌부 장령 그만두고, 종묘서 령에 다시 제수되다.

44번 1581년 상호군제수 두 달, 선조 14년, 47세 10월 용양위 상호군(정3품 당하관)으로 승급. 여섯 번이나 거둬 불허하고, 겨울철 뽕감을 지급하다. 12월 임금이 편지를 내려 부르다. 부득이 서울로 돌아와서 대궐에 나아가 창덕궁 선정전에서 임금을 만나 돌아가기를 청하자 허락하다. 드디어 파산으로 돌아오다.

52번 1583년 참지제수 두 달, 선조 16년, 49세 3월 통정대부와 병조 참지(정3품 당상관) 특별히 제수하다. 처음으로 당상관으로 오르다.

54번 1583년 참의제수 한 달, 선조 16년 49세 5월 이조 참의(정3품 당상관) 은(銀)으로 만든 허리띠를 하사하다.

61번 1584년 파주군수 한 달, 선조 17년 50세 12월 파주 군수에 명하여 문안하고 식량을 지급하라고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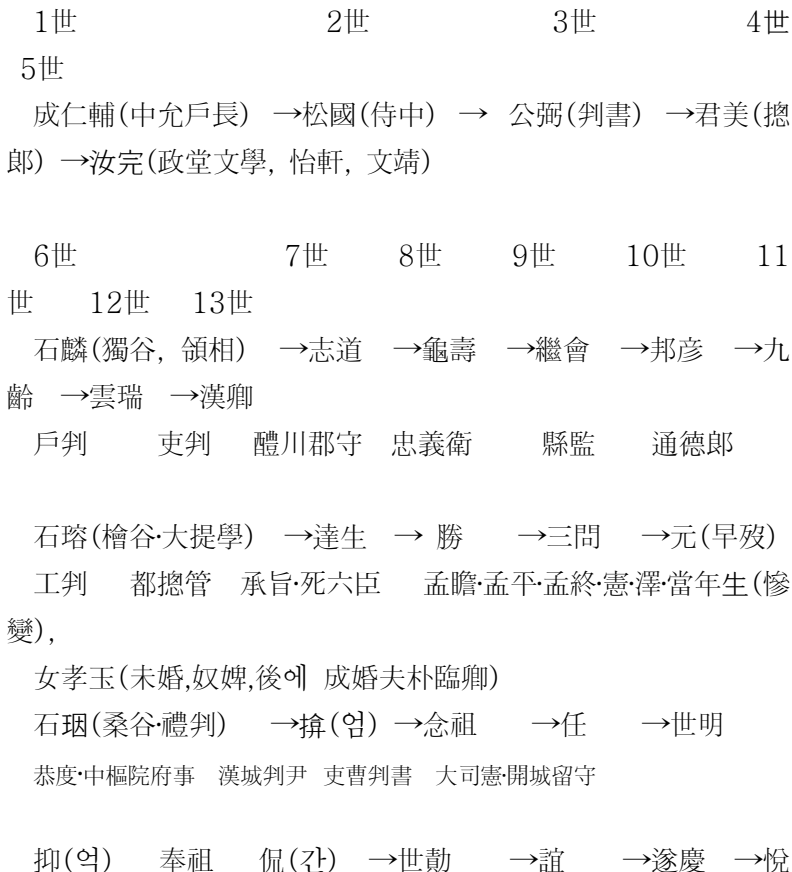
* 1583년 선조 16년, 49세 7월 삼사가 병조판서 이이를 탄핵하고 나서자 이이를 구하는 소를 올리고 시골로 내려가기를 청했으나 불허하다. 사헌부와 사간원이 성혼을 탄핵하자 파산으로 돌아가다. 임금이 동인 박근월, 송응개, 허봉을 삼간(三幹)으로 지목하고 귀양 보내다. 동인 언관들이 이이와 성혼이 서인이라면서 비판하자, 임금이 “내가 이이와 성혼의 당(서인)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참고서적] 우계 성혼 평전 / 2016.12.20. / 지은이 한영우 / 퍼넨곳 (주) 민음사.

성의순 가계도 成義順 家系圖

(27世, 桑谷公石瑠派-眞逸齋侃派)

작성자 : 成者雄 (26世, 桑谷公派(節孝公守宗派))



僖靖·左贊成 右議政 眞逸齋·修撰 正言 生員 修義
副尉 進士

扱 順祖 倪 →世亨 →詢
原州牧使 刑曹參判 虛白堂·文衡 世昌(倪三子) 右相·文衡
14世 15世 16世 17世 18世 19世 20世
21世 22世 23世
永遇 → 擇 →興門 →勁 →大器 →泰柱 →允默 →
載衡 →宅鎬 →源孝
悅二子 允默二子

24世 25世 26世
樂禹 →斗慶 →基星(斗慶三子)
生父源百 斗慶三子
子義鎔系基哲后
啓鎔
世鎔
女義順

成義順(1938謄生. 경기 양주)
- 숙명여대, 동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碩士)
- 경제기획원 정년퇴직
- 한국전례연구원
- 예절지도교육 연구과정 수료(120시간)
- 북촌 예절문화원 원장
- 성균관 석전교육원 교육부장
- 국무총리 표창(2019)
- 우계문화재단 교육이사, 성균관 부관장(현재)

성의순 약력



아국 18현 문간공
 我國 十八賢 文簡公
 우계 성훈선생의 시조
 말 없는 칭산이요.
 시 계상춘일을 영어로 낭독.

- 성명 : 성의순(成義順)
 출생 : 1938년 경기 양주
 본관 : 창녕(昌寧)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26가 길 8 (우편번호:06956)
 직업 : 북촌 예절문화원 원장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동 대학원
 - 1963년 정경대학상학과 졸업 학사
 - 1965년 대학원경제학과 졸업 석사
 경력 :
 - 경제기획원 공무원 정년퇴직
 - (社)韓國典禮院 禮節教授
 - 국가공인실천예절 지도사
 - 한국효충예절문화 연구원
 - 무계원 서당 훈장
 - 성균관 석전교육원 교육부장
 - 성균관 문묘 해설사 강사
 - 성균관 전학, 전례사, 전수생
 - 우계문화재단 교육이사
 - 2019.02.26 제202056호 표창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2022.05.01.제2022총-7호
 제33대 성균관 부관장 임명 선임

2019.04.20.(토) **춘향제** 010-3213-9186
 toa3213@hanmail.net

문간공(文簡公)이란?

성혼은 1633년 인조 대에 이르러 문간공이란 시호를 받았다. 시호에서 문(文)은 도덕에 대한 견문이 넓은 것을 의미하며 간(簡)은 한결같은 덕을 간직하고 게으르지 않다는 의미를 지닌다.

성혼(成渾) 시의 도학적 성향과 풍격미 19~20쪽
2020년 11월 12일 초판 발행
양훈식(梁勳植) 지음 학교방(學古房)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학술총서 61

1633년(인조 11년)에는 ‘문간(文簡)’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는데, “도덕에 대한 견문이 넓은 것을 문(文)이라 하고, 한결같은 덕을 간직하여 게으르지 않은 것을 간(簡)이라 한다.”는 뜻이다.

우계 성혼의 삶과 철학 인문학 아카데미
2020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파산서원)10쪽

제7회 우계 성혼 선생 춘향제 봉행

- 2019-04-21 오전 10:49:09 유교신문 김용현 기자



▲제관과 집사들이 사당 앞에 서립해 있다.



▲축관이 축문을 독축하고 있다.



▲아헌관이 봉작으로부터 작을 받아 헌작하고 있다.



▲중헌관이 준소에서 작에 술을 따르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우계문화재단(이사장 성호경)과 우계사당제전위원회(도유사 정봉채)가 주최하고 파주시와 파주문화원이 후원한 제7회 우계 성혼 선생 춘향제가 4월 20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성현로 36 우계사당에서 선생의 후손, 유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춘향제에는 박정 국회의원, 성일중 국회의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이성철, 조인원,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원, 우관제 파주문화원장, 이찬호 파주향교 전교, 남덕희 적성향교 전교, 이자이 신사임당 추모선향회 회장, 이용규 매죽헌 현창사업회 이사장, 이천용 율곡 종손, 이돈영 파산서원 원장, 문천기 용주서원 원장, 최복현 자운서원 원장, 성사영묘 이상봉 도유사, 동현단 김형식 도유사, 파주향교 향유회 성기만 회장, 황수진 파주시청 문화교육국장, 장문규 파주읍장, 김순태 파주시청 문화예술과장 등이 참석했다. 춘향제 후에는 사당 앞 뜰에서 문화행사가 있었다.

우계문화재단 성기철 이사는 우계 성혼 선생의 소개를 하며,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제례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계 선생은 의병장 조현, 김집 등 200여 명에 이르는 문인을 배출했다. 자신을 바르게 닦아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한다는 우계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실천도학은 정신문화교육의 지표일 것이다. 우계의 사상은 파주 문화적 전통과 긍지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신적 유산으로 국민정신 교육의 선양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춘향제는 거안례,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됐다. 초헌관은 최종환 파주시장, 아헌관

은 이영복 우계사당 전 도유사, 종헌관은 성호경 우계문화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이상봉 성사영묘 도유사의 집례로 봉행했으며, 묘사에 윤방현 장의, 대축에 김형식 동헌단 도유사, 당하집례에 성기영 KBS 아나운서 국장, 알자에 정해청 장의, 봉향에 박명인 장의, 봉로에 안용승 장의, 전작에 정재열 장의, 내봉작에 유태원 장의와 황사연 장의, 사준에 황해연 장의, 사세에 이명로 장의, 도기에 방초영당 조석래 도유사, 사회에 노보배 장의가 각각 맡았다.

제례봉행이 끝난 후 본 제례를 주최한 정봉채 우계사당제전위원회 도유사는 “참석한 내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춘향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성호경 우계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계 선생의 사상은 지금과 같이 빠르게 현대사회에서도 변함없이 이어받아야 할 도덕이며 철학이다. 이번 춘향사는 하나의 제례를 넘어 축제로 발전시키고 했다"라고 말했다.

초헌관을 맡은 최종환 파주시장은 인사말에서 “파주는 구봉송익필, 우계 성혼, 율곡 이이 등 세 큰 인물의 고장이다. 이들 세 분은 한 살 터울로 태어났고 학문적으로 모두 아주 뛰어났다. 서로 정치적 입장은 다르면서도 서로 우정은 변함없이 돈독했다. 앞으로 훌륭한 우계 정신을 계승하여 세상에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 후 박정 국회의원, 성일중 국회의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이용규 매죽헌현창사업회 이사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정봉채 우계사당제전위원회 도유사가 인사말



▲성호경 우계문화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정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일중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례 봉행을 마치고 제관, 집사 등이 기념 촬영

우계 선생 춘향제 후 문화행사 개최



▲ 이경자 선생 외 4명이 합창을 하고 있다.



▲천리향 홍익효충예절문화원 원장이 성호경 우계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족자를 전달하고 펼쳐보이고 있다.

우계문화재단(이사장 성호경)과 우계사당제전위원회(도유사 정봉채)가 주최한 우계 성혼 선생 제례 후 문화행사가 4월 20일 12시부터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성현로 36 우계사당 앞 마당에서 300여 명의 참배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무대에서 우계 선생 시조 족자 전달, 한시창(漢詩唱), 영어 시 낭송, 플룻 4중주 연주가 있는 가운데 단 아래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진행됐다.

먼저 하얀 두건과 도포를 입은 천리향 홍익효충예절문화원 원장이 우계의 시조를 붓글씨로 써 만든 족자를 우계문화재단 성호경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관객에게 펼쳐 보였다. 이 시는 과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우계 선생의 대표적인 시조이다.

이어 성균관 전의이며 전례사인 이재철 선생의 우계 선생의 한시 창이 있었다. 도포를 입고 유건을 쓰고 무대에서 앉아서 두루마리에 쓴 한시를 창으로 읊었다. 근래에 보기 드문 명창으로 많은 관객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에 읊은 창은 시냇가에서 봄날이라는 계상춘일(溪上春日)라는 제목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五十年來臥碧山 푸른 산 속에서 오십년을 사는데
是非何事到人間 인간사 시비 될 일 무엇이라
小堂無限春風地 조그만 집에 봄바람 끝없이 이는데
花笑柳眠閒又閒 꽃은 웃고 버들가지 잠자는 듯 한가하구나.



▲ 이재철 선생이 “계상춘일” 제목의 한시창을 하고 있다.

이어서 우계의 시와 시조를 전한준 선생이 작곡한 곡을 이경자 선생 외 4인이 합창을 했고, 우계 선생의 시 일부가 하와이대학 “Anthology of Korean Literatur”에 번역된 것을 성의순 선생이 영어로 낭송했다. 끝으로 성기선 이화여대 교수의 지도로 이화여대 플룻 4중주단의 연주가 있었다. 성기선 교수는 우계 선생의 14대손으로 줄리어드 음대 교수, 뉴욕 심포니에타 음악감독을 역임했고 현재 이화여대 교수로 강남심포니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이날 문화행사의 참석자들은 “그간 우리의 제례 의식은 근엄하게 내려오는 전통으로 제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번 우계 선생의 춘향제 후 문화행사는 제례를 넘어 하나의 문화 축제로 발전시켰다.”며 이구동성으로 주최 측의 노고를 치하했다.



▲성의순 선생이 영시를 낭송하고 있다.



▲성기선 이화여대 교수의 지도로 이화여대 플룻 4중주단이 연주를 하고 있다.



▲플룻 4중주단이 연주하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음식을 들고 있다.

접수 번호	
----------	--

2020파주인물축제 프로그램 공모 신청서

신청 인	단체명/성명	(재)우계문화재단	대표 자명	성호경
	주 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365-11		
연 락 처	연 락 처	(단 체)02-2601-8515 (담당자) 010-8310-****	E-m ail	woogyee@ hanmail.net
		공모부문	우계 문화제 한마당 (제1회 우계문화제)	

■ 세부 제안 설명

1. 제안취지 : 한국은 세계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개인주의, 빈부격차, 남북간 대치, 코로나19 등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런 시기에 지금 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우계 성훈 선생의 삶과 사상을 고찰하고 널리 알려 국가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실행방법
 - (1) 프로그램 : 고유제, 개막식, 공연, 백일장, 학술강연, 체험행사 등을 우계 선생의 정신문화 유산과 결합하여 프로그램 편성
 - (2) 시행 : 성균관대 한국철학인문문화연구소와 협의 강연회를 하고 파주 글벗문화회와 협의하여 백일장을 함.
 - (3) 홍보 마케팅 : 전단지, 현수막을 제작하여 배포 및 부착하고 인간 언론 매체 및 인터넷 기사를 병행하여 행사 홍보
3. 참여규모 : 500명 내외
4. 소요예산 : 16,100,000원(자가부담 제외)
5. 기대효과 : (1)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산 우계 성훈의 도학정신을 배우고 파주의 역사 문화적 뿌리를 찾아 파주 시민의 정체성 정립에 기여 (2) 우계성훈선생의 조울과 화합정신을 재조명하여 국민 계도와 교육의 도장 역할

본인(단체)은 상기 공모 신청과 관련하여 귀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제반사항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공모제안서가 채택되면 귀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증빙 서류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0년 4월 28 일

신청인 : (재) 우계문화재단 이사장 성호경 (서명)
파주문화원장 귀하

제1회 우계문화제 사업계획서

◇ 행사계획

시 간	본 행사	학술 · 문예행사	체험 · 부대행사
10:00~10:45	고유제 - 유립전통제례	우계 백일장 (10:00~12:00)	체험행사 (13:00~14:00) - 붓글씨 쓰기 - 전통다 례 체험 - 전통놀 이 체험 - 우계기 념관관람
10:45~11:00	개막공연 - 난타		
11:00~11:30	개막식 - 개회선언 - 개회사 - 축사 - 내빈소개		
11:30~12:00	축하공연 - 음악 연주회 - 우계시조, 합창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우계학술 강연회		
14:00~14:30	전통춤사위		
15:00~15:30	백일장 시상식 및 우수작품 낭독		
15:30~	폐회		

◇ 예산계획

(금액 : 원)

항 목	예 산	세 부 내 역
고유제	1,000,000	체수비 : 1,000,000
학술·문예행사	1,500,000	학술강연료 : 700,000 백일장 800,000(시상금 제외)
공연단체지원	2,800,000	난타 : 1,000,000 음악연주회 : 800,000 전통춤 : 1,000,000
시설비	2,500,000	음향 : 1,000,000 시설, 물품임대 : 1,500,000
진행비	7,300,000	식대 : 4,000,000 보험 : 500,000 교통통제 : 500,000 차량지원 : 600,000 부스참가단체 지원 : 500,000 비품비 : 700,000 인건비 : 500,000
홍보 · 마케팅 비	1,000,000	전단 : 500,000 현수막 : 500,000
합 계	16,100,000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2020파주인물축제』의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 및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사업운영에 따른 참여자 정보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속 등

○ 개인정보 이용 방법

- 본 사업에 참여한 개인의 정보는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파주문화원 업무 처리시에만 사용

2020년 4월 28일

단체명 : (재)우계문화재단 이사장 성호경 (인/서명)

서 약 서

단체명 : (재)우계문화재단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365-11

대표자 : 이사장 성호경

『2020파주인물축제』 프로그램 공모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서류와 증빙자료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이후에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4월 28일

단체명 : (재)우계문화재단 (직인)

파주문화원장 귀하

단체 소개서

단체 목적	우계문화재단은 문간공(文巒公) 우계(牛絃) 성혼(成渾) 선생의 도학정신과 성리사상을 국내외로 널리 연구·보급하여 동양사상 및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7년에 설립되었다. 본 재단은 우계 선생의 학술 선양 사업과 문화 전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계 선생의 성리·교학·경세사상을 국내외에 연구·소개·보급하고, 이를 토대로 논문집 간행, 세미나 개최 및 한국학 원류로서의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우(祠宇)와 묘역 관리, 각종 학술 연구 및 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	학술지 발간(우계학보) 학술총서 발간 학술대회 개최 세미나(폴리키움) 개최 춘향제 개최						
조직 체계 (구성)	이사회 : 이사장 외 이사 10명 감 사 : 성기일, 성하현 사무국 : 사무국장(상임이사 겸임) 직원1명						
주요 연혁	1987.7.11. 재단 설립허가						
추진 실적	사업명		사업기간(일시)		장소		비고
	학보발행(1~36집)		1990 ~ 현재		우계문화재단		
	학술대회		1998 ~ 2019		성균관 유림회관		
우계학총서(1집~3집)		1998 ~ 2018		우계문화재단			
회원 명단	성명	주소	전화	E-mail	전공·경력	직업	
	1	성호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010-3929-		우계문화재단	이사장
	2	성유경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010-3929-		우계문화재단	상임이사
	3	성의순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010-3213-		우계문화재단	교육부장
	4	최일범	서울 종로구 명륜3가	010-4153-		한국철학, 성균관대	교수
	5	조장연	서울 성북구 장월로 1길	010-42838		유학, 성균관	책임연구원
	6	정도원	서울 종로구 명륜3가	010-5437-		한국철학, 성균관대	교수
	7	강보승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010-5437-		한국철학, 성균관대	책임연구원
	8	진성수	전북 전주시 덕진구	010-9776-		유학, 전북대	교수
	9	김동민	서울 종로구 명륜3가	010-9722-		동양철학, 성균관대	교수
10	최영갑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010-3473-		유학, 성균관재단	상임이사	

독서토론 멘토 양성과정 안내

1. 제목 : 제3회 독서토론한마당 멘토 양성과정
2. 일시 : 토요일과정 : 10:00 - 12:00
토요일 과정 : 11월(9일, 16일, 30일) 12월(7일, 14일)
3. 장소 : 파주중앙도서관 4층 문화교육실
4. 모집인원 : 20명 내외
5. 퍼실리테이션(강사) : 최봉희
5. 참가비 : 5만원(식사비와 간식비)
6. 주관 : 사람책협동조합
7. 후원 : 파주중앙도서관, 우계문화재단
8. 특전 : 제3회 청소년독서토론한마당 멘토 활동
9. 행사일 : 2019.12.14.(토) 10:00~16:00
10. 문의 : 010-2442-1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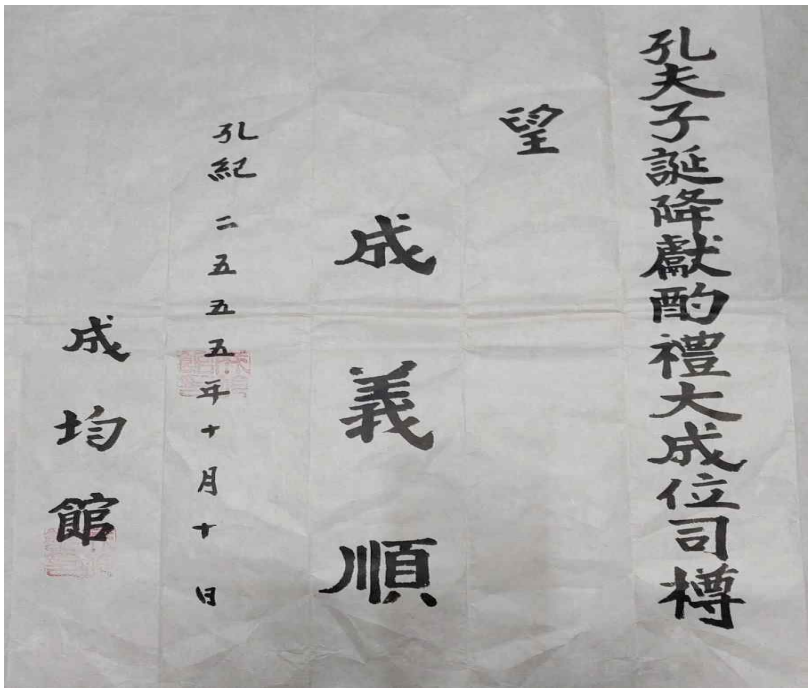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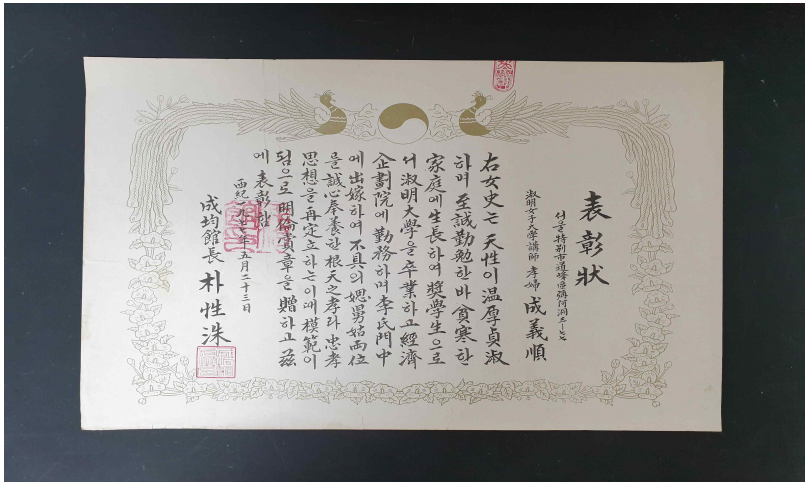


사람책협동조합

제3부

늦어도 성공관에서서

늦아라





교육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성의순

■ 행사명 : 고결한 선비 우계 성 혼 선생을 만나다.

- 일 자 : 2019년 07월 03 (수) 10:00 ~ 12:00
-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금릉중학교 5층 시청각실 300명
2교시 : 10:00 ~ 11:00 천리향선생 교육봉사
3교시 : 11:00 ~ 12:00 성의순선생 교육봉사



경기도 파주시 금릉중학교 1학년생 300명을 강당에서 2교시 수업을 천리향 선생이 교육봉사를 하였다.

우계 성 혼선생의 사상과 생명존중에 대하여 강의



3교시 수업을 성의순 선생이 교육봉사를 하였다.
금릉 중학교 인사, 인사는 내가먼저 함께 울동으로
금릉 금릉 금릉!!! 하였다.



우계 성 혼선생의 시조와 시를 학생들과 함께 낭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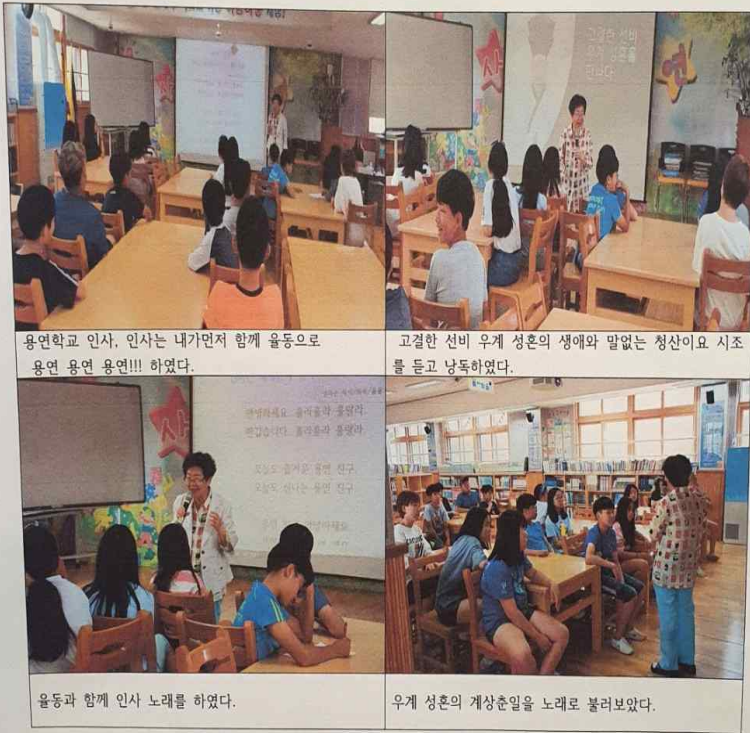
교육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성의순

■ 행사명 : **고결한 선비 우계 성 혼 선생을 만나다.**

• 일 자 : 2019년 07월 15일 (월) 10:00~10:40

•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용연초등학교

2교시 : 10:00~10:40 5학년 8명 + 6학년 11명 = 19명



교육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성의순

■ 행사명 : 제기 만들어 차기체험

- 일 자 : 2021년 07월 09일 (금)
- 장 소 : 포훈회 교육장소

1 ~ 2교시 : 10:00 ~ 12:00 제기 만들기 PPT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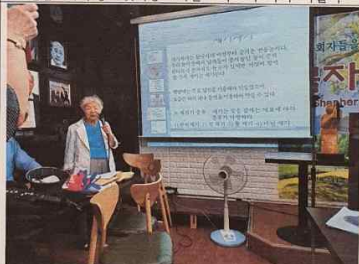
포훈회 벗님들 단체사진
제기를 직접 만들고 제기차기를 했습니다.



무수옹(無愁翁) 이야기 < 근심 없는 노인(老人) >
<배역(配役)> •해설(解說) •동네사람1 •동네사람2
•입금 •무수옹 •뱃사공 •아들 •며느리 각자 역할극



제기 차는 방법 : 땅강아지, 열렁이, 양발차기



제기는 삼국시대부터 차기시작 했다.
특히 신라시대 화랑도들이 하체근육 발달하기 위하여

교육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성의순(成義順)

■ 행사명 : **고결한 선비 우계 성 혼 선생을 만나다.**

• 일 자 : 2019년 07월 18일 (목) 09:10 ~ 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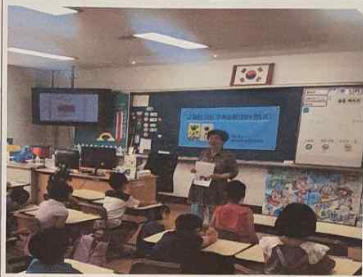
•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신산초등학교

1교시:09:10~09:50 1학년1반 17명 2교시:10:00~10:40 1학년2반 16명 = 33명

3교시:10:50~11:30 2학년2반 23명 4교시:11:40~12:20 2학년1반 23명 = 46명



경기도 파주시 신산초등학교 1학년 1반
친구들과 예쁘게 찰카



1학년 2반 친구들과 인사 노래를 불렀어요.



2학년 2반 친구들에게 우계 성혼 선생님의
선비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2학 1반 친구들과 고결한 선비정신을
가슴에 새기기로 구호를 외쳤어요.

2019.07.18.(목) 09:10~12:20 성의순 010-3213-9186 메일 : toa3213@hanmail.net


파주교육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봉사자명: 성 의 순 ■ 연락처: 010-3213-9186

구 분	내 용					
활동명	열두 띠 동물 이야기					
대면 여부	대면 가능 (교실방문)		비대면 가능 (zoom 등 온 라인)		모두 가능 (교실+온라 인)	0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소요 시간	1시간(조정 가능)					
준비물	① 자기 띠 동물 색칠하기 할 경우만 색칠도구 준비 해 주세요. ② 동물 머리띠 쓰고 역할극도 할 수 있어요. * 빔프로젝터, 스크린(PPT 활용)					
활동 소개	<p>옛날부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자기 띠가 있어요. 나의 띠를 알아보아요. 우리 조상들은 태어난 해의 주인인 동물의 성격을 타고난다고 믿었지요. 재미있게 알아가는 열두 띠 동물 이야기를 알아보아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열두 띠 동물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역할극 하기 2. 열두 띠 동물 이야기를 하고 자기 띠 동물을 그리고 색칠하기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⑤ 당신은 누구십니까? ■ ○○○ 나는 용이야. ■ 우르릉 쿵쿵! 우리는 용띠야. ■ 물로 생명을 키우는 용은 ■ 상상의 동물로, "높은 곳에 목표를 ■ 두고 힘차게 올라갑니다." </div> </div>					

2021파주교육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봉사자명: 성 의 순 ■ 연락처: 010-3213-9186

구 분	내 용					
활동명	무계원 서당 체험					
대면 여부	대면 가능 (교실 방문)		비대면 가능 (zoom 등 온라인)		모두 가능 (교실+ 온라인)	0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소요 시간	1시간(조정 가능)					
준비물	색연필, 크레파스 * 빔프로젝터, 스크린(PPT 활용)					
활동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父, 母, 孝, 忠, 禮 필순에 맞게 색칠하기 - 부 모 효 충 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자기생각을 발표하기 					

2021 파주교육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봉사자명: 성 의 순

■ 연락처: 010-3213-9186

구 분	내 용					
활동명	정월에 복주머니 만들기					
대면 여부	대면 가능 (교실 방문)		비대면 가능 (zoom 등 온라인)		모두 가능 (교실+ 온라인)	○
대상	초등학교 5~6학년					
소요 시간	1시간(조정 가능)					
준비물	오방색한지, 지끈, 우유팩, 연필, 자, 가위, 풀. (재료비 1,000원) * 빔프로젝터, 스크린(PPT 활용)					
온라인 수업 소개	복주머니 만들기 - 설날 아이들이 세배를 하면 어른들은 붉은 콩을 넣은 주머니를 주었어요. - 설날 허리춤에 매달고 새해를 맞아 만복이 깃들기 바라던 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기타	내가 만든 복주머니를 바라보며 서로서로 이야기하며 좋아합니다.					


2021 파주교육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봉사자명: 성 의 순 ■ 연락처: 010-3213-9186

구 분	내 용					
활동명	효 교육					
대면 여부	대면 가능 (교실 방문)		비대면 가능 (zoom 등 온라인)		모두 가능 (교실+ 온라인)	0
대상	초등학교 5~6학년					
소요 시간	1시간(조정 가능)					
준비물	색연필 * 빔프로젝터, 스크린(PPT 활용)					
온라인 수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님을 기쁘고, 슬프게 해드린 경험 적어 보기 - 부모님께 힘이 되는 말 이야기 나누기 - 나는 부모님을 얼마나 알까요? 					
기타	부모님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선물!					

2021 파주교육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봉사자명: 성 의 순 ■ 연락처: 010-3213-9186

구 분	내 용					
활동명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대면 여부	대면 가능 (교실 방문)		비대면 가능 (zoom 등 온라인)		모두 가능 (교실+ 온라인)	0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소요 시간	1시간(조정 가능)					
준비물	신문지 약간(붓글씨 쓰기 할 경우만 필요, 먹물이 묻지 않아요~) * 빔프로젝터, 스크린(PPT 활용)					
활동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계 성혼의 시조와 시를 낭독하고 합창한다. - 파주의 삼현 율곡 이이, 우계 성혼 구봉 송익필의 우정을 알아본다. 					
기타	만화로 보는 우계 성혼					

2021 파주교육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봉사자명: 성 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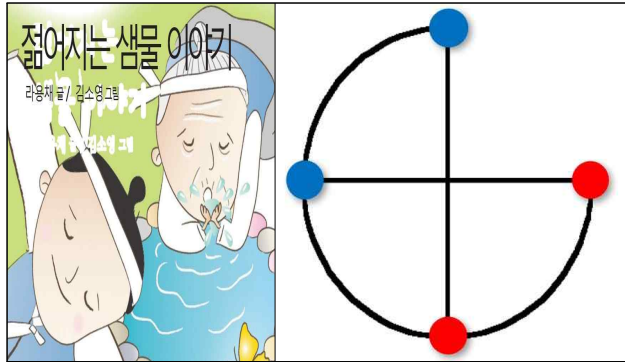
■ 연락처: 010-3213-9186

구 분	내 용					
활동명	오월 단오에 오색면 실로 장명루 짜기					
대면 여부	대면 가능 (교실 방문)		비대면 가능 (zoom 등 온라인)		모두 가능 (교실+ 온라인)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소요 시간	1시간(조정 가능)					
준비물	오방색 면실 (재료비 1,000원) * 빔프로젝터, 스크린(PPT 활용)					
온라인 수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색 면실로 장명루 팔찌 짜기 - 아이의 수명과 안전을 바라는 단오 풍속 					
기타	내가 장명루 짜서 팔에 걸고 서로서로 이야기하며 좋아합니다.					

2021 파주교육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봉사자명: 성 의 순

■ 연락처: 010-3213-9186

구 분	내 용					
활동명	젊어지는 샘물 이야기 - 우물고누					
대면 여부	대면 가능 (교실 방문)		비대면 가능 (zoom 등 온라인)		모두 가능 (교실+온라인)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소요 시간	1시간(조정 가능)					
준비물	우물고누(고누놀이) 판, 말 4개씩 강사가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 빔프로젝터, 스크린(PPT 활용)					
온라인 수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씩 신나게 우리전통놀이 우물고누를 합니다. - 우물고누 놀이에서 이긴 편은 "샘물 마시러 갑시다! 이~야 이~야 호~!" 					
기타	전통놀이 우물 고누놀이는 지능놀이로 두뇌 발달에 좋아요!					

2021 파주교육자원봉사활동 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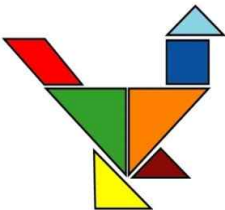
■ 봉사자명: 성 의 순 ■ 연락처: 010-3213-9186

구 분	내 용					
활동명	제기 만들어 차보기					
대면 여부	대면 가능 (교실 방문)		비대면 가능 (zoom 등 온라인)		모두 가능 (교실+ 온라인)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활동 시간	1교시~2교시(조정 가능)					
준비물	오방색 미룡한지, 따리쇠, 볼펜. (학교 재료 구입 1인당 1,000원) * 빔프로젝터, 스크린(PPT 활용)					
온라인 수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기차기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즐겨 놀던 전통놀이 - 논다는 것은 살아있다, 건강 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 - 놀이방법 : 땅강아지, 혈령이, 양발차기, 종들이기, 끝내기. <p>* 신라시대 화랑도들이 하체근육 발달하기 위하여 제기차기하였다.</p> 					
기타	내가 만든 제기차기를 하면서 서로서로 이야기하며 좋아합니다.					

2021 파주교육자원봉사활동 계획서

■ 봉사자명: 성 의 순

■ 연락처: 010-3213-9186

구 분	내 용					
활동명	칠교 접기 놀이 체험					
대면 여부	대면 가능 (교실 방문)		비대면 가능 (zoom 등 온라인)		모두 가능 (교실+온라인)	○
대상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소요 시간	1시간(조정 가능)					
준비물	색종이, 자, 연필, 가위, 풀, A4용지 1장 * 빔프로젝터, 스크린(PPT 활용)					
온라인 수업 소개	<p>- 7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도형을 이리저리 움직여 다양한 형상을 만드는 놀이. - 인물, 동물, 식물, 건축물, 지형, 글자 형을 만들 수 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칠교 (七巧) 놀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7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도형을 이리저리 움직여 다양한 형상을 만드는 놀이 <p>* 예전에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이나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에 지루하지 않게 놀이판을 내어놓아 이를 유객판(留客板) 또는 유객도(留客圖)라고도 하였다. 이것으로는 인물·동물·식물·기물·건축물·지형·글자형 등 100여 개 만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모형을 그린 대본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p>  </div>					
기타	전통놀이 칠교 접기 놀이체험은 지능놀이로 두뇌발달에 좋아요!					

♣ 십이지간(十二支干)의 역사 ♣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의 십이지의 순서에 십이지(十二支)의 개념은 중국(中國)의 은(殷)나라에서 시작되어, 한나라 중기에 이르러 방위나 시간 대응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의 십이지(十二支)의 순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화(說話)가 있다. 동물(動物)의 발가락 수를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 각 시(時)에 활동하는 동물 순으로 정했다는 설, 정월 초하루에 제일 먼저 천상의 문에 도착한 동물 순으로 정했다는 설 등이다. 이중 각 시(時)에 활동하는 동물 순으로 순서를 정했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1. 쥐(子)

십이지의 첫 번째 동물인 쥐는 달로 치면 11월,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1시까지를 가리킨다. 쥐는 영리하고 재빠른 동물로 재앙이나 농사의 풍흉, 뱃길의 사고를 예견해 주는 영물로 인식 되어왔다. 쥐의 왕성한 활동력과 번식력은 예지와 다산, 근면, 재물과 부를 상징한다. 옛말에 쥐미는 평생 먹을 것 걱정 없이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근면하고 활동적인 쥐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2. 소(丑)

십이지의 두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12월, 시간은 오전 1시부터 3시까지를 가리킨다. 농경사회에서 소는 농사일하는 데 꼭 필요한 짐승으로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소는 농사의 신으로서 부와 풍요, 힘을 상징한다. 꿈에 등장하는 소는 조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의 형국에 뿔자리를 쓰면 자손이 부자가 된다는 말도 이러한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3. 범(寅)

십이지의 세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1월, 시간은 오전 3시부터 5시까지를 가리킨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범이 산의 신으로 숭상되고 있으며, 절에서도 산의 신으로 범을 모시고 있다. 하지만 민화, 설화 속에서 호랑이는 인간을 돕거나 인간의 도움을 받으면 은혜를 갚는 등 보다 친근한 존재로 그려진다.

4. 토끼(卯)

십이지의 네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2월, 시간은 오전 5시부터 7시까지를 가리킨다. 호랑이를 속이는 토끼, 자라를 속이는 토끼 등 전설 속에서의 토끼는 의롭고, 피 많은 동물로 등장한다. 행동이 민첩하여 심부름꾼이나 전령의 역할을 도맡는 토끼는 유교적인 의미에서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민간 설화에서 옥토끼는 달에 살면서 떡을 찧거나 불사약을 만든다고 전해진다.

5. 용(辰)

십이지의 다섯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3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를 가리킨다. 용은 못이나 강, 바다와 같은 물 속에 살며, 비나 바람을 몰고 다니는 상상의 동물이다.

농경사회에서 군왕과 용은 동급으로 간주되어 임금의 얼굴은

용안, 임금의 평상은 용상, 임금의 옷은 곤룡포로 불렸다. 신라의 30대 문무왕의 죽어서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으니 동해에 물어달라는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해중능의 일화는 유명하다. 또한 용꿈은 출세를 상징하는 길몽으로 여겨진다.

6. 뱀(巳)

십이지의 여섯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4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를 가리킨다. 이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털과 발이 없는 생김새가 혐오감을 주고, 독을 품고 있어 인간에게 해를 주기 때문이다. 전설 속에서도 뱀은 간사스럽고 세속적인 동물로 그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나 땅굴, 물에서도 살 수 있는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다. 민간에서는 구렁이 꿈은 아들을 낳는 태몽이라며 반겼다.

7. 말(午)

십이지의 일곱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5월,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를 가리킨다. 외모에서 전해지는 생동감, 뛰어난 순발력, 탄력 있는 근육, 미끈하고 탄탄한 체형, 기름진 모발, 각질의 말굽과 거친 숨소리 등 말이 주는 인상은 강인하다. 이러한 말의 이미지는 고대 원시미술이나 속담, 시가 등의 소재로 자주 쓰였다. 신라의 건국신화를 보면 말이 하늘에서 가져온 알에서 시조가 태어났다고 전해지는데, 여기서 말은 천사의 구실을 한다.

8. 양(未)

십이지의 여덟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6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를 가리킨다. 양에 대한 이미지는 순하고 어질고 착하며 참을성 있는 동물, 은혜를 아는 동물로 수렴된다.

무리를 지어 군집 생활을 하면서도 동료간의 우위 다툼이나 암컷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이 없고 반드시 가던 길로 되돌아오는 지식한 습성을 지닌 양은 설화, 꿈, 속담 등에서도 유순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상서로운 동물로 그려진다.

9. 원숭이(申)

십이지의 아홉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7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를 가리킨다. 원숭이는 동물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재주 있는 동물로 꼽힌다. 또한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동물로 부모 자식간의 극진한 사랑이나 부부지간의 애정은 사람을 뺀칠 정도로 섬세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인용되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은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10. 닭(酉)

십이지의 열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8월, 시간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를 가리킨다. 예로부터 닭은 상서롭고 신통력을 지닌 서조로, 새벽을 알리는 우렁찬 닭의 울음소리는 한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서곡으로 받아들여졌다.

흔히 닭에는 다섯 가지 덕이 있다고 하는데, 닭의 벼슬은 문(文)을, 발톱은 무(武)를 나타내며 적을 앞에 두고 용감히 싸우는 것은 용(勇)이며, 먹이를 보고 소리를 내어 무리를 부르는 것은 인(仁), 때를 맞추어 울어서 새벽을 알리는 신(信)이라 했다.

11. 개(戌)

십이지의 열한 번째 동물로 달로 치면 9월,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를 가리킨다. 개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인간의 주변에 항상 존재해 왔으며, 때문에 개는 동서를 막론하고 인

간에게 헌신하는 충복의 상징으로 가장 우호적인 동물로 여겨진다.

삼국유사에서는 백제의 멸망에 앞서 사비성의 개들이 왕궁을 향해 슬피 울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꿈에 등장하는 개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2. 돼지(亥)

십이지의 열두 번째로 달로 치면 10월, 시간은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돼지를 부와 복의 상징으로 여겼다. 돼지 꿈, 돼지 그림 등은 길한 상징으로 재산이나 복의 근원, 집안의 재물의 신을 의미한다. 돼지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 풍습도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돼지는 기후, 풍토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로 알려져 있다.

1841. 십이지(十二支) 노래

1841-2019 02 01

作詞: 靑草 전한준 改詞
作曲: 전한준 靑草 全漢俊

자축인묘진사오미 신 유 슬해 동물이름은 무엇일까요
子丑寅卯辰巳午未 申 酉 戌亥

자子是쥐 요 축丑은 소요 인寅은어 흥 호 랑 이
묘卯는 토 끼 진辰은 용 사巳는뱀 오午는 말 미未는 양

신申은 원 송 이 유酉는 꼬꼬닭 이 지 요
술戌은개 해亥는 돼 지 열두동물모 두 모 였 네

자축인묘진사오미 신 유 슬해 이를말해십이지라 하지요
子丑寅卯辰巳午未 申 酉 戌亥 十二支

십간	십이지	동물
갑(甲)	자(子)	쥐
을(乙)	축(丑)	소
병(丙)	인(寅)	호랑이
정(丁)	묘(卯)	토끼
무(戊)	진(辰)	용
기(己)	사(巳)	뱀
경(庚)	오(午)	말
신(辛)	미(未)	양
임(壬)	신(申)	원숭이
계(癸)	유(酉)	닭
	술(戌)	개
	해(亥)	돼지



=작곡 번호-1840

& 순:1840 #제목:아버님 날 낳으시고 #작사자:정철 #작곡일:2019.02.01

1840. 아버님 날 낳으시고

1840-2019 02 01

作詞: 송강 松江 鄭澈
作曲: 진한준 靑草 全漢俊

아 버 님 날 낳으 시 고 어 머 님 날 기 르 시 니
두 분 곳 아 니 시 면 이 몸 이 살 았 으 라
하 늘 같 은 은 덕 을 어 디 에 다 갚 을 까
恩 德

아바님 날 낳으시고 아바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질까
하늘 같은 은덕(恩德)을 어디 다 갚으랴

아버이 사라진 채 성길 일탄 다홍여라.
디나간 후면 애타다 앓디홀리
평심(平生)에 못더 못을 일이 잇편인가 호노라.



松江 鄭澈

父生我身(부생아신)하시고-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母鞠我身(모국아신)이로다-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다.
<靑草日記> 2019. 02 01(금)

書堂敎室에서 四字小學 첫 구절에 나오는 文句를 지도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항상 질문을 한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줄 알고 있는데 왜 아버지가 낳으셨다고 하는가요? 그래서 내가 四字小學을 읽으면서는 아예 아버지 내 몸을 낳게 하시므로 바꾸어 놓았다. 그랬더니 또 질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낳게 하셨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답변을 한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性教育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란 두 글자로 간단히 답변하라고 한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선생님께 질문도 잘하지 못했던 분위기에서 자랐다. 지금의 분위기와는 隔世之感을 느끼게 한다. 내가 교육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시기였는데 문화시설도 없고 하여 순진하기가 바보스러웠던 수준이었다. 그 당시 선생님은 화장실도 가지 않는 神의 존재로 알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는 감쪽 놀란 친구가 뛰어와서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소변을 보신다고 보고를 했었던 사례를 보더라도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을 하게 한다.

=작곡 번호-1844

& 순:1844 #제목:말 없는 청산(靑山)이요 #작사자:진태하 #작곡일:2019.02.02

1844. 말 없는 청산이요

1844-2019 02 02

作詞 : 우계 성혼 牛溪 成渾
作曲 : 진한준 靑草 全漢俊

말 없는 靑山이요 태 없는 流水로다
값 없는 靑風이요 입 자 없는 明月이라
이 중 에 병 없는 몸이 分別 없이 늙으리 라

[경기도의 미래, 길을 묻다] 우계 성혼

우계 성혼 (1562-1623) -
[경기도의 미래, 길을 묻다] 우계 성혼
한양에 세조가 왕이 되자, 성혼은 1592년 1월 15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1594년 1월 15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1594년 1월 15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지식과 행동,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함을 이르는 지행일치(知行一致)와 언행일치(言行一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적자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마음가짐이다.

우계재단 2018. 05. 05 - 2 - www.우계재단.com



단동십훈(檀童十訓)

단군시대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우리민족의 전통 육아법.

10가지 교훈이 담긴 동작으로 최초의 육아교육법.

1훈. 불아불아(弗亞弗亞) - 귀한 아가 - “세상의 빛이 되거라”
하늘로부터 온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

2훈. 시상시상(詩想詩想) - “어른을 공경하고 순종 하여라”
아기 몸에 우주가 있으니 우주의 섭리에 순응하라는 의미

3훈. 도리도리(道理道理) - “우주만물의 도리를 깨달아라”
천지 만물이 하늘의 도리로 생겨났으니 이에 맞게 살라는 의미

4훈. 지암지암(持闇持闇) - “진리를 헤아려 깨달아라”

혼미한 것(闇)을 두고두고 헤아리며 가려서 파악하라는 의미

5훈. 곤지곤지(坤地坤地) - “천지간의 조화를 알아라”
땅(坤, 地)의 이치를 본받아 음양의 조화를 이루며
덕을 쌓으라는 의미

6훈. 섬마섬마(西摩西摩) - “힘있게 바로 서서 발전해 나가라”
몸을 연마해(摩) 옳은 일을 행하며 독립적으로 살라는 의미

7훈. 업비업비(業非業非) - “위험한 것은 하지 말아라”
이치(業)에 맞지 않는 행동을 삼가라는 의미

8훈. 아함아함(亞含亞含) - “아 ~~~~”
두 손으로 ‘아(亞)’자를 이루어
아가가 작은 우주임을 알리는 의미

9훈. 짹짹 짹짹(作作弓 作作弓) - “손뺨 치며 춤춰라”
손바닥을 맞부딪쳐 천지의 조화를 피하고
하늘의 이치를 알라는 의미

10훈. 질리아비 훨훨의(地羅阿備 活活議) - “나팔 불며 춤춰라”
어떤 질병도 오지 않고 훨훨 날아가 활기차게 자라라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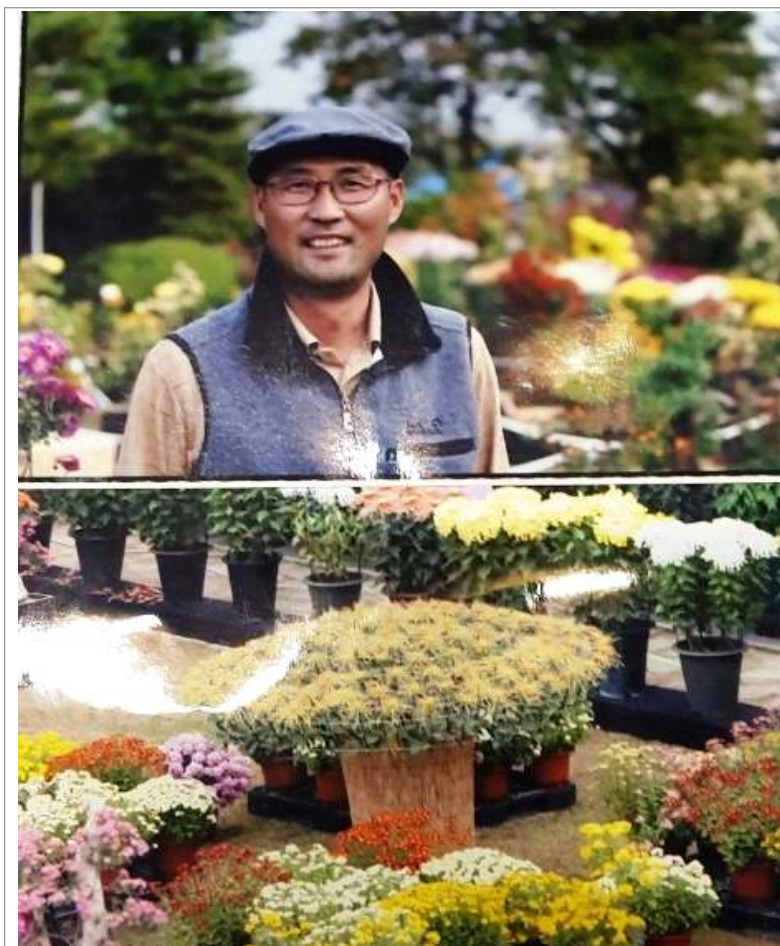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다 - 성의순

■ 행사명 : 제4회 연천성당 국화축제

- 일 자 : 2008년 10월 13일(월) ~ 10월 26일(일)
- 장 소 : 연천성당
- 주 최 : 향기로운 복춘모임



꽃 . 茶 . 詩 음악의 향연
“나도 그대에게 **꽃**이 되고 싶습니다.”



경기도 연천읍 연천성당 전승규 신부



향기로운 북촌모임 : 김대포, 박가린, 이혜정, 김선생님, 이강희, 성의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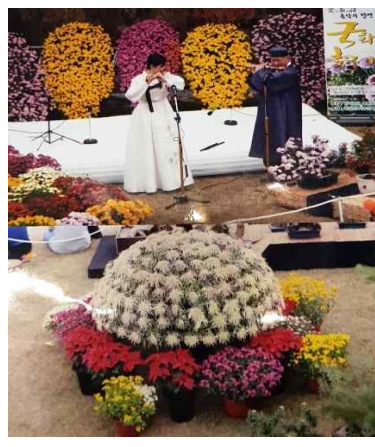
제가 직접 기른 소국



직접 만든 콩가루다식과 국화차



국화 꽃차 한잔의 행복



박가린의 소금과 김대포의 대금연주



날씨 좋고 인심 좋고 분위기 만땅 국화 축제에 오신 팬들 환영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행사명 : 예절교육 : 우리의 절을 배워요.

- 일 자 : 2014년 01월 28일
- 장 소 : 또래또 어린이집



즐거운 설날에 한복 입고 절하기



남자의 절 배우기

한국전통문화연구가

성의순의 우리 전통문화 알리기

■ 행사명 : 2013 Welcome to Korea 세르비아 문화교류의 날

- 일 자 : 2013년 1월 25일
- 장 소 : 그랜드 하얏트 호텔



복(福) 주머니 만들기

우리나라 명절 복주머니에 대한 유래와 함께 한지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지로 만든 복주머니를 참가자들에게 선물로 나누어주었다.



행사 참여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세르비아 대사 부부
| 성의순 한국전통문화 연구가



성의순 북촌 예사랑 문화원장의 선창으로 행사에 참여한 분들과 다 함께 아리랑을 부르며 소중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 행사명 : 용산구 다문화가족 사랑의 기증식

- 일 자 : 2013년 2월 8일
- 장 소 :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랑의 기증식



복(福) 조리 이야기 : 조릿대로 복조리를 만든다. 대나무의 눈이 광명과 복을 불러들인다고 생각하였다. 조리에는 실, 성냥, 엿을 담아 놓았다.

■ 행사명 : 할머니의 구수한 입담으로 듣는 “열두 띠 동물이야기”

- 일 자 : 2014년 5월 12일
- 장 소 : 충남 아산 미래아동 지역센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북촌 예사랑 문화원 성의순 원장 (한국 MGO 신문 2014/06/11)

진짜배기 옛날 이야기로 “신나는 예술여행”



북촌 예사랑 문화원 “열두 띠 동물이야기” 주인공들
(한국 MGO 신문 2014/06/11)

■ 행사명 : 정월 대보름 행사

- 일 자 : 2014년 02월 14일
- 장 소 : 곰달래 도서관



정월 대보름 행사에 주렁구 만들어서 윷놀이 하기



내가 직접 소원지를 써서 붙이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주령구로 신나게 웃놀이 하자

■ 행사명 : 한국 - 영국 수교 130주년 기념

한국의 궁술(활)문화와 런던의 문화상징 빨간 2층 버스 문화교류 행사 Exchange - Experience Korean Traditional Archery (Hwal) and London's Iconic Red Double Decker Bus

- 일 자 : 2013년 10월 20일
- 주 최 : 주한영국대사관 사단법인 대한국궁문화협회
- 후 원 : 서울시 중구청, (주)네비오니어, 한국푸드존, 토탈문화브랜드찬란



한국 - 영국 수교 130주년 기념 행사



한국의 태극기와 영국기



영국 대사 부부



성균관 명덕학당 제15기 민해원, 류재분, 이정례, 이란 원장, 채시라, 김옥란, 성의순



꽃 세기와 장명루



오복 주머니



영국 대사가 주신 가방



복주머니



영국 대사께서 2층 버스를 타라고 친절하게 안내하셨습니다.



한국 대표와 영국대표



승경도 놀이판, 율목, 말 < 관직 놀이 >



영국 대사, 이 란 원장, 정의순



런던의 문화상징 2층 버스



영국 대사 부부와 성의순



동아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

■ 행사명 : 다례교육 : 차 마시는 예절

- 일 자 : 2014년 02월 11일
- 장 소 : 재원몬테소리 어린이집



한복 입고 차 마시고 차 음식 먹기 예절시간



차를 마시면 머리가 좋아지고 눈이 밝아지며 마음이 편안해 진다.



차를 마시면 피부가 고와진다. 차를 마시면 몸이 날씬해진다.

■ 행사명 : 부모효충례교육(父母孝忠禮教育)

- 장 소 : 무계원 서당
- 일 자 : 2014년 08월 12일



무계원 서당에서 친구들과 공부하고 수료식



즐거운 승경도 놀이

신나는 관직 놀이



父 母 孝 忠 禮 筵育



떡살을 찍어서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기



무계원 친구들과 즐거운 투호 놀이



忠자를 필순에 맞춰서 쓰기 교육

■ 행사명 : 성균관 지킴이 봉사활동

- 일 자 : 2016년 08월 27일부터 현재까지
- 장 소 : 성균관, 대성전, 명륜당.
- 주 최 : (사) 문화살림



(사) 문화살림(위례역사문화연구회)는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2018 성균관 지킴이 발대식



2017. 6. 10. 서리청 제조작업



2017. 5. 20. 들기름 입히기



2018. 4. 14.(토) 앞줄 우측 여섯 번째 성의순 봉사자

■ 행사명 : 국립 서울 현충원 꽃 교체작업

- 일 자 : 2018년 09월 08일 토요일 09:00 ~ 12:00
- 장 소 : 국립 서울 현충원 묘역
- 주 최 : (사) 충 효 예 실천운동본부



6.25 때 31090 1951. 10. 09. 강원 양구에서 전사하신 육군하사 성현용 오빠 국립 서울 현충원 53단지



(사) 충 효 예 실천운동본부 김용해 총재와 회원들이 국립 서울 현충원 묘역에서 꽃 교체작업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 행사명 : 2019 실학 어린이날 큰잔치 (교육 : 재능기부)

- 일 자 : 2019년 05월 04일(토)~06일(월)
- 장 소 : 실학박물관 1층 로비, 앞마당, 잔디마당.



2019 실학 어린이날 큰잔치 놀이마당에서 딱지치기, 제게차기, OX퀴즈



활을 만들어서 쏘아 보아요.



차례차례 줄 서서 즐겁게 활 쏘기 하자



안내석에서 고무풍선 만들어서 선물하기







정통 간식 만들기 - 주먹밥, 감자경단 만들기

■ 행사명 : 젊어지는 샘물이야기 + 우물고누 놀이

• 일 자 : 2021년 04월 19일 (월) 10:00 ~ 12:00

•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금화초등학교

	
<p>경기도 파주시 금화초등학교 2학년1반 24명 10:00~10:30 젊어지는 샘물이야기+우물고누 놀이</p>	<p>2학년2반 10:30~11:00 27명</p>
	
<p>2학년 3반 11:00~11:30 27명</p>	<p>2학년 4반 11:30~12:00 24명</p>

2학년1반 : 10:00~10:30 24명, 2반 : 10:40~11:00 27명
 3반 : 11:00~11:30 27명, 4반 : 11:30~12:00 24명 = 총 102명

창작 오페라 '선비'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

- 성의순 성균관 석전교육원 외래강사 출연

2016-10-18 오후 7:40:15 김용현 기자 yongheon716@hanmail.net



- 성의순 석전교육원 외래강사(좌)가 김학남 총예술감독 (좌에서 두 번째)과 공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작 오페라 「선비」가 지난 9월 25일 뉴욕 카네기홀 대극장 아이직스턴홀에서 2,800석 좌석을 관중이 꽉 메운 가운데 공연을 했다. 우리 오페라 역사상 카네기홀 공연은 처음이었다. 연출은 윤태식, 의상은 박지연, 장신구는 김민휘 작가와 정재인 디자이너가 맡았다.

‘선비’는 백성의 어지러운 마음을 보듬고 선비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소수서원을 건립하려는 의로운 선비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선비들의 사랑을 그린 오페

라다. 지난해 한국오페라 대상에서 창작 오페라로는 최초로 대상을 받았다.

여주인공 유교선 역을 맡은 소프라노 김지현 상명대 교수는 “한국 창작 오페라가 작품성을 인정받아 카네기홀 무대에 섰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며 “안빈낙도(安貧樂道),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무거운 주제가 담긴 오페라에 미국인들이 이렇게 호응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예술 총감독을 맡은 김학남 회장(대한민국 오페라단연합회장)은 “세계가 우리나라 오페라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의 오페라 중심국으로 주목받게 되었지만, 세계 오페라 중심국은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도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오페라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시점을 맞아 우리나라와 세계 오페라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선녀 역을 맡았던 성의순 성균관 석전교육원 외래강사는 정통 오페라 음악에 우리 국악 가락을 살려 ‘선비정신’을 표현하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으나 기립 박수를 받고는 출연자 모두가 울컥했다”고 전했다.

■ 행사명 : 제3회 사람책 독서토론 한마당

우계 성혼을 읽다

2019. 12. 18

파주시 광탄중학교

사람책협동조합·성혼
우계재단·광탄중학교



- 일시-2019. 12.18 오전 09:10-12:40
- 장소-파주시 광탄중학교
- 참여인원-광탄중학교 230명(전교생)/우계재단
7명/사람책협동조합 20명
- 도서-우계 성혼(전기물)
- 방법-비경쟁식 자율 독서 토의 및 토론, 퀴즈,
조별 발표
- 협력사항-사람책협동조합,우계재단, 광탄중학교,
파주·연천축협 장학회

▣ 프로그램 시간표(전체)

1교시 09:10-09:30	우계 성훈 책읽기(교실)
2교시 09:40-10:25	마음나누기, 아이스브레이킹 독서토의 및 토론(교실)
3교시 10:35-11:20	각반에서 독서토론(교실)
4교시 11:40-12:40	퀴즈, 발표 및 개폐식(강당)

▣(멘토의 시간 세부 프로그램)

- 2교시 - 마음열기(5분) 좋은 문장 읽고 나누기(5분)
PPT 설명(10분) 연꽃발상지(교육, 친구, 사건,
업적)(10분) 논제 끌어내기(15분)
- 3교시 - 논제 이끌기 및 발표방법 논의(10분)
반별 논제로 토의, 토론 진행(30분)
발표 중심 내용 협의하기(5분)

(財)牛溪文化財團 만화책 우계 성 혼 배부

2019년			만화책 우계 성 혼 배부처	비 고
①	2	8	청송당 : 경기상업고 교장 이상배	02-737-6490
			교무부장 송원근 <명함,공문,책드림>	
			교무부장님은 청송당 알고 있다고 함	
			교감 명함만드림.	
②	2	8	서울청운중학교 교장	02-737-0582
			교무부장 신애란(여자)	
			학생들 성수침 잘 알아요.	
③	2	8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	02-3999-259
			수위실 통과 설득력 있게 이야기	
			총무과 민원봉사담당/주무관 윤지현	
			경북구역 서울특별시교육청까지 택시	
④	2	11	조희연 : 2019교육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단배식, 승강기	개통식오후2시 30분
			조희연교육감에게 직접 <명함,공문,책드림>	
⑤	2	7	우계문화재단에가서 “만화우계성혼”책 18권을 받아옴	여행가방으로운반
			우계문화재단에서 까치산역까지 택시비	

(財)牛溪文化財團 만화책 우계 성 혼

	2019년 월 일	서울 만화책 우계 성 혼 배부처 찾아가기	비 고
⑥	2 13	박원순 시장 : 서울특별시민청 위커숍룸 오후 5시	02-2133-6060-1
		행설아 정기총회 행설아18기 테이블	
		<명함, 공문, 책 직접드림>	
		2019.02.15(목) 오전10시경 직접 전화하심 5분 통화.	
⑦	2 18	이상호 사장 : 유교신문사	02-760-1475
		<명함, 책 직접드림>	
		김용현 기자 네이버어유교신문기사 2019.03.01자신문	기사 올려주기로.
⑧	2 19	김연자 전래위원 : 성균관	010-8685-9186
		<명함,공문,책직접> 초등교육, 인성 예절교육에 활용	
		돌봄 교실, 지역아동센터.	
⑨	2 21	심영면 장학관 :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010-3292-2868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대강당 애들아, 함께 읽자!	명함, 공문, 책직접
		2019년 서울 Book소리지원단 양성연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財)牛溪文化財團 教育部長 성의순(成義順)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26가 길 8 E-mail : sws9186@hanmail.net Mobile : 010-3213-9186

(財)牛溪文化財團 만화책 우계 성 혼

2019 년월일			서울 만화책 우계 성 혼 배부처 찾 아가기	비 고
①	2	7	우계문화재단에 가서 “만화우계성혼”책 18권을 받아옴	여행가방으로 운반
②	2	8	청송당 : 경기상업고등학교장 이상배 02-737-6490	송원근교무부장
③	2	8	서울청운중학교 교장 02-737-0582	신애란교무부장
④	2	8	조희연 :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윤지현 총무과 주무관
⑤	2	11	조희연 : 2019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단배식, 승강기	개통식 오후 2시 30분
⑥	2		박원순 : 서울특별시장 02-2133-6060~1	www.seoul.go.kr
⑦	2		이창우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교육문화과	02-820-9229
⑧	2		민병관 : 서울특별시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학관으로 보한다.
⑨	2		김영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⑩	2		김병오 : 서울특별시 중부 교육지원청 교육장	종로구, 중구, 용 산구
⑪	2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 우계 성 혼 편지	
⑫	2		국립중앙 박물관 : 우계 성 혼 필 칠연시	
⑬	2		서울 한남동 리움미술관 : 삼현수간 보물 계 1415 호	구봉우계울곡 편지
⑭	2		서울 창신초등학교 교무실 02-763-3760	
⑮	2		와석초등학교 교무실 031-957-8714 파주운정신도시 (우)10907 경기도파주시 한빛로 7 야당동 1008	서명진훈장돌봄 1,2 야당역1번출구1 9분

청송당 터

혜록 성의순(우계문화재단 교육이사)

2019년 02월 08일 명함, 공문, ‘만화 우계성혼’책 들고 방문 답사

청송당, 경기상고, 서울청운중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방문.

우계문화재단에가서 만화책 18권 받아 여행용 가방으로 운반 걸어서, 버스로, 전철로, 택시로 서울지역 15곳 배부처 찾아가기.

겸재가 그렸던 청송당 자리에는 현재 경기상고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89-3)

경기상고 안으로 들어가면 건물 뒤쪽 계단 위에 청송당 터임을 알려주는 표지석이 있다.

헛되고 헛되다. 기묘사화 이후 성수침은 세상일에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조정에서 아무리 불러도 결코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경복궁 뒤 백악산 아래 자신의 집 뒤에 두어 칸짜리 ‘청송

당(聽松瑠)’이라는 독서실을 지어 현판을 달고, 오로지 칩거하며 자기수양에만 힘썼다.

성수침의 아호 청송에서 따온 ‘청송당’은 ‘솔바람 소리를 듣는 집’이라는 뜻이다. 5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의 이 집은 남아 있지 않다.

‘청송당’ 글자를 새긴 바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화가 겸재 정선(謙齋 鄭敼, 1676~1759)이 그린 ‘청송당’의 모습

겸재는 청송당을 외경의 눈으로 바라보며 화폭에 올렸다.

울창한 숲숲과 절벽을 이룬 바위들이 고즈넉하다.

청송 성수침은 솔바람 소리와 더불어 독서에 열중하였고 이런 학풍이 아들인 우계와 그 둘도 없는 벗인 율곡에게 전해져 우울 학파가 형성된다.

우계문화 창간호

牛溪文化

발행 편집인: 심호경
인쇄 인: 강영숙
등록일: 2019. 02. 16
등록번호: 바우-4800034

발행일 2020.11
창간 1호

비매품 발행처: 우계문화재단/강릉 파주시 파주읍 향암리385-11 전화: 02-2601-8675 팩스: 02-2605-2367 인쇄처: 중앙문화인쇄



○ 사진의 10월 22일 우계문화재단과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인문문화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우계학 연구 성과와 전망' 학술대회를 마치고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번호가 성호경 지단 이사장

창간사

우계문화 창달의 토대 마련

우계문화재단 이사장 심호경

우계 성혼 선생(1535-1598)은 나라가 어지러울 때 태어나서서 율곡 이이 선생과 함께 도학과 성리철학을 연마하고 나라를 열려하셨던 분입니다.

기묘사화로 선비들의 사지가 땅에 떨어지고 나약한 선조 임금의 통치 아래 국가 기강이 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분들은 분단히 혁신을 권하였으며 백성들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재단법인 우계문화재단은 1987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우계학보」를 36호 발행했으며, 아울러 「우계논총」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들어선 「민화 우계성훈」을 출간, 세모에 중학교에서 「우계성혼 독서 포럼」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근계재향도 지난해엔 약 350명이 참석



○ 심호경 이사장

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지난해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인문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연구 사업을 전개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세미나·학술대회 등을 진행하여 우계 선생의 정신문화를 더욱 충실히 계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재단은 우계문화 창달을 위해 더욱 크고 중요한 사업들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새로 「牛溪文化」를 창간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개간 8면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중은 물론, 각계에서 소식과 의견을 보내 주시면 적극 반영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우계 선생의 사상과 학덕을 신앙코자 합니다.

한국 사회는 해방 후 물질적으로 많이 발전했으나 정신 면에서 날로 피폐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牛溪文化」 창간호로 한국 정신문화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교육공로상에 성의순 이사 수상



지난 2020년 1월 11일 우계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임시 이사회 겸 신년하례를 개최했다. 성호경 이사장과 10인의 이사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새해 우계 선생 선양사업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인문문화연구소와의 공동 학술 연구 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이날 성준경 이사의 연임을 결의하고 신임이사로 성의경 전 신산업경영원 원장을 선임했다. 그리고 재단의 교육사업에 기여한 성의순 이사에게 교육공로상을 수여했다.

경기도 교육감 감사패 수상



감사패

파주교육자원봉사센터 성의순

위 사람은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교육자원봉사 활동을 선도하여 교육자원봉사의 확산과 경기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감사의 뜻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1년 12월 31일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인터뷰=성의순(成義順) 우계문화재단 교 육이사]

문일남 주무관(경기도 과주교육지원청)

한국 정신문화의 체계를 세운 우계 성훈 선생
“우계의 사상과 정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 캠퍼스 안에 있는 성균관 대성전(사적 143호)에는 공자를 비롯해 중국과 한국 유교 성현 위패가 모셔져 있다. 우리나라 지식인으로는 ‘韓國 十八賢’을 모신 문묘가 설치돼 있다.

조선은 건국하면서 성리학을 국가 지도이념으로 삼았기에 인재 양성 요람인 한양 성균관과 지방 향교에 문묘를 설치해 주자학 발전에 기여한 중국과 우리나라 유명 학자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학생들의 사표로 삼았다.

성균관과 향교에 모셔지는 학자들을 문묘 배향 선현이라고 부르며 최고의 영예와 권위를 부여했다. 배워서 성인의 경지에 올랐거나 성인의 경지에 가깝게 도달했던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의 전형이다. 문묘 배향 선현을 배출한 가문은 최고의 학자 가문으로 존경을 받았으며 국가에서도 그 후손들을 특별히 대접했다.

우리나라의 문묘 배향 선현 18현은 弘儒侯 薛聰, 文昌侯 崔致遠, 文成公 安珦, 文忠公 鄭夢周, 文敬公 金宏弼, 文獻公 鄭汝昌, 文正公 趙光祖, 文元公 李彥迪, 文純公 李滉, 文正公 金麟厚, 文成公 李珥, 文簡公 成渾, 文元公 金長生, 文烈公

趙 憲, 文敬公 金 集, 文正公 宋時烈, 文正公 宋浚吉, 文純公 朴世采다.

그중 우계 성혼(牛溪 成渾) 선생은 선조가 주요 관직을 수 없이 하사하셨으나 거의 조정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조정에서 벼슬을 한 기간을 모두 합하여도 채 1년이 안 되기에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성혼 선생은 평생을 후학 양성에 힘쓰며 항상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면서 수시로 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는 등 시대를 밝히는 지식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성혼 선생의 시대적인 삶과 철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80대 중반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교육 봉사 앞장서고 있는 우계문화재단의 성의순 교육 이사를 만나보았다.

성의순 교육이사는 1938년 경기도 양주 창녕성가에서 출생했다. 서울 창신초등학교, 정신 중·고, 숙명여자대학교 동 대학원원 졸업 후 경제기획원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으며, 2019년에는 교육 봉사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을 받은 바 있다. (이하 일문 답)

- 우계문화재단 소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에 있는 우계문화재단은 우계 성혼 선생의 도학정신과 성리 사상을 국내외로 널리 연구 보급하여 동양사상 및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7년 7월 11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재단법인이다.

- 우계 성혼(牛溪 成渾) 선생은 어떤 분인가

한국 정신문화의 체계를 세운 성혼[成渾, 1535(중종 30)~1598(선조 31)]은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이다. 자는 호원(浩原)이고, 호는 우계(牛溪)·묵암(墨庵)이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본관은 창녕이고 백인걸(白仁傑)의 문인이며, 이이·정철·송익필 등과 교유하였다.

선조 1년(1568)에 유일로 천거되어 전성서 참봉이 되고, 병조참지·이조참의·동지중추부사·좌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기묘 명현인 성수침(成守琛)의 아들로 명망이 높았으나, 임진왜란 때 임금을 따라가지 않은 것과 일본과 화의를 주장한 것이 논란거리가 되었다. 서인들이 집권한 숙종 7년(1681)이 돼서야 이이와 함께 문묘에 배향되었다.

1572년부터는 이이와 사단칠정 논쟁을 벌였으나, 자신의 견해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이이와 타협하였다. 그러나 공부론에서는 경 공부를 강조하였다.

그의 학문적으로는 율곡과는 반대편에 섰으나 서로 존중하며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었다. 여진족 니탕개가 침범했을 때 병조판서에 오른 율곡은 상황이 다급해서 임금의 허락 없이 당장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동인은 율곡이 임금을 무시했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아 위기에 빠졌을 때 우계는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상황에 부득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용감한 신하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며 상소를 올려 율곡을 구했다고 한다.

- 학술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2019년에 성균관대와 학술 연구 양해각서(MOU)를 맺고

참 선비의 전형으로 추앙받는 우계 성혼의 도학 정신과 성리 사상을 연구하며 공동사업을 펼치고 있다.

성혼은 율곡 이이(1536~1584)와 같은 고향에서 같은 스승(휴암 백인걸)을 모시고 학문을 익혔다. 두 사람은 학문적으로는 기호학파의 쌍벽을 이루며 선비 사회에서 높이 추앙받았고 사후에도 숙종 때 문묘에 나란히 배향됐다.

율곡은 과거를 거쳐 병조·예조·형조·이조판서를 지냈으나 부친이 조광조의 수제자였던 우계는 기묘사화 이후 벼슬길을 피해 도학에만 전념했다. 평생 병마와 싸우고 종이로 옷을 지어 입으면서도 벼슬을 수십 차례 거절하고 임금에게 날카로운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공직자가 지녀야 할 목민 윤리로 청렴, 신중, 근면 세 가지를 제시하였고,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장례절차를 간소하게 상여를 쓰지 말고, 인력도 동원하지 말고, 종이 옷, 종이 이불로 얹하고 소달구지에 실어 장사지내도록 유언하셨다.

- 우계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은?

우계 선생의 성리, 교학, 경세 사상을 국내외에 연구 소개, 보급하고 논문집 간행, 세미나 개최 및 한국학 원류로서의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우(祠宇)와 묘역 관리, 문화 전승 보유를 위한 연구비 및 장학금을 지급, 우계 문집의 번역, 간행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절, 다도, 한자, 효 교육, 인성교육, 전통놀이, 독서 토론, 시장 경제 교육, 전통문화 책 읽어주는 문화 봉사, 금빛

봉사단 등의 교육 봉사과 북촌문화센터, 청소년회관, 복지관, 군부대, 요양원, 성균관 지킴이로 문화 살림에서 봉사하고 있다.

- ‘우계 성혼’이라는 만화책도 발행됐다고 들었다.

우리나라 18현의 한 분인 우계 성혼 선생의 삶과 의미를 우리의 유소년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풀어 전달하고자, 우계문화재단 성호경 이사장이 기획하여 작가 성기영이 시나리오를 쓰고 이현주 만화가가 그려서 2년의 각고 끝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우계 성혼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족, 친구, 학문, 후학 양성, 친구와 만남, 학문, 선비 이야기, 사상, 임진왜란, 제자 등을 다뤘다.

가볍지 않은 역사와 사상 이야기를 재미있고 유쾌한 만화로 꾸며 성혼의 삶과 학문은 물론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게 된다. 그 이야기 속에는 오늘날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야기 담고 있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성혼의 삶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는 유명 인물과 유학을 만나게 된다. 이기일원론과 이기이원론, 인의예지, 사단과 칠정, 도심과 인심 등을 배우게 된다.

그동안 과주지역 초중고 100여 개 학교에 공문과 만화 ‘우계 성혼’을 발송하고,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 그동안 봉사하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 1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PPT로 교육 봉사를 하고 있다. 파주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신청을 받아서 즐겁고 신나게 봉사하고 있다.

파주의 자랑스러운 우계 성훈 선생이 수많은 제자를 우계서실에서 교육하신 파주가 좋아서 서울에서 왕복 5시간이 걸리는 거리이지만 기쁜 마음에 달려간다.

파주 금릉 중학교 대강당에서 3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는 학생들이 저를 보며 “선생님” 하면서 달려오고 손도 흔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즐기고 신나게 충분히 놀았어야 했는데, 시간이 항상 부족해 아쉽다.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지금은 20여 가지에 이르는데 이 프로그램을 함께 강연하실 선생님이 계신다면 제가 꼭 전수하고 싶다.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성균관 석전교육원 교육부장 성의순 선생



성의순 성균관 석전교육원 교육부장은 2019년 2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행된 '제8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당신이 우리의 영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수여식은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이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국민이 추천한 704명의 후보자 중에서 국민 추천포상심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42명이 선정됐다.

이국종 교수 등 6명은 훈장을 받았고, 성의순 여사는 성균관 석전교육원에서 유학교육활동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 유교신문 기사 보도

성의순 여사 ‘시민수집가로서 이야기’ 돈의문박물관마을에 전시

2019-09-25 오전 유교신문 김용현 기자



▲성의순 여사가 전시한 소장품 앞에서 포즈를 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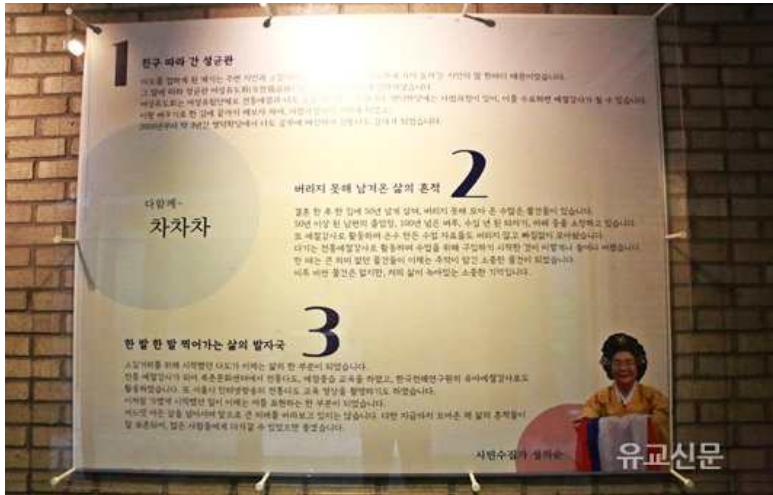
성의순 여사는 ‘시민수집가로서 이야기’를 서울 종로구 송월길 14-3 돈의문박물관마을 시민갤러리 24동에 전시했다.

본 박물관은 차와 다기(茶器)를 모으며 고즈넉한 차향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 수집가로 성 여사를 다른 한 분과 함께 선정했고, 두 분의 소장품을 9월17일부터 12월29일까지 전시한다.

이번 전시품은 찻상, 차호, 차주전자, 탕관, 퇴수기, 차시, 5인다기셋트, 3인다기셋트 등 10종 42점이다.

박물관 게시물은 성 여사에 관하여 "결혼 후 한 집에서 50년 넘게 살며 버리지 못해 모은 수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100년 넘은 벼루, 수십년 된 타자기, 마패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큰 의미 없던 물건이 이제는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 되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성 여사는 전통예절 강사가 되어 북촌문화센터에서 전통다도, 예절풍습 교육을 했고, 한국전례연구원에서 유아예절강사로도 활동했다. 성균관여성유도회 명덕학당 사범과정을 수료해 예절강사와 다도강사가 되었다. 석전전례사를 이수했고 성균관 전학으로 있으며 전수자 과정을 이수 중에 있다.



▲시민수집가로 성의순 여사의 이야기를 전시품 앞에 게시

성의순 선생 성균관 부관장 임명 통지

[仁義禮智]

성 균 관

수 신 成義順 副館長

(참조)

제 목 副館長 任命 通知

1. 斯文振作에 專念하시는 副館長님의 健勝을 祈願합니다.
2. 코로나19 擴散 豫防에 協助해 주신에 感謝드립니다.
3. 防疫措置를 遵守하여 成均館 副館長 任命 告由 및 任命狀 授與式을 下記와 같이 舉行함을 通知하오니 參席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下 記 -

☐ 日 時 : 2022年 5月 27日(金曜日) 午前 10:40

☐ 行事日程 : 1. 大成殿 告由禮 2. 任命狀 授與式

※ 韓服 및 唐衣 個別 持參(대란치마 着用 不可) 끝.

성 균 관 장



중무부장 박광영

중무처장 조승래

성균관장 손진우

첨 조

시 명 成均 第2022-239號 (2022.5.20)

접수

우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31 유림회관 / www.skk.or.kr

전화 02)-760-1472 전송 02)-745-7013 / skkyr@hanmail.net / 공개

第2022總一7號

任命狀

成義順

戊寅十二月十七日生

第三十三代成均館副館長

孔紀二千五百七十三年五月一日

成均館長 孫晉瑤

成均館

- 성균관 부관장 임명장

維
孔紀二千五百七十三年歲次壬寅四月甲寅朔二十七日庚辰

成均館長孫晉瑞敢昭告于

大成至聖文宣王伏以

夫子之道至高如天生知安行其有後先

文武世遠繼開我國太學宗憲以定選任

今日吉辰際茲副館長任命及典校選任告于

成均館副館長李鍾河副館長諸葛浩吉副館長成義順

玄風鄉枝典枝尹洪錫公州鄉枝典枝吳炳一

洪州鄉枝典枝李哲學蔚州鄉枝典枝琴東律

欲行其道任重微力伏惟

尊靈德義孔昭俯鑑微衷幸垂冥詔用伸

虔告謹告

▲ 대성전 고유례 축문



▲ 정규훈 교수, 황미숙 회장, 성의순 부관장, 민정기 박사



▲손진우 성균관장이 성의순 부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





▲성균관 부관장 성의순, 이종화 부관장, 손진우 관장, 제갈호갈 부관장



▲정규훈 교수, 이경제 전교, 이수부 박사, 성기숙 교수, 황미숙 회장, 강순미, 성의순 부관장, 김정 부관장, 이제철 박사, 이란 원장, 민정기 박사, 이내수, 민혜원



206_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 성의순 부관장, 이종하 부관장, 손진우 관장, 제갈호길 부관장



▲ 성의순 성균관 부관장, 손진우 성균관 관장



▲ 이수부 박사, 이경재 태안향교 전교, 김정 성균관 부관장, 성의순 부관장, 민해원 여성유도회 회장, 백소원 명덕학당 동기, 민정기 박사

성의순 어록(成義順 語錄)

어록(語錄) 연구에는 풍부한 자료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어록이란 선종어록과 대별되는 송유 어록을 가리킨다. 조선시대 성리학에서 송유어록은 주자학의 태동이나 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송유어록의 텍스트로 말하자면 『二程集』, 『朱子語類』, 『朱子文集』, 『心經附註』, 『性理大全』, 『四書五經大全』 등이 있으며,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많이 연구되었다.

그중 『四書五經大全』은 원문과 주자 등의 주석, 그리고 ‘小註’로 일컬어지는 ‘大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鄜奎’의 내용이 『朱子語類』나 『朱子文集』에서 가져온 송대의 구어 어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퇴계 선생이 『朱子文集』 중의 서간을 절선(節選)한 『朱子書節要』는 당시 주자학의 화두를 『四書集註』등의 경서에서 주자의 전체 어록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心經附註』는 조선 유학의 심학(心學)적 가치체계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으로 여기에도 다수의 어록이 실려 있다.

그리고 『朱子語類』는 주자어록의 핵심 저작으로 이후 『四書五經大全』이나 『性理大全』의 모본(母本)이 되었으며 조선 중기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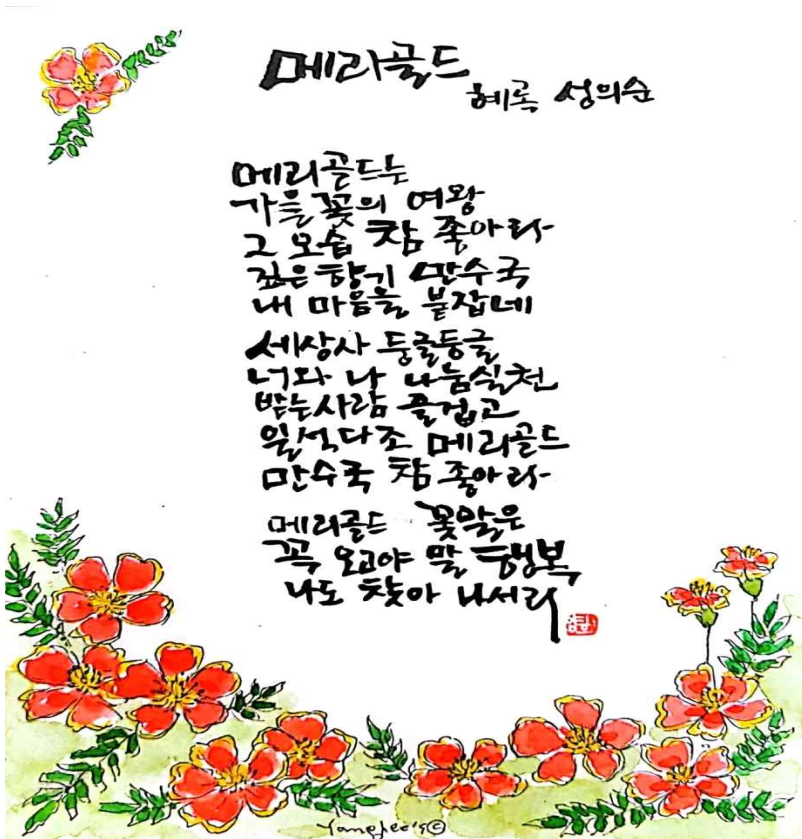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소개나 계몽적인 입문서조차도 많지 않다.

성의순 어록에서는 성균관 여자 부관장으로서 성의순의 어

록을 작성한 것으로 어록석의와 어록석의의 사전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語錄解』를 대상으로 사전학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작성한 것이다.

향후 이러한 성과에 기반하여 성의순 어록의 언어사전 구상에 밑바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1. 메리골드



메리골드 꽃말은
꼭 오고야 말 행복
나도 찾아 나서리

종자와 시인 박물관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골드는 국화과 타게테스(Tagetes)속의 춘파성 1년생 화훼 식물로서 꽃, 줄기, 잎 등에 황색 및 적색의 단일성 색소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데 우리나라에는 60~70년 전 관상용으로 들어와 재배되기 시작한 귀화 식물이다. 더위에 강하고 개화기간이 길어서 여름철 화단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관상식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항균활성, 방부효과, 혈압강하효과, 세포 손상 방어기능, 상처 및 궤양을 치료하는 기능 등으로도 유명하며, 천연색소로 재활용한다면 자원 절약과 함께 부가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다.

No.2955.

메리골드

2022 03 13

작사: 성의순 成義順

작곡: 전한준 靑草 全漢俊



메리골드는 가을꽃의 女王 이 지요



그 - 모습 참 좋아라 깊은향기내 마음을 붙잡네



세상사 등글등글 너와 나의 나뉘의 실 - 천



받는 사람이 즐겁고 一石多鳥 메리골드 참 좋아요



메리골드꽃말은 꼭 오고야말행복 나 도찾아 나서야겠네

건강한 몸과 맘

혜록 성의순

사람의 몸은 생명체

정(精)은 몸뚱아리

신(神)은 정신(마음)

기(氣)가 들어오면

생명체(生命體)가 된다

마음이 가면 기(氣運)이 모이고

기(氣運)이 가는 곳에 힘이 떨어진다

기(氣)와 혈(血)이 가는 곳에 생명이 숨는다

숨을 잘 쉬는가?

밥을 제대로 먹는가?

마음을 편안합니까?

강자(强者)가 살아남는가?

살아남아야 강자(强者)인가?

살아남는 자가 강자(强者)이다



2. 건강한 몸과 맘

건강한 몸과 맘
사람의 몸은 생명체
기(氣)와 혈(血)이 가는 곳에
생명이 숨을 쉰다.

숨을 잘 쉬는 자가 행복한 자(者)다.
마음이 편안한 자(者)가 강한자이다.

살아남는 자가 다 강자(强者)가 아니라
바로 사는 자가 강한 자이다.

신기정(神氣精) : 우리는 신기정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말하자면 신(神)은 자주적인 “경(敬)”을 배양하며 기(氣)는
혁신적인 “성(誠)”을 배양하고 정(精)은 통합적인 “창조(創
造)”를 배양하는 것이다.

항상 엄정한 반성과 객관적인 판단을 동시에 수행해야 역량
제고가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행실에 맹목적인 추종
과 주관적인 판단의 자행으로 그릇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양극 이치를 자신의 신념과 역량을 통해, 모두 충족
시키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No.2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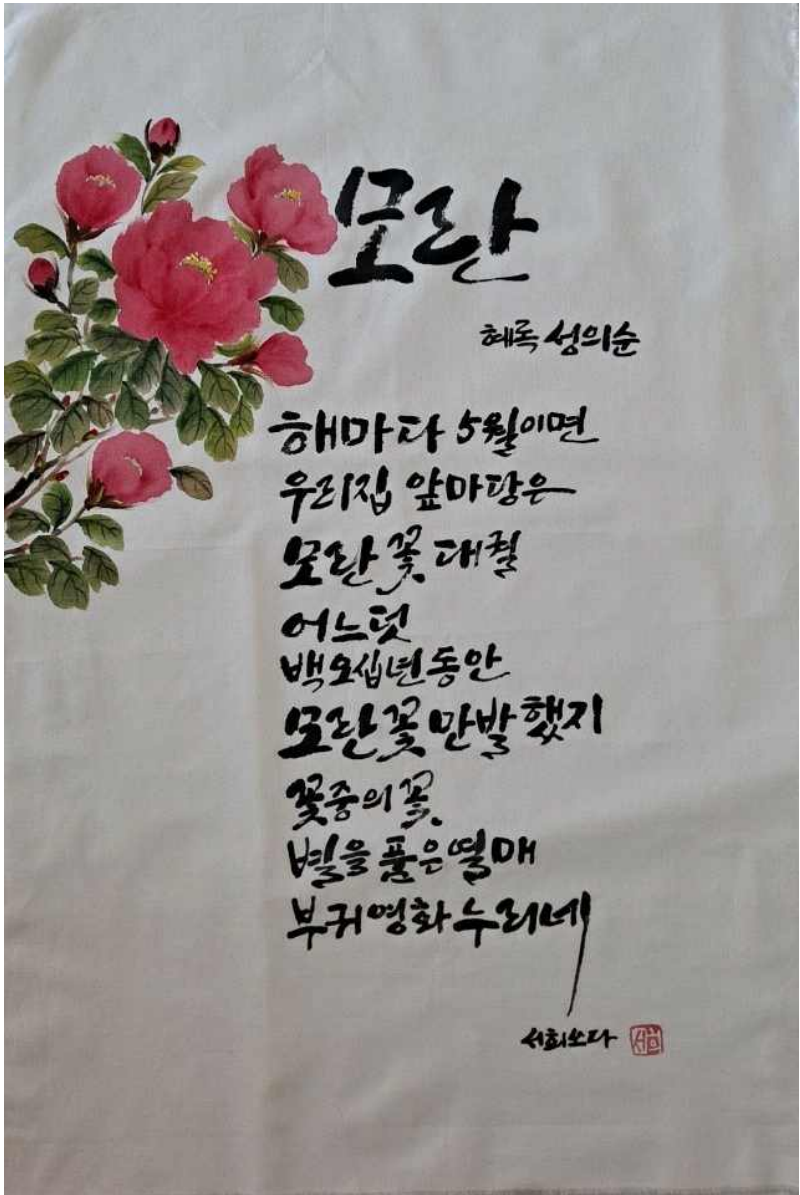
건강한 몸과 맘

2953-2022 02 25

작사: 성의순 成義順

작곡: 전한준 全漢俊

사람의 몸은 생명의 정은 몸동아리
신은 마음 기가 들어가면 생명이체가 되지요
마음이 가면 기운이 모이고 기운이 가는 곳에 혈이 따라가죠
숨을 잘 쉬는가 밥을 잘 먹는가
마음이 편안한가 강자가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야 우리는 강자가 될 수 있어요



216_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3. 모란

해마다 5월이면
우리 집 앞마당은
모란꽃 대궐

어느덧
백오십년 동안
모란꽃 만발했지

꽃 중의 꽃
별을 품은 열매
부귀영화 누리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당태종이 진평왕에게 모란꽃 그림과 씨를 보내왔다고 기술하고 있다. 설총의 「화왕계」에서도 ‘화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많은 연구자가 「화왕계」에서 나온 화왕을 모란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것은 선덕여왕 모란 일화 때문일 것이다. 선덕여왕 모란 일화와 「화왕계」는 모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수록되어 있다. 참고로 모란의 고향인 중국에서는 9세기에 이르러야 모란이 이백, 그리고 피일휴(皮日休) 등의 시를 통해 화왕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691년에 신라에서 모란이 ‘화왕’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 선덕여왕 모란일화는 『수이전』 그리고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작곡

번호-2599

@순:2599 #제목:모란 #작사자:성의순 #작곡일:2020.08.28

2599. 모란(牡丹)

2599-2020 08 28

作詞:성의순 惠衣 成義順
作曲:전한준 靑草 全漢俊

해마다 5 월이면 우리 집 앞마 당은 모란꽃대 꺾
五月 牡丹 大關

mf 어느덧 *mp* 백 오 십년 동안 *f* 모란꽃 만발 했지
百 五十年 牡丹 滿發

mf 꽃 중의 꽃 *mp* 별을 품은 열매 *mf* 부귀 영화누 리 네
富貴 榮華



모란(牡丹) 꽃 대꺾(邱敲)

<靑草音樂日記>

2020. 8. 28(금)

成義順 女史는 80고비를 넘긴 高齡에도 이팔청춘의 젊음을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분이다.

여러 가지 재능을 겸비한 데다가 부지런하여 쉴 틈

없이 어린이 漢字 人性교육에 東奔西走하시니 늙을 틈이 없으신 것 같다.

宅의 庭園에 牡丹이 150년이 되었는데 이를 보고 지은 詩라 하여 最善을 다해 아름다운 樂想으로 만들어 보았다.

4.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는 효자 효녀

저를 낳아 주시고
저를 먹여 주시고
저를 입혀 주시고
저를 길러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는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전통사상은 효 사상이다. 효는 백행지본이다.
모든 전통교육의 출발은 효요 그 교육의 끝도 효다.

효 사상과 효 문화가 우리의 전통사상과 문화로 정착된 것은 본래 우리의 원시 종교에 부모와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와 물질문명의 서구 사조는 엄청난 비윤리적 현상을 만연케 하였다. 이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효 사상을 성찰하고 효도 교육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교육은 이성을 계발하는 것뿐 아니라 신체의 정서 모두를 성장시키는 총체적인 인성교육이어야 한다.

5. 부모님

생명의 근본인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식 된 도리로서
당연히 사랑해야 하며
부모님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선물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너무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

한 사람이 출생하여 성장하고 인격을 갖추고 성년이 되기 위하여는 부모와 학교 및 국가의 관여가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근원이 되는 부모님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며 동시에 효도해야 하며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한 사람을 교육하는 과정 속에 이와같이 다원적인 교육영역과 주체가 관련되어 있는 이상, 교육영역 내지 교육 주체 상호간에 필연적으로 교차하며, 중첩되는 측면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교육 갈등과 분쟁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6. 할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자라서 효도를
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조부 조모 : 조부 조모와 함께하는 손자녀 양육경험은 인성 교육에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내 핏줄에 대한 무한정한 희생정신”, “소신있게 내 손자녀를 양육하고 주도적인 교육을 실시함”, “가족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진정한 행복의 원천을 이해시킴”, “몰랐던 진정한 행복을 일깨워줌”, “손자녀라서 더 감수해야 할 것이 많은 조부모 교육 및 육아 실상”, “가족의 테두리 아래에서 어우러져 가는 돈독해지는 가족관계” 등 조부모와 함께하는 손자녀 양육이 보다 더 돈독한 가족관계로서 인식되고 있고 행복의 원천이 됨을 알아야 한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여성 고용률 제고”라고 하는 국가성장 전략에 따라 조부모에 대한 효도가 더욱 더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7. 부자자효(父慈子孝)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어여뻐 하고

아들과 딸은
아버지와 어머니께
효도 한다.

부자자효 :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로움을,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자자효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행복을 경험하고 긍정적 정서를 함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일방적이거나 주입식 발현이 아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의미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로움을 가지고, 자녀는 부모에게 행복과 감사로 자발적 효행 함을 경험할 수 있다.

친애적 부모 - 자녀관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부자자효(父慈子孝)는 자녀와 부모간에 상호관계적 작용의 의미를 담고 있다.

부모의 자애로움은 책임, 훈육, 수신, 존중, 인내로 자녀의 효행은 순종, 공경, 감사, 승지, 봉양 등을 통해 긍정적 심리학의 정서성(즐거운 삶), 적극성(적극적인 삶), 의미성(의미 있는 삶)으로 승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감 상승과 부모-

자녀 관계 만족도도 높아졌다.

부모에게는 부모 됨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함양되어 자녀에게 자애로운 부모로서 지지적 역할을 하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께 대한 감사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자녀의 효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8. 예절 실천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사람 노릇을 해서

사람대접을 받으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우리들이 약속해 놓은
생활방식인 예절을 알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절 실천 : 오늘날 청소년들이 전통예절은 케케묵고 의미 없는 번잡한 행동의 반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신과 형식이 오늘날에도 인간성 상실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영원한 정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예절 의식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생활수준 인지도, 예절 관련 변인에 따라 크게 작용한다.

가족내의 예절 관련 의사소통, 청소년의 예절교육 경험, 예절에 대한 부모의 관심, 예절교육 필요도 등 예절관련 변인에 따라 청소년 예절의식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소학(小學)은 전 부분에 걸쳐서 ‘물 뿌리고 청소하고 응하고 대답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기본생활 예절과 ‘아버이를 섬기고 어른을 공경하며 친구를 존중하는’ 인륜의 도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즉 ‘바른 마음의 상태’를 보존하고 길러서, 궁극적으로 본성을 실현하는 데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예절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9.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유래는
고종 시대에 만들어진 나라 이름
‘대한제국’에서부터 시작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나라”
무력이 아닌 교화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한 목표로
‘한(韓)’이라는 국호를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 1941년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제가 머지않아 패망하리라 예견하고 해방 후의 민족국가건설의 방략을 구체화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무부장 조소앙이 삼균주의에 바탕을 두고 기초·작성한 문안을 여러 차례 독회·심의하여 11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공포하였다.

1945년 8·15해방 뒤 임시정부는 귀국을 앞두고, 9월 3일 14개 항의 「임시정부 당면정책」을 공포하였는데, 「건국강령」에 근거를 두어 한민족이 당면한 현 단계의 성격을 규정하고 당면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어 1946년 2월 임시정부는 「당면정책」에 따라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확대하여 비상국민회의를 결성하였다.

이로써 중경임시정부를 정식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과도정부로 선포하고 인정받으려 하였다.

「건국강령」은 삼균주의·「건국강령」의 실천 주체로 임시정부의 법통성·영도권을 필연론으로 전제하였다.

이러한 「건국강령」의 노선은 좌익과 대립·충돌하였으며, 중간파와 마찰을 빚었다. 삼균주의·임시정부·「건국강령」의 삼자는 밀접한 고리를 맺고 있었다.

삼균주의는 임시정부라는 외형과 권위를 입어 「건국강령」으로 구체화하였고, 「건국강령」은 삼균주의에 근거를 두고 임시정부의 영도권을 주도하였다.

10. 가족(家族)

가족은 영어로 패밀리(family)다.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을
라틴어 파밀리아(familia)에서 왔다.

즉, ‘익숙한 사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은 일가(一家), 일본은 가족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즉, 한 지붕 밑에 모여 사는 무리라는 의미이다.
한국인에게는 가족이란
“한술밥을 먹는 식사 공동체”라는 뜻이다.

가족 :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족’은 유교 이념에 의해 보호·육성되어 하나의 사회적 체제 역할을 해왔다. 한국인의 가족 체제는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자연 공동체로 생각한다.

이는 마치 서양의 종교 공동체와 유사한 기능으로, 유교의 ‘효계(孝悌)’의 윤리로, 종교 행위는 ‘조상 숭배’로 나타났다.

이 공동체 속에서 죽음은 자손(子孫)의 성장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교체되었다. 그리하여 죽음은 효(孝)를 통하여 시간적 단절 없이 ‘영생(永生)’으로 승화되었다.

이는 사적(私的)이어서 근대 사회적 삶의 방식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의 공적(公的)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정부

패를 낳아 투명성과 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것은 ‘가족(家族) 이기주의(利己主義)’라고 할 수 있다.

친 서구의 근대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가족 문제는 반성할 점이 많다. 그러함에도 탈근대의 문명에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족의 ‘유기체적(有機體的) 성격’을 중시하고, 가족의 보호, 가정의 회복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걸어야 한다.

각종 복지정책도 지나치게 개인 위주로 하지 말고 가족 단위도 섞어서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가족제도의 장점으로(아직도 한국인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3세대가 함께 혹은 가까이 사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 직계(直系) 가족 형태를 재조명하면서 무분별하게 서구적 사고방식을 추종해서는 안 되리라 본다.

특히 복지체제도, 참여가족 중심 관리체계구축을 체계화해야 한다. 말하자면, 봉사 성과와 가족 건전성 증진, 봉사기간과 보상의 체계적 연계전략 등 체제 속에 투영시켜야 한다.

11.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

벼슬을 탐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멀리한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 선생은 선비들의 귀감(龜鑑)이 되었다.

청렴결백하게 학문에만 매진한 도학자
우계 성혼선생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

‘창녕성혼묘’라고만 쓰고
관과 상여를 쓰지 말고
삼베옷을 입히고 종이 이불로 얹하여
소달구지에 싣고 고향에 돌아가
장례하여 나의 뜻을 어기지 말라.

우계 성혼 : 우계의 가정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부모의 심리적 태도가 자녀의 도덕성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가정교육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의 경제적 책임자’에서 ‘자녀의 능동적 양육자’로 변하고 있다.

자녀의 행동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적절하게 조절하며 미래 지향적으로 훈계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한국사회의 가정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성혼 우계가 자녀에게 남긴 20편의 편지는 오늘날 매우 의미 있는 자료이다. 유언 형식으로 작성한 우계의 편지로 본 가정교육의 내용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검소한 생활 강조이다. 우계는 자신의 장례와 아들의 혼례를 간소하게 할 것을 당부한다.

둘째, 가학으로서 도학의 계승이다. 우계는 부친의 가르침과 문헌(文獻)의 유풍(遺風)이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가르치고

있다.

셋째, 자녀 개인별 격려와 훈계이다. 우계는 자녀들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맞춤형 훈계와 당부를 하고 있다.

넷째, 사대부로서 우국 애민 실천이다. 우계는 치국(治國)의 책임을 진 사대부로서 국가의 장래와 백성의 안녕을 걱정하며 애민(愛民)을 강조하고 있다.

12. 삼락(三樂)

1. 배우는 즐거움, 숙명여자대학교, 동 대학원(경제학과), (사)한국전례원, 成均館 明德學堂, 禮學院, 知師範, 성균관 유교교육원(선비학당), 성균관 석전교육원.

2. 가르치는 즐거움, 예절, 다도, 한자교육, 효 교육, 인성교육, 전통놀이, 독서토론, 시장경제교육, 전통문화.

3. 봉사하는 즐거움, 2000년부터 현재까지 7,666시간, 교육봉사로 국무총리상 수상, 북촌문화센터, 청소년회관, 복지관,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 도서관, 군부대, 요양원, 성균관 지킴이.

삼락 : 공자의 3락(樂)은,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 “유붕이자원방래불역낙호(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인부지이불은불역군자호(人不知而不慍不亦君子乎)”라고 하였다.

이는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와 먼 곳에서 벗이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이 또한 군자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인생 3락을 말한다.

맹자의 3락은, “부모구존형제무고(父母俱存兄弟無故), 양불괴어천부부작어인(仰不愧於天俯不忤於人), 득천하영재이교육지(得天下英才而教育之)”라고 하였다.

이는 “부모가 모두 생존해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째 번째 즐거움이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인간을 굽어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라고 하였다.

이상 인생삼락의 구체적인 실천 요령을 살펴보았다.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본심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마음 안에는 욕심과 본심이 함께 있다.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본심이 줄고, 욕심이 없어지면 본심이 작용한다.

즉 욕심이 커지면 마음 안의 인의예지(仁義禮智)가 줄어 상대방과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면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면 피곤하게 되고, 피곤하면 고독하게 되고, 고독하면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

13. ‘왈츠와 닥터만’에서 팔순 잔치

친구들이 좋아 좋아 몰려온다.

설렘 가득 안고 가평으로 가는 길에

그림 같은 북한강이 우리들의 마음같이

넘실대며 반긴다.

120년 가는 커피점을 짓고, 한국 최초의 커피 박물관을 개관하여,

커피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알리는 박종만 관장,
추억의 붉은 벽돌 건물, 주인장의 고집스러운 커피 철학,
커피 향기 퍼지는, 커피가 잘 되는 땅은 붉은 땅이란다.

모두 예쁜 화관을 쓰고, 우아하게 치즈케이크를 자르고,
아련한 소녀적 감성이 살아나는 곳에서,
팔순 소녀들은 세월을 잊고 마음껏 까르륵,
노을빛 햇살이 된 얼굴로 넘실대는 북한강을 지난다.

왈츠와 닥터만 :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의 왈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과 강원도 강릉시의 강릉 커피박물관은 해당 지역에서 커피와 관련하여 가장 대중화된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복합문화예술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다.

단순히 마시는 행위를 떠나서 사람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도구로서 커피를 테마로 한 평생교육기관이자 사회교육기관으로 건립되었다.

커피박물관의 건설적 활용강화 방안으로는

첫 번째, 교육 전문인력인 해설사와 교육사를 채용하여 업무를 확대해야 하고,

두 번째,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커피문화연구의 결과물을 박물관 교육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세 번째, 개방성 확대를 위하여 지역사회 각종 축제 및 커피 박람회와 커피박물관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찾아가는 커피

피박물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커피 한잔 하실래요?”라는 질문은 이제 익숙한 인사와도 같은 말이다.

이와같이 커피가 우리와 함께 한지도 어느덧 120여 년이 흘렀다. 이러한 역사가 있는 곳에서 팔순 잔치를 벌인 정의순 성균관 부관장의 소녀적 감상을 덧붙여 본다.

14. 현명(賢明)한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노력(努力)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仁), 의(義), 예(禮), 지(智)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맹자 서설 : 어떤 사람이 정자에게 물었다. “맹자도 가히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자는, “감히 그를 성인이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이미 지극한 데까지 도달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맹자의 성선(性善)과 양기(養氣)에 대한 이론은 모두 전대(前代)의 성인들이 꺼내지 못한 것들이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처해있는 시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시대를 옳게 알지 못한다면 학문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공자님 말씀과 비교해 보

면, 금세 알 수가 있다. 얼음과 수정 같은 것들도 광채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옥과 비교해 보면 부드럽고 함축성을 지닌 광채가 결핍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맹자의 글은 단지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 요체를 찾고 천성을 길러서 방종해지는 마음을 거둬들이기를 가르치고 있다. 인의예지(仁義禮智)에 이르러서는 측은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사양하고, 시비를 가름하는 마음으로 그 발단을 삼았고, 사악한 이설(異說)의 해로움을 논하여서는 그릇된 마음이 생겨나면 그것이 정치를 해치게 된다고 하여,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으면 천하가 안정된다“고 하였다. 천변만화 모든 것이 단지 마음으로부터 따라오는 것이어서 사람이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무슨 일이고 해내기 힘든 것이 없다고 하였다.

15. 아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은
내가 만들어 낸 것이므로 나는
당연히 아내한테 잘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아내는
남의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믿음 하나 믿고 우리 집에 시집와서
안 해본 고생 하는 건, 모두 나 때문입니다.

아내란 자주 바가지를 긁으면서도

그 바가지로 가족을 위해
밥을 하고 나물을 무치는 사람

아내란 내가 아껴 주면 줄수록
얼굴이 수줍어지고 예뻐지는 사람
아내란 살이 찌고 뚱뚱해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람
아내란 화려한 옷 챙겨입고 외식하기보다
남편이 “수고했네 고마워” 한마디로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

아내란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맛벌이 주부로 1인 4역을 해내는
무한한 에너지의 소유자입니다.

따뜻한 포옹 고마워, 이번 복날에
삼계탕 사 올 테니 친정에 한 번 다녀 와?
역시 우리 남편 하나는 최고의 선택이었어!

울곡 이이 격몽요결 거가장居家章 : 지금 학문하는 자들은 밖으로는 아무리 뿔내는 빛을 가졌어도 속은 실상 착실하지 못하다. 그것은 바로 부부간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안다. 자리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정욕에만 치우쳐서 저들의 위 의(威儀)는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만다. 그런 이유는 부부 사이에 지나치게 서로 친근하기만 하고 서로 공경하는 자가 몹시 드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자기 몸을 닦고 제 집안을 바르게 하고 싶어도 그것이 쉽사리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므로 남편은 화락한 모습을 갖추어 의리로써 아내를 사랑해 주고, 아내는 순수한 마음으로 남편의 뜻을 받아서 일을 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예와 공정한 마음을 잃지 않는 뒤에야 집안일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항상 서로 친밀하기만 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서로 공경하고자 해본들 그것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아내와 함께 서로 경계해서 반드시 전에 있던 습관을 버리고 점점 올바른 예로 들어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남편이 만일 아내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한결같이 정당하다면 반드시 점점 서로 믿게 되고 남편의 말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즉, 부부간에는 너무 친밀하다 보면 위의(威儀)를 잃는 수가 많으니 친밀한 중에서도 먼저 서로 공경하라는 의미이다. 아울러서 몸을 닦는 요점은 바로 참을 인(忍)자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자님께서도 “백 가지 모든 행동의 근본은 참는 것이 제일이다.”고 했다. 그리고, “천자의 몸으로서 만일 참지 않으면 온 나라 안이 빈터가 될 것이고, 형제끼리 참지 않는다면 그들은 각각 헤어져서 살게 될 것이며, 부부간에 서로 참지 않는다면 자식까지도 외롭게 만들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가장 존귀한 것은 참을 인(忍)으로 태도를 갖추고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는 행실을 실천한다면 화평한 가정을 영원히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백록동학규 白鹿洞學規

父子有親하며 君臣有義하며 夫婦有別하며 長幼有序하며 朋友有信하라.

右는 五教之目이니라.

博學之하고 審問之하고 愼思之하고 明辨之하고 篤行之하라.

右는 爲學之序이니라.

言忠信하며 行篤敬하라. 懲忿窒欲하고 遷善改過하라.

右는 修身之要이니라.

正其義하고 不謀其利하며 明其道하고 不計其功하라.

右는 處事之要이니라.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고 行有不得이어든 反求諸己하라

右는 接物之要이니라.

2022年 第20回 大韓民國書堂文化한마당 講經大會

姓名	성 의 순(印)	漢 字	成 義 順
經典名	대학 경1장		
部 門	學生部()	一般部(0)	
講經原文內容			
< 大學章句 >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親(新)民하며 在止於至善이니라.			
知止而后에 有定이니 定而后에 能靜하고 靜而后에 能安하고 安而后에 能慮하고 慮而后에 能得이니라.			
物有本末하고 事有終始하니 知所先後면 則近道矣리라.			
古之欲 明明德於天下者는 先治其國하고 欲治其國者는 先齊其家하고 欲齊其家者는 先修其身하고 欲修其身者는 先正其心하고 欲正其心者는 先誠其意하고 欲誠其意者는 先致其知하니 致知는 在格物하니라.			
物格而后에 知至하고 知至而后에 意誠하고 意誠而后에 心正하고 心正而后에 身修하고 身修而后에 家齊하고 家齊而后에 國治하고 國治而后에 天下平이니라.			
自天子以至於庶人이 壹是皆以修身爲本이니라.			
其本이 亂而未治者否矣며 其所厚者에 薄이오 而其所薄者에 厚하리 未之有也니라.			
- 上은 經一章이라 -			

第2019儒-25號

基金證書

성 의 순

貴下께서는 儒林獨立請願의 再照明과 先賢記念事業을 위해 推進한 儒林獨立抗爭巴里長書100週年記念事業에 精誠을 다해 獻誠(金 壹拾萬圓整)하여 이에 貴下의 큰마음을 永遠히 기리기 위해 이 基金證書를 드립니다.

2019年 4月 17日

儒林獨立抗爭巴里長書100週年
記念事業推進黨委員會 委員長
成 均 館 長

金 燦 根



전래경기민요 노랫가락

2017년 9월 4일 (월) 발표

전래 경기민요 노랫가락

혜록 성의순 성균관 부관장

010-3213-9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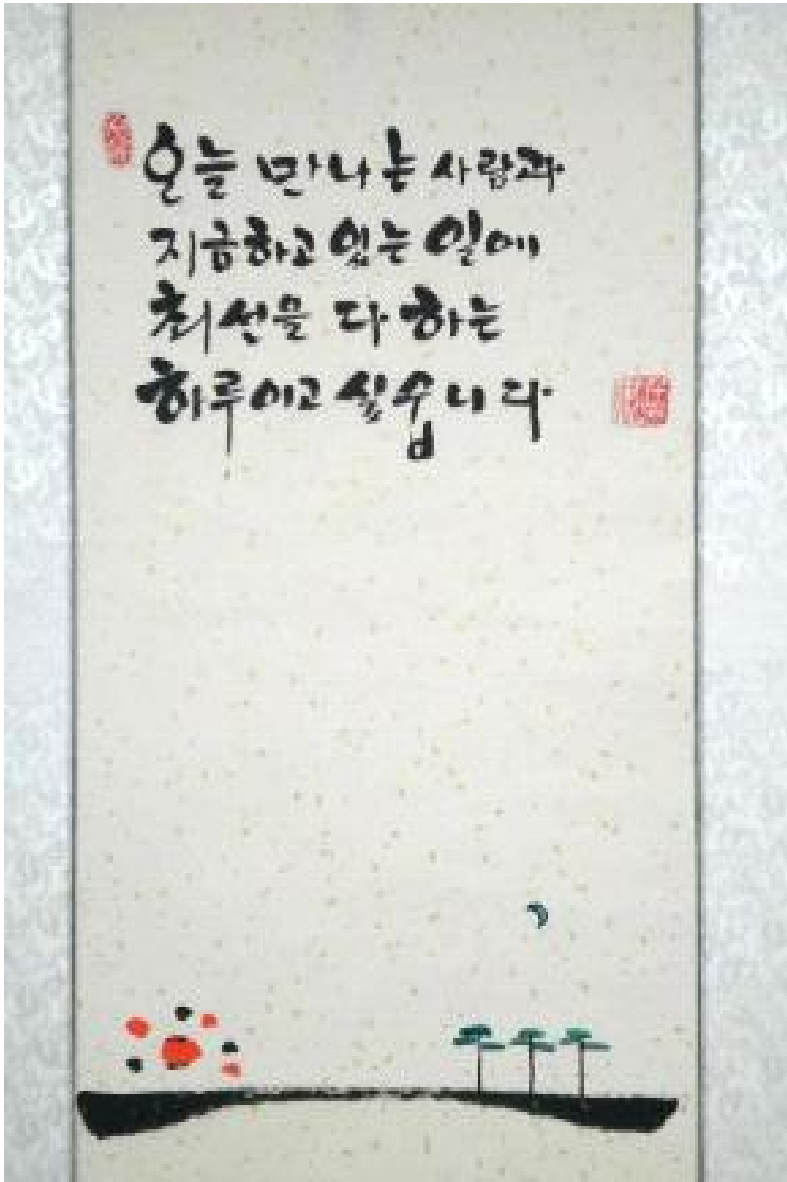
toa3213@hanmail.net

♣ 혜록 성의순

- ♥ 북촌예절문화원 원장
- ♥ 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 ♥ 한국효충예절문화연구
- ♥ 무계원 서당 훈장
- ♥ 1965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석사
- ♥ 경제기획원공무원 퇴직
- ♥ 성균관 석전교육원 강사
- ♥ 2022.05.01제2022 총-7호 제33대 성균관 부관장 임명 선임

Profile





경기민요 노랫가락 - 성의순

- 孔子님 심으신 남계
- 顏淵 曾子로 물을 주어,
- 子思로 뺨은 가지
- 孟子 꽃이 피었도다.
- 아마도 그 꽃 이름은
- 千秋萬代에 無窮花로다.

2973.

전추만대 길이길이-1
千秋萬代

자료제공-成義順성균관부관장
2973-2022. 05. 17

작사: 전 래 경기민요
작곡: 전한준 靑草 全漢俊

孔子님 심으신 나무에 안연 증자로 물을 주어
 孔子 심으신 나무에 안연 증자로 물을 주어
 顏淵 曾子로 물을 주어,
 顏淵 曾子로 물을 주어,
 子思로 뺨은 가지에 맹자꽃이 피었도다
 子思로 뺨은 가지에 맹자꽃이 피었도다
 아마도 그 꽃 이름은 천추 만대에
 아마도 그 꽃 이름은 천추 만대에
 길이길이 빛-날 무궁화 무궁화
 길이길이 빛-날 무궁화 무궁화

삼강오륜으로

- 三綱五倫으로 배를 모아
- 仁義禮智 뜻을 달고,
- 孝悌忠信 노를 저어
- 孝子烈女 실었으니,
- 一十百千萬萬歲를
- 同樂太平 하리로다.

2974.

삼강오륜으로 배를 모아
三剛五倫

자료제공-成義順성군관부관장
2974-2022. 05. 17

작사: 전 래 경기민요
작곡: 전한준 靑草 金漢俊

삼강오륜으로 배를 모아 인의예지 뜻을 달고
三剛五倫 仁義禮智

효제충신 노를 저어 효자열녀 실었으니
孝悌忠信 孝子烈女

일십백천 만만세를 동락태평 하리로다
一十百千 萬萬歲 同樂太平

일십백천 만만세를 동락태평 하리로다
一十百千 萬萬歲 同樂太平

충신은

- 忠臣은 滿朝廷이요
- 孝子烈女는 家家在라.
- 和兄弟 樂妻子하니
- 朋友有信 하오리라.
- 우리도 孔夫子 모시고
- 太平聖代를 누리리라.

2975.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太平聖代

자료제공-成義順성균관부관장
2975-2022. 05. 17

작사: 전 래 경기민요
작곡: 전한준 靑草 全漢俊

충신은 만조정이요 효자열녀는 가가재라
忠臣은 滿朝廷이요 孝子烈女는 家家在라

화형제락 처자하니 불우유신 하오리라
和兄弟 樂 妻子 하니 朋友有信 하오리라

우리도 공자 모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우리도 孔夫子 모시고 太平聖代를 누리리라

무량수각

- 無量壽閣 집을 짓고
- 萬壽無疆懸板 달아
- 三神閣不老草를
- 여기저기 심어놓고
- 仙堂에 兩親 父母님
- 모셔다가 延年益壽하리로다.

3033.

무량수각(無量壽閣) 집을 짓고

자료제공-成義順성균관부관장
2975-2022. 05. 17

작사: 전 래 경기민요
작곡: 전한준 靑草 全漢俊

무량수각 집을 짓고 만수무강현판달아

三神閣 불로초를 여기저기심어놓고

仙仙堂에 양친을 모셔다가 연년익수하리로다

神仙堂 兩親 延年益壽

전래 경기민요 노랫가락



성균관 부관장 성의순

경기민요 노랫가락 - 성의순

- 孔子님 심으신 남계
- 顏淵 曾子로 물을 주어,
- 子思로 뺨은 가지
- 孟子 꽃이 피었도다.
- 아마도 그 꽃 이름은
- 千秋萬代에 無窮花로다.

충신은

- 忠臣은 滿朝廷이요
- 孝子烈女는 家家在라.
- 和兄弟 樂妻子하니
- 朋友有信 하오리라.
- 우리도 孔夫子 모시고
- 太平聖代를 누리리라.

삼강오륜으로

- 三綱五倫으로 배를 모아
- 仁義禮智 뜻을 달고,
- 孝悌忠信 노를 저어
- 孝子烈女 실었으니,
- 一十百千 萬萬歲를
- 同樂太平 하리로다.

무량수각

- 無量壽閣 집을 짓고
- 萬壽無疆 懸板 달아
- 三神閣 不老草를
- 여기저기 심어놓고
- 仙堂에 兩親 父母님
- 모셔다가 延年益壽 하리로다.

신유
한글서
경숙해
말안
의미
의미



성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成義順 頓首拜

2018 서울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선정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17:00 선정되다. 성균관 문묘 해설사 양성 자격과정에 성균관 석전교육원 전례사과정, 성균관 석전교육원 총동문회 부회장 성의순이 주관하는 2018년 서울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

시민제안 공모사업 설명회가 2018.03.05.(월) 10시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인산인해로 대회의실이 꽉 차 숨 막혀서 진땀이 났다.

2016 시민 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성의순은 성균관 문묘 해설사 양성과정을 한국역사문화교육원에서 2016년05월 17일~07월12일 전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을 통과하여, 성균관 문묘 해설사의 자격증서를 취득하였습니다.

성균관 문묘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훌륭한 석학들을 모신 곳으로서 그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는 바로 그분들의 학문과 덕행을 알리고, 높이 칭송하며 백 가지 행동의 근본이 된다는 효과 오류를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으로 문묘의 해설사는 다른 관광지의 해설사와는 특별히 교육적으로 큰 목적이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금까지 연구하고 문의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며 2년을 초조하게 기다려 왔다.

본인 성의순을 아는 모든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선정되었다고 자부한다.

“저를 도와주신 여러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종로구로 신청하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아 용산구로 신청하기까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다. 2018년 03월 09일 (금) 마감시간 까지 얼마나 초조했는지 용산 구청이 왜 그리도 먼지 걸음이 더디기만 하구요. 서류제출 한 후 어떻게 집에 왔는지? 정신이 없었다.

신청 서류 제출 후 4월 11일 선정되었다고 축하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긴 터널 속에 있었는지?

고맙습니다. 여러 어르신들 성의순이 선정되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쳤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1600310

성균관 문묘 해설사 자격증서

성 명 : 성 의 순
생년월일 : 1938년 12월 17일
자격등급 : 성균관 문묘 해설사

위 사람은 비영리법인 한국역사문화교육원에서
시행한 성균관 문묘 해설사 양성과정 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검정을 통과 하였으므로 규정에 근거하여
'성균관 문묘 해설사'의 자격증서를 수여합니다.

2016년 7월 12일

한국역사문화교육원 대표 변 중 호





第2018-006號

資格證書



資格名 成均館 文廟解說師

姓名 成 義 順

生年月日 1938年 12月 17日

위의 사람은 本院에서 實施한 <成均館 文廟解說師> 양성과정(16주)의 전과정(2018. 5. 29~2018. 9. 11. 32시간)을 履修하고, 소정의 자격 검정시험을 통과 하였으므로 이 證書를 수여합니다.

위 사실을 確認 함.

檀紀 4351(서기2018)年 9月 18日

社團法人 國語古典文化院 理事長 權五春



성균관 문묘 해설사의 자원봉사시간 부여

1. 종로구청 본관 5층 자원봉사센터 방문
2. 정보센터 자료실 송승현 담당자 면담
3. 1365 수요처 등록 신청서
4.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신청서 작성 제출하면 된다.
5. 김오현 문화과장, 손승진 문화재관리팀 담당자 면담
6. 1년 정도 봉사 실적 쌓아 인정받으면, 2만원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7. 서울 평생교육에 시민제안서 제출 결과 선정되어 450만원 지원금 받아서, 성균관 문묘 해설사 4시간씩 10회 40시간 교육 후 성균관 문묘 해설사 39명을 배출하였습니다.

8. 2019년 08월 07일 (수) 14:00 올들어 최고로 더운날 말복 무렵 땀이 뚝뚝 눈 뜰 수가 없이 무덥다.

성균관 문묘 해설사를 위하여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자원봉사팀 방문, 문화과 문화재관리팀 방문 했습니다.

9. 직접 발로 뛰어다닌 결과 성균관 문묘 해설사에게 자원봉사 시간도 줄 수 있고, 돈도 2만 원씩은 줄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성과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 행사명 : 성균관(成均館) 문묘(文廟) 해설사, 자원봉사

- 일 자 : 2016년 08월 27일부터 현재까지
- 장 소 : 성균관, 대성전, 명륜당



2016년 08월 27일부터 현재까지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음
2018.07.10.(화) 제7강 성균관 문묘 해설사 양성과정 수업



2018. 07.17.(화) 성균관 동재에서 사회봉사와 나눔 실천



우리나라의 禮節의 본당인 成均館 해설사 성의순



제7강 수업을 마치고 처음으로 성균관 대성전 앞에서 참배하고
자 서 있는 모습



2018. 06. 28.(목)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회원들



2018년 07월 10일 (화) 작업완
료 비가 와서 충분히 못함

공로상 공적서

- 2022. 5.31(화) 여성유도회

1. 성의순은 1963년 숙명여대졸업 학사, 동 대학원 1965년 졸업 석사. 지인이 “놀아도 성균관에 가서 놀아라”는 말씀에 2001년 성균관 여성유도회 중앙회 부설 예학원 제13기 수료증

2002년 명덕학당 제15기 수료증

2003년 지사범 제9기 사범자격증

2015년 성균관 유교교육원(선비학당)에서 진사

2016~현재 성균관 석전교육원에서 전례사, 전수생, 이수자 과정

2. 2015년 5월 15일~6월16일까지 현금 600만 원 총무처에 입금, 2015년 6월 27일~7월 19일까지 현금 820만 원 총무처에 입금, 2015년 10월 10일~11월1일까지 현금 900만 원 총무처에 입금(가정주부가 전화요금이 매월 10만 원 이상 지출로 남편 걱정 들음)

3. 성균관 석전교육원 교육기자재 보강

도포 사대 유건일체 45벌 구입, 당의 및 치마 9벌 구입

중국 고전 술잔(爵) 2개 金 錠원장 寄贈

祭祀용병풍, 신주, 제상 50만 원

모형제수 120만 원 보관, 이동용 가방 구입

4. 제2강의실 환경 개선

@ 최대형 흑판 구입설치

@ 강의실 LED 전등으로 교체 110만 원

@ 공기청정기 90만 원 설치

@ 컴퓨터 구입 설치

5. 2018년 2019년 서울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 시민제안 공모사업에 성균관 문묘 해설사 양성 자격 과정에 선정되어 450만원 지원받아 성균관 문묘 해설사 양성 교육을 하고, 성균관 문묘 해설사에게 자원봉사 시간당 2만 원씩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성균관 문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요망

1. 성균관 문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요망합니다.

성균관 문묘 해설사 양성 교육은 우리나라 성현(18분)의 학문과 덕행을 알리고 높이 칭송하며 백 가지 행동의 근본이 되므로 교육적으로 큰 목적이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균관은 지난 반만년 역사에서 우리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균관은 우리나라 유교의 중앙본부로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의 가르침을 교육하고 유교 의례 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를 전승해온 곳입니다.

성균관은 고려말과 조선 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태학(太學)의 명칭, 학궁(學宮) 또는 반궁 이라고도 하였다. 성균은 음악으로 교육적 성과를 내기 위해 대사악이 성균지법을 맡았다고 한다. 그래서 성균은 음악의 조율을 맡춘 다는 의미로 어그러짐을 바로잡아 이루고 과불급(過不及)을 고르게 한다는 뜻이다.

2) 문묘해설사 양성.

석전의 의의 : 석전이라 함은 문묘에서 공부자(孔夫子)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을 일컫는다. 즉 만세종사(萬世宗師)이신 공부자께서 남기신 인의도덕의 이상을 근본 삼아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효제충신(孝悌忠信)의 실천과 수제지평(修

齊治平)의 도리를 천명함에 있어 배사모성(拜師慕聖)의 예로서 생폐예제(牲幣醴齊)를 헌설(獻設)하고 공부자께서 자리에 앉아서 계신 듯이 엄숙하고 경건하게 전례(奠禮)를 봉행하는 것을 석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원래는 문묘에서 선성(先聖), 선사(先師)에게 제사지내는 의식으로 석(釋)과 전(奠)은 다 차려놓는다는 뜻으로, 석채(釋菜)라 하며 빈번지류(蘋蘩之類)로 단조로운 차림이고, 석전은 생폐(牲幣)와 합악(合樂)과 헌수(獻酬)가 있는 성대한 제전(祭典)이다. 이러한 석전은 선성과 성현들의 학문과 인격과 덕행과 사상을 단순한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숭모하고 존중히 여기며 스승을 높이하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기풍을 체득하기 위하여 문묘에서 거행하는 의식이다.

3) 본래 문묘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에 설립한 태학(太學), 신라시대의 국학(國學), 고려시대의 국자감(國子監), 조선시대의 성균관(成均館) 등의 국립대학 구내에 건립하여 국조(國朝)에서 주관하는 오례(五禮) 중에서 길례(吉禮)편에 속하는 국가적 중사인 석전을 지내는 장소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태학이나 국학, 국자감, 성균관은 우리 나라의 유일한 전통적 민족대학으로서 유교를 근본이념으로 하여 인재를 양성해 온 교육기관이다.

4) 석전의 유래(由來)

석전이란 학교에서 선성(先聖), 선사(先師)에게 제사지내는 의식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선사(先師)란 앞서간 전대(前代)의

훌륭했던 스승들을 일컫는 말이고, 선성(先聖)이란 주대(周代)에는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周公)을 일컫는 것이 고대 중국의 관례이고, 한(漢) 이후 유교를 국교로 받들게 되자 공부자를 점차 선성, 선사의 자리로 올려 문묘의 주향(主享)으로 모시는 동시에 석전으로 부르르는 관례가 정착이 되었다. 후한(後漢) 명제(明帝) 같은 제왕은 주공(周公)을 선성, 공부자를 선사로 삼아 공부자의 고택(古宅)을 찾아가서 석전을 올리기도 하였다. 위(魏), 수(隨), 당(唐) 이후로는 대체로 공부자를 선성, 안회(顔回)를 선사로 받들어 석전을 올렸다.

5) 오늘날의 석전(釋奠)

우리나라의 석전대제에는 중국이나 일본에도 남아 있지 않은 고래(古來)의 악기와 제기를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고전음악인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과 고무(古舞)인 팔일무(八佾舞), 제관(祭官)이 입는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의상과 고전적 의식절차 등이 화려하고 장중하여 예술적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커서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석전은 동양의 철학과 학문과 그 인습에 깊이 뿌리를 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화의 양식으로 오늘날까지 동양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본질적인 맥락이다.

2. 성균관 지킴이 기본교육, 심화 교육, 현장실습도 해서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하는 보람으로 즐거워합니다. : 대성전, 명륜당, 향관청, 정록청, 진사식당, 동재, 서재 등 총채로 털고,

들기름걸레로 마룻바닥 닦고, 마른 걸레로 닦고, 문화재 주변 정리, 제초 작업을 7년간 해왔습니다. (사)문화살림 회원으로 성균관 지킴이와 인성 교육활동을 하였습니다.

3. 공통예절 : 학교는 사람다움을 가르쳐주고 지식을 넓혀 주어 더불어 살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어 내리는 배움의 터전이다. 학교가 없다면 어리석음을 깨칠 수 없으며 보다 넓고 깊은 새로운 지식을 전수(傳授) 할 수 없어, 사람들은 몽매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가르치는 선생님과 배우는 학생은 모두 학교의 존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2) 선생님과 학생은 학교의 모든 규칙을 엄중히 지켜 학교 생활이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게 한다.

3) 선생과 학생은 학교의 모든 시설을 아끼고 다듬어 본래의 목적에만 활용한다.

4) 선생과 학생은 학교 안에서 학문을 연마하는 일 이외의 일을 하지 않는다.

5) 선생과 학생은 학교가 모든 사람들의 본받음의 대상임을 자각해 진리와 원칙에 성실한다.

4. 선생님을 모시는 예절 : 부모는 낳으시고 선생님은 가르치시기에 선생님은 부모와 같은 어른이다.

1) 선생님을 부모 모시듯이 공경으로 섬긴다.

2) 선생님은 지식뿐 아니라 모든 생활의 지혜를 주시므로

본받는다.

3) 선생님의 가르침은 진리이며 원칙이다. 어긋남이 없이 성심을 다해 배운다.

4) 선생님의 가르침에 의문이 있으면 공손하게 질문해 깨닫는다. 묻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물어서 배운다는 뜻으로 학문(學問)이라 한다.

5) 선생님을 모시는 데는 배운다는 것 외의 다른 생각은 일체 갖지 않는다.

5. 제자를 대하는 예절 : 제자는 오로지 배워서 본받으려는 대상이다. 지식뿐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성심을 다해 가르치고 본 보인다.

1) 제자 대하기를 자기의 자식 대하듯이 사랑을 다한다.

2) 제자의 실수는 선생의 부족에서 연유한다. 항상 자책하는 마음으로 제자를 대한다.

3) 제자는 선생의 거울이다. 배움을 게을리하는 제자를 방치하는 것은 선생이 게을러서이다.

4) 제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선생은 그 제자를 버리거나 선생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가르쳐야 한다.

5) 지식을 더 탐구하고 연마해 제자의 학문 욕구에 부응한다. 선생은 제자보다 더욱 새로워져야 한다.

6. 동문간의 예절 : 한 학교, 한 선생님에게서 배운 사람은 형제자매와 같은 것이다.

1) 같은 학교, 한 선생님에게서 배우거나 같은 학문을 하는

사람은 배움의 연조와 학문의 정도에 따라 엄격한 선후의 예절을 다한다.

2) 좋은 일은 서로 격려해 부추기며 칭찬하고, 나쁜 일은 서로 깨우치고 경계해 고치게 한다.

3) 선배를 형님 모시듯이 공경하고 후배를 동생 사랑하듯이 아껴 서로를 배운다.

4) 동문과 선후배는 협력해 학교를 발전시키고 선생님의 학덕을 빛나게 하는 데에 주력한다.

5) 동문과 선후배는 학문에 시샘을 하지 말고, 자기가 더 노력해 상대의 부족을 메우며, 같은 학문을 하는 사람은 남을 시기하기에 앞서 자기의 연마와 탐구로 학문을 발전시킨다.

성균관(成均館) 문묘(文廟)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합니다.



성의순(成義順)강사



성균관 대성전 전경

혜록 성의순

- ♥숙명여자대학교
1963년 정경대학상학과 졸업 학사
1965년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석사
- ♥경제기획원 공무원 정년 퇴직
- ♥(社)韓國典禮院 禮節教授
- ♥국가공인 실천예절지도사
- ♥북촌예절문화원 원장
- ♥한국효충예절문화연구원
- ♥무계원 서당 훈장
- ♥성균관 석전교육원 강사
- ♥성균관 문묘 해설사
<자격증서 제1600310호>

010-3213-9186
sws9186@hanmail.net



3

成均館大成殿 先聖先賢位牌 奉安位次圖

성균관 대성전 선성선현위패 봉안위차도

(我國 18賢)

文昌侯 崔致遠	文忠公 鄭夢周	文獻公 鄭汝昌	文元公 李彦迪	文正公 金麟厚	文簡公 成渾	文烈公 趙憲	文正公 宋時烈	文純公 朴世采
문정후 최지연	문충공 정몽주	문헌공 정여창	문원공 이연석	문정공 김인후	문간공 성훈	문열공 조현	문정공 송시열	문순공 박세채

大成성지성
大成至聖
文宣왕

(我國 18賢)

弘儒侯 薛聰	文成公 安裕	文敬公 金宏弼	文正公 趙光祖	文純公 李滉	文成公 李珥	文元公 金長生	文敬公 金集	文正公 宋澣吉
홍유후 설정	문성공 안유	문경공 김홍필	문정공 조광조	문순공 이항	문성공 이이	문원공 김상생	문경공 김집	문정공 송계길

鄆國宗聖公 曾子

鄆國亞聖公 孟子

兗國復聖公 顏子

沂國述聖公 子思

(五聖)

衛國公 端木賜

衛國公 端木賜

衛國公 端木賜

衛國公 端木賜

衛國公 端木賜

성균(成均)의 뜻

- ▶ 成均(성균) : 고르게 이루는 곳.
 成 : 人才之未就, 인재가 아직 이루지 못하고,
 均 : 風俗之不齊, 풍속을 바로 잡는다.
- ▶ 太學(태학) : 크게 배우는 곳(고구려 국립대학)
- ▶ 國學(국학) : 나라에서 세운 학교. (신라 국립대학)
- ▶ 國子監(국자감) : 나라의 일꾼을 살피는 곳 (고려 국립대학)
- ▶ 泮宮(반궁) : 물이 흐르는 궁전,
 제후국의 학궁을 지칭, 성균관의 별칭
- ▶ 賢關(현관) : 어질고 현명한 선비가 들어가는 곳.
 (중국의 [한서] 책에 나오는 말)

◆ **종합** : 어질고 학덕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큰 학문을 배우는 국가가 세운 학교

5

성균관 대성전(大成殿)

1. 大成殿 : 큰대, 이룸성, 큰집전은
 공자와 그 제자 및 우리나라 유학자 등 성현의 위패를 모신 곳이며,
 학신(學神)을 모신 곳이라 하여 文廟(문묘)라고도 한다.(현재 39위)

◆ 유교의 이념으로 건국한 조선왕조는 개국 후 개성에서 지금의 장소로
 이전 유교선현들을 배향하며 후학들을 양성하는 공간으로 사용.



▶ 현판필체 : 한호(韓濩)(號:石峯)
 (1543~1605) 친필.

▶ 매년 음력 2월, 8월 첫 정일(丁日)에 석전대제 봉행.

▶ 매월 삭망(朔望: 1일, 15일) 분향례 봉행.

6

문묘 (文廟)

5. 문묘(文廟) : 문묘는 공자를 모신 사당을 일컫는 말이다. 당(唐) 때에는 '문선왕묘(文宣王廟)'라고 부르다 원(元) 대 이후 문묘(文廟)라고 하였다.



신은
 향은
 계수해진
 물은
 흐른
 여가
 지고



김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성의순

■ 행사명 : 고결한 선비 우계 성 혼 선생을 만나다.

- 일 자 : 2019년 07월 01일 (월) 10:00 ~ 11:30
-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탄현초등학교 총 38명
2교시 : 10:00~10:40 1학년 11명+3학년 8명=19명
3교시 : 10:50~11:30 5학년 7명+6학년 12명=19명

	
<p>경기도 파주시 탄현초등학교 2교시 10:00~10:40 1학년 11명 + 3학년 8명 = 19명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 선생님의 시조 '말 없는 청산이요'를 함께 낭독하였다.</p>	<p>우계 성 혼, 고결한 선비, 지행일치, 언행일치, 정심정도를 붓으로 직접 쓰고 있습니다.</p>



3교시 10:50~11:30 5학년 7명 + 6학년 12명 = 19명

탄현초등학교 인사, 인사는 내가먼저 함께 울동으로 탄현 탄현 탄현!!! 하였다.

우계 성 혼, 고결한 선비, 지행일치, 언행일치, 정심정도를 붓으로 직접 쓰고 있습니다.

2021년 교육자원봉사 활용학교 수요조사

■ 2021년 교육자원봉사 활용학교 수요조사(상반기)

차제	학교명	요청 활동	월	일	요청 세부내용	학생 수	봉사자	비고
1	검산초	15. (공예) 정월 복주머니 만들기	11월	2일	건명 : 복주머니 만들기 대상학년 : 3학년 대상학생수 : 71명(3학급) 희망일시 : 11월 2일 10:30 - 12:30	71	성의순	
2	검산초	15. (공예) 정월 복주머니 만들기	12월	1일	건명 : 복주머니 만들기 대상학년 : 1학년 대상학생수 : 67명(3학급) 희망일시 : 12월 1일 09:10 - 11:30	67	성의순	
3	금산초	1. (강연) 열두 띠 동물 이야기	4월-5월 중	4월-5월 중	대상 : 2학년 1-4반 학급별로 나누어 4회 수업 희망 오전 중	80	성의순	
4	금산초	19. (놀이지도) 우물 고구	5월-7월 중	5월-7월 중	대상 : 2학년 1-4반 학급별로 나누어 4회 수업 희망 오전 중	80	성의순	
5	금산초	21. (놀이지도) 칠고 집기	5월-7월 중	5월-7월 중	대상 : 2학년 1-4반 학급별로 나누어 4회 수업 희망 오전 중	80	성의순	
6	금화초	19. (놀이지도) 우물 고구	4월	19일	건명 : 우물 고구 대상학년 : 2학년 4학급 대상학생수 : 100명 희망일시 : 4월 19일 10:00-12:00	100	성의순	
7	농안초	1. (강연) 열두 띠 동물 이야기	4월	12일	건명 : 열두 띠 동물 이야기 대상학년 : 1, 2학년(2학급) 대상학생수 : 1-27명, 2-17명(총 44명) 희망일시 : 4월 12일(월) 09:40-10:20, 10:30-11:10	44	성의순	
8	문발초	19. (놀이지도) 우물 고구	11월	26일	건명 : 우물 고구 대상학년 : 5학년 대상학생수 : 80명(3학급) 희망일시 : 11월 26일 10:40-11:40	80	성의순	
9	문발초	20. (놀이지도) 제기 차기	6월	10일	건명 : 제기 만들어 차오기 대상학년 : 6학년 대상학생수 : 81명(3학급) 희망일시 : 6월 10일(목) 10:00-11:00	81	성의순	
10	문산동초	19. (놀이지도) 우물 고구	1학기 중	1학기 중	건명 : 우물 고구 대상학년 : 4학년 대상학생수 : 약 30명 (1학급) 희망일시 : 1학기 중	30	성의순	
11	문산동초	20. (놀이지도) 제기 차기	1학기 중	1학기 중	건명 : 제기 차기 대상학년 : 4학년 대상학생수 : 약 30명 (1학급) 희망일시 : 1학기 중	30	성의순	
12	문산동초	21. (놀이지도) 칠고 집기	1학기 중	1학기 중	건명 : 칠고 집기 대상학년 : 4학년 대상학생수 : 약 30명 (1학급) 희망일시 : 1학기 중	30	성의순	
13	산내초	15. (공예) 정월 복주머니 만들기	6월	※ 6월2주, 6월3주	건명 : 정월 복주머니 만들기 대상학년 : 3학년 대상학생수 : 32명씩(12학급) 희망일시 : 6월 1주, 월 화 수 10시-11시, 6월 2주, 월 화 수 10시-11시	380	성의순	
14	산내초	16. (공예) 오월 단오 장명루 짜기	6월	※ 6월2주, 6월3주	건명 : 오월 단오 장명루 짜기 대상학년 : 3학년 대상학생수 : 32명씩(12학급) 희망일시 : 6월 1주, 월 화 수 11시-12시, 6월 2주, 월 화 수 11시-12시	380	성의순	
15	운정초	15. (공예) 정월 복주머니 만들기	6월	4일	건명 : 정월 복주머니 만들기 대상학년 : 6 대상학생수 : 26명(1학급) 희망일시 : 6월 4일 9:00-10:20	26	성의순	
16	운정초	16. (공예) 오월 단오 장명루 짜기	6월	14일	건명 : 정월 복주머니 만들기 대상학년 : 6 대상학생수 : 26명(1학급) 희망일시 : 6월 14일 10:00-11:00	26	성의순	
17	운정초	19. (놀이지도) 우물 고구	4월	22일	건명 : 우물 고구 전통놀이 대상학년 : 6 대상학생수 : 52명(2학급) 희망일시 : 4월 22일 10:30-11:30(비대면)	52	성의순	
18	파주대원초	15. (공예) 정월 복주머니 만들기	5월	21일	건명 : 정월 복주머니 만들기 대상학년 : 1 대상학생수 : 75명(3학급) 희망일시 : 5월 21일 9:00-11:10(1-3교시)	75	성의순	
19	파주대원초	16. (공예) 오월 단오 장명루 짜기	5월	28일	건명 : 오월 단오 장명루 짜기 대상학년 : 1 대상학생수 : 75명(3학급) 희망일시 : 5월 28일 9:00-11:10(1-3교시)	75	성의순	

차별	학교명	요청 활동	월	일	요청 세부내용	학생 수	봉사자	비고
20	파주대원초	19. (놀이지도) 우물 고누	6월	11일	건명 : 우물 고누 대상학년 : 1 대상학생수 : 75명(3학급) 희망일시 : 6월 11일 9:00~11:10(1~3교시)	75	성의순	
21	파주대원초	19. (놀이지도) 우물 고누	5월	17일	건명 : 전래놀이 대상학년 : 2 대상학생수 : 75명(3학급) 희망일시 : 5월 17일 9:00~11:10(1~3교시)	75	성의순	
22	파주대원초	20. (놀이지도) 제기 차기	6월	18일	건명 : 제기 차기 대상학년 : 1 대상학생수 : 75명(3학급) 희망일시 : 6월 18일 9:00~11:10(1~3교시)	75	성의순	
23	파주대원초	20. (놀이지도) 제기 차기	5월	24일	건명 : 제기 차기 대상학년 : 2 대상학생수 : 75명(3학급) 희망일시 : 5월 24일 9:00~11:10(1~3교시)	75	성의순	
24	파주대원초	20. (놀이지도) 제기 차기	4월	28일	건명 : 제기 차기 대상학년 : 5 대상학생수 : 75명(3학급) 희망일시 : 4월 28일 9:00~11:10(1~3교시)	75	성의순	
25	파주대원초	20. (놀이지도) 제기 차기	5월	12일	건명 : 제기 차기 대상학년 : 6 대상학생수 : 75명(3학급) 희망일시 : 5월 12일 9:00~11:10(1~3교시)	75	성의순	
26	마지초	19. (놀이지도) 우물 고누	9월	7일	건명 : 우물 고누 전통놀이 대상학년 : 1학년 대상학생수 : 32명(2학급) 희망일시 : 9월 7일 9:50~10:30	32	성의순	
27	마지초	21. (놀이지도) 칠고 집기	9월	14일	건명 : 칠고 집기 대상학년 : 1학년 대상학생수 : 32명(2학급) 희망일시 : 9월 14일 9:50~10:30	32	성의순	
28	마지초	19. (놀이지도) 우물 고누	8월	31일	건명 : 우물고누 대상학년 : 2학년 대상학생수 : 27명(1학급) 희망일시 : 8월 31일 9:50~10:30	27	성의순	
29	마지초	21. (놀이지도) 칠고 집기	9월	7일	건명 : 칠고집기 대상학년 : 2학년 대상학생수 : 27명(1학급) 희망일시 : 9월 7일 9:50~10:30	27	성의순	
30	마지초	15. (공예) 정월 복주머니 만들기	9월	2일	건명 : 정월 복주머니 만들기 대상학년 : 3학년 대상학생수 : 29명(2학급) 희망일시 : 9월 2일 9:40~10:20	29	성의순	
31	마지초	16. (공예) 오월 단오 장명루 짜기	9월	9일	건명 : 오월 단오 장명루 짜기 대상학년 : 3학년 대상학생수 : 29명(2학급) 희망일시 : 9월 9일 9:40~10:20	29	성의순	
32	마지초	19. (놀이지도) 우물 고누	6월	10일	건명 : 우물 고누 대상학년 : 3학년 대상학생수 : 29명(2학급) 희망일시 : 6월 10일 9:40~10:20	29	성의순	
33	연풍초	1. (간편) 열두 띠 동물 이야기	5월	20일	건명 : 열두 띠 동물 이야기 대상학년 : 3학년 대상학생수 : 32명(2학급, 각 16명) 희망일시 : 5월 20일 (목) 10:00~11:30	32	성의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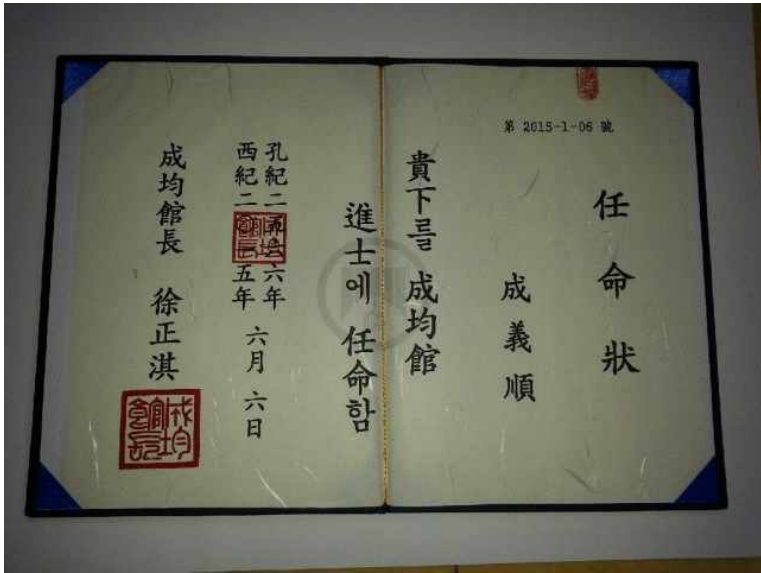
성균관 진사 임명을 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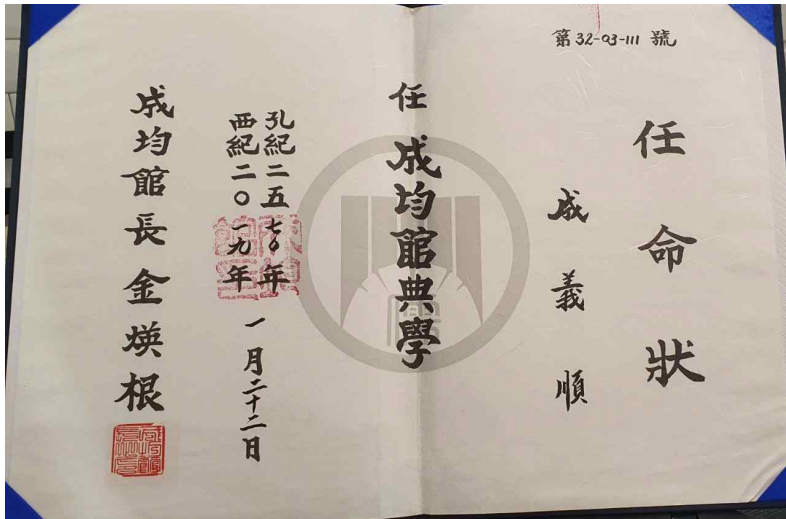
▲2015년 5월 15일 金錠 부관장이 성균관進士교육을 하다.



▲2015. 5.15. 金暻鉉 부관장이 진사교육에 화환을 보낸다.



▲2015. 6.6. 金錠 成均館 부관장 成均館 進士 任命狀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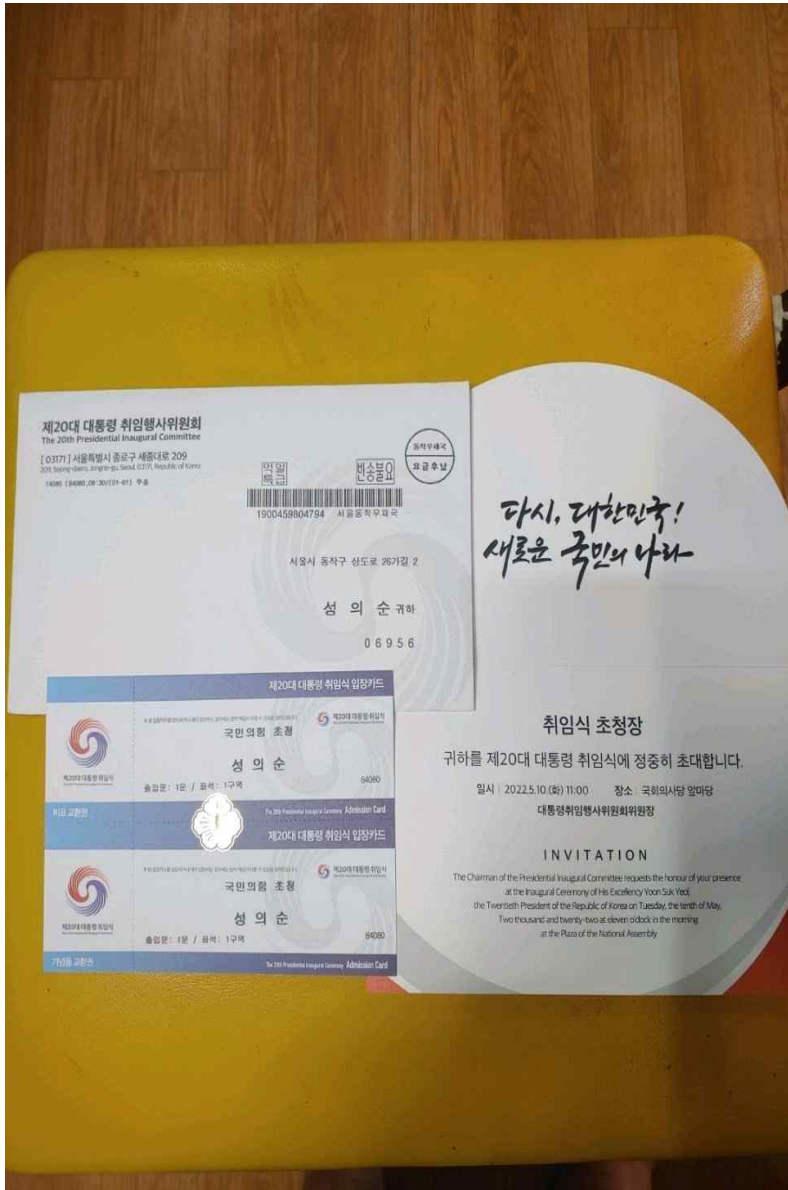
成均館 任員(典學) 任命 告由 孔紀2570年(2019) 6月27日





274_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276_ 고결한 선비 우계 성흔을 만나다

■ 서평

열정과 헌신이 낳은 뜨거운 우계 사랑

- 성의순 편저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최봉희(시조시인, 계간 글벗 편집주간)

성의순 선생님은 1938년 경기도 양주 출생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정경대학 상학과를 졸업한 그 후 경제기획원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후에 (사)한국전례원 예절교수, 국가공인실천예절 지도사, 한국효충예절문화 연구원, 무계원 서당 훈장, 성균관 석전교육원 교육부장, 성균관 문묘 해설사 강사, 성균관 전학, 전례사, 전수생, 우계문화재단 교육이사, 성균관 부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02월에는 국무총리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 북촌예절문화원 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2012년 『서울문학』 가을호에 수필 부문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했다. 현재는 글벗문화회 정회원으로 활동하시면서 2020년부터 공모연수 책만세와 글벗문화회에 시화전 등 모든 행사에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는 우계문화재단 교육 이사는 물론 성균관 부관장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의 초중고에 우계 성혼 선생의 업적과 전통문화와 전통 놀이를 알리는 데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자 원봉사 1만 시간 이상을 돌파하는 등 구순의 나이가 가까움

에도 열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고양시에 중학교에서 ‘경기도 사람책’으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글벗문학회에서도 각종 백일장과 시화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글벗백일장에 우수상(2020년)과 아차상을 수상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글벗문학회의 노래로 ‘글벗 인사’와 ‘책만세’ 노랫말을 창작하여 발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글 나눔과 배움 활동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지금도 서울에서 경기도의 고양지역, 파주지역의 39개 학교에 각종 전통문화 예절교육 등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열정적인 교육적인 활동에 교육기관의 담당자는 물론 지켜보는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이런 모습은 젊은이에게는 물론 함께 하는 교육자에게도 모범이 되는 일이다. 이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성의순 선생님과 인연은 3년 전인 2019년 7월로 기억한다. 우계문화재단의 교육 이사로 활동하면서 우계문화재단에서 발간한 책 『우계 성혼』을 각 학교에 홍보하고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방문한 바 있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람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경기도 꿈의학교에서 학생들의 독서토론을 지도하는 등 후세를 위한 그분의 열성과 헌신을 만날 수 있었다. 그분의 교육철학과 열정적인 프로그램의 참여는 모든 이의 탄복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작은 키에서 나오는 낭랑한 목소리와 노래는 물론이고, 학생들 앞에서 한복을 입고 신나게 율동을 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배움을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존경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그분의 품성과 열성에 반했다고 말해야 올바른 표현이다.

이제 그는 우계 성훈 선생님의 청빈한 삶과 고결한 선비정신을 여러 학생과 파주의 지역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위해 오로지 봉사의 마음으로, 그것도 자비량으로 참여하면서 항상 환한 웃음을 잃지 않고 있다.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성의순 작가와의 동행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다.

성의순 작가를 만나면서 떠오른 행복의 언어가 있다. 프랑스 작가 조르주 상드(George Sand, 1804~1876)의 명언이다.

“우리 인생엔 단 하나의 행복만 있다. 그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There is only one happiness in life, to love and be loved).”

긍정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산다는 것이다. 어찌면 성의순 작가는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기뻐한다. 오늘도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할까?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할까? 어떻게 즐겁게 나눌까?”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루라는 개념 속에서 1년이라는 개념보다 365배 값지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건강도 하루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이다. 행복도 세월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오늘, 하루하루 안에 있기에 열정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감히 성의순 작가를 나눔과 배움의 여장부이자 우리 시대의 작은 영웅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마음이 한결 같은 분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감정을 따라 움직인다. 또 흔들리기 쉽다. 그 때문에 마음을 한결같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기심과 보호본능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타인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고 오롯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춥고 힘겨운 겨울날에도 성의순 선생은 열정의 삶을 살고 있다. 서울 장승백이에서 파주지역 혹은 연천 종자와 시인박물관까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전철과 버스, 택시를 타고 오가면서 그들과 나눌 소중한 이야기보따리를 들고 행복의 발걸음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의순 선생은 우리 글벗문학회는 물론 성균관, 그리고 우계문화재단에서 어느샌가 큰어른이 되어 있는 것이다.

힘이나 사상은 일시적이다. 그 영향력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위대한 것이다.

다시금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성의순 작가를 존경한다. 그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과 배움의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성의순 작가를, 아니 성의순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건대 나는 그의 영원한 팬이 되었다.

사랑은 시간을 거스르는 힘이 분명 있다. 사랑은 때마다 기

적을 일으키고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일까? ‘사랑하면 나이와 세월을 잇는다.’고 하지 않던가.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계속해서 배움의 기쁨과 나눔의 기쁨, 사랑의 기쁨을 만끽하길 소망한다.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아마도 3년 정도는 걸린 것 같다. 처음 기획한 때부터 자료를 찾고 퇴고하고, 그리고 다시 정리하고 함께 수정하면서 무던히도 땀을 흘렸다. 성의순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꼼꼼하신지? 잘못된 원고는 다시 고치고 수정하고 또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다. 본인이 실천한 다양한 교육자료와 사진, 그리고 본인이 활동한 엄청난 자료들이 차고도 넘친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서 이 책에 다 게재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다. 아마도 다음 기회에 그 많은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금 책을 개정판 혹은 새롭게 출간하리라 믿는다.

오늘도 소망한다. 성의순 작가님을 존경한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발걸음으로 늘 함께하길 소망한다. 그의 열정에 비례해서 건강과 행복도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 글벗교양 20 성의순 편저

고결한 선비 우계 성혼을 만나다

초판인쇄 2022년 10월 7일
초판발행 2022년 10월 7일
편저자 성 의 순
펴낸이 한 주 희
펴낸곳 도서출판 글벗
출판등록 2007. 10. 29(제406-2007-100호)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16, 905동 1104호
(야당동, 롯데캐슬파크타운 한빛마을)
홈페이지 <http://guelbut.co.kr>
<http://cafe.daum.net/geulbutsarang>
e-mail juhee6305@hanmail.net
전화번호 031-957-1461
팩 스 031-957-7319
청 가 15,000원

ISBN 978-89-6533-229-9 04810

*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